

I. 서 론

공 백

I. 서론

시민권이라 함은 본질적으로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개념이지만, 그 의미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려해볼 때 18세기 후반 이후 근대적 개념의 의미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에 대한 청구권과 참정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범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민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http://100.empas.com>).

시민권의 이와 같은 개념적 의미 변화에 따라 귀족계급과 남성에게 대비되는 사회적 계급 또는 계층으로서 일반 시민 및 여성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국가에 대한 청구권 등이 점차 신장되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형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들의 시민권이 모든 시민적 권리의 영역에 있어 중심적 위치로 이동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보면 시민적 권리가 선진화된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사회적 소수 계층의 사회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시민적 권리의 확충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적 권리 증진을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정책의 구성과 실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계층의 경우에는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그로 인한 무한 경쟁의 결과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들의 시민적 권리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의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등 이점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도에 조사된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조사연구’ 보고서

(길은배, 정희욱, 김정래. 2000)에 의하면 이 부분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데,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청소년들 스스로에 의해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조사결과는 그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상기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반적 권리만을 물어보았을 뿐 시민권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의 영역에서의 선거권(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었음), 피선거권, 국가에 대한 청구권 등은 미미하거나 제외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 부분을 강화·포함시켜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에 대해 심층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실질적으로 그 부정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을 통해 보여주었던 청소년 계층의 새로운 역동적 역량의 모습은 1999년도보다는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의 시민적 권리를 증진시켜줄 수 있는 토대의 국가·사회적 제공은 아직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 증진 방안에 대해 이론적 논의, 사례연구, 면접조사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현실적 정책 제안들로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1. 시민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청소년과 시민권
3. 연구의 방향성

공 백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1. 시민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현대적 의미에서 고찰되어진다. 과거 전통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구조의 토대를 형성하였던 다양한 천부적 계층화가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 등을 계기로 붕괴되어지면서 나타나게된 현대적 국가 체계는 명확한 지역적 경계선을 지니게 되었고 구성원들의 자유와 평등 및 국가의 모든 제반 사항들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한 합리성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서로의 자유와 평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논리와 체계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시점이 현대적 개념인 시민권의 등장과 연계되어진다.

물론, 시민권 개념을 보다 광의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당시의 시민권 개념은 터너(B.S.Turner 저, 서용석 외 역, 1997 35)의 다음 주장처럼 특정 시민에게 국한된 한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시민권의 주요한 기준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통치 받을 수 있는 능력이며, 그러한 능력은 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에 기반 한 자기훈련과 교육의 결과였다. 진정한 시민은 어떻게 복종하는 지를 알며, 어떻게 명령하는 지를 아는 사람이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인식에 근거하여 일정 범주의 사람들을 완전한 정치참여에서 배제했다.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와 해방된 노예는 시민으로서는 부적절 하다고 주장했다. 그와 유사하게 여성과 어린이도 매우 제한되고 한정된 의미에서만 시민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최고의 정부 형태는 시민범주에 노동자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의미의 시민을 '지배특권을 공유하는 사람(one who has a share in the privileges of rule)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전통사회에서의 시민권 개념은 특정 계층에 한정된 개념이었으며 현대적 정치체계의 등장으로 볼 수 있는 오늘날의 시민권 개념과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18세기를 지나면서 점차 국가의 의미가 더욱 공고히 됨에 따라, 이 개념은 홉스나 루소의 사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제도적인 차원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국가의 틀이 강화됨으로써 구성원들이 지나게 되는 국가와의 관계 내에서 그들의 시민권을 정의하게 되는 경향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루소의 '일반의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 이후의 시민권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B.S.Turner 저, 서용석 외 역, 1997 . 147-148).

좀더 현대적 맥락에서는, 시민권은 종종 국적과 밀접히 관련되며 국민적 시민권은 단지 국민국가의 성원권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접근방식 중의 한 실례가 시민권을 '공식적인 신분증명서'로 정의하는 것이다. 즉, 시민권은 한 국가의 법적 성원권을 의미한다 하나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에 충성한 대가로 자유와 보호를 포함한 정치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시민권의 존재는 중앙집권화된 국가, 정치참여체제와 같은 정치제도, 교육제도, 그리고 개인이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다양한 제도들을 선결조건으로 한다

물론,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권의 영역을 해석하는 학자들 중 대표적으로 마샬(Marshall) 같은 경우¹⁾에는 시민권을 다시 세

1) B. S. Turner(1986) 시민권과 자본주의 서용석, 박철현 역(1997) 일신사. p 47, pp 149-150

가지로 세분화하여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주장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경계 지워진 지역적 한계 내에 소속되어 있는 특정 집단(국가, 사회 등)의 구성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권리인 오늘날의 시민권(선거권, 피선거권,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고려해볼 때 마샬의 세분화된 정의는 단순히 시민권 또는 시민적 권리로 포함·적용시켜도 무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엘레프센(B. Ellefsen), 하멜(J. Hamel), 윌킨스(M. Wilkins) 등(1999 : 89-99)이 연구한 바를 보아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권의 개념을 특정 정치적 연합체 내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 되어있다. 즉, 시민권이란 해당하는 정치적 연합체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주어지는 자연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 대부분의 개인은 출생과 더불어 국가에 통합되어지고 이후 다양한 유형의 사회화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인지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를 통해 사용되어질 시민권의 의미 또한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석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청소년의 시민권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 적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마샬이 주장하는 시민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민적 권리 법적 지위와 관계된 권리로서 개인의 신체 및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기 위한 권리를 말함.
- 정치적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로 선거권을 말함.
- 사회적 권리 경제적, 복지적 권리를 찾기 위한 권리를 말함.

2. 청소년과 시민권

1) 청소년의 ‘권리’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내일의 주역이 아닌, 오늘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정책 당국의 의지가 집약되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청소년상(像)의 지표로 제시된 것이 1998년 10월에 선포된 새로운 「청소년헌장」이며, 이를 구현할 청소년정책 기조를 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이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지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평가(김민, 2002; 한상철, 2002)가 이루어진 바 있다.

1998년에 개정된 청소년 헌장의 기본 방향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그 동안 유보되고 제한되었던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서 그들 자신이 적극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권리 못지않게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인권을 지닌 사회 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천명”하는 것이었다(문화관광부, 1998).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새삼스럽게 천명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억압되었던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고, 경시되어 왔던 청소년의 인권을 새롭게 인식하여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또한 이 헌장이 “국민 계몽적인 선언의 의미가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확립하고, 아울러 책임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자 헌장 제정 과정에 청소년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참여분과’와 ‘청소년의 소리 기자단’,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각 지역의 여러 청소년위원회, 전국 단위의 학생연대조직 등이 구성되면서 여러 경로의 참여가 적극 장려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는 과연 얼마나 청소년의 참여를 확장시켜 왔으며,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측면에는 어떻게 기여하여 왔을까? 어쩌면 이제 조그만 단서를 잡은 것일 뿐, 아직 대다수 청소년의 삶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 확인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참여를 통해 청소년이 오늘 누려야 할, 삶의 현장에서 당연한 조건으로 담보해야 할 참여의 권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 가는 청소년의 인권은 어떤 모습일까?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고찰하도록 한다.

2)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

인권을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권리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봉철, 1991 : 6-7). 첫째,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확보와 행사를 위한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이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둘째,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가진다. 셋째,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권의 근거이기 때문에 인권은 제도적 권리 이전에 도덕적 권리이다. 넷째, 이것이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만큼 당위적 권리이다. 즉 인간이라

면 누구에게나 타당한 만큼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존재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인권에 대한 논의는 그 구체적인 실체를 포착하기 어렵다 즉 현실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인권이란 사회 속에서 개별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사람과 조직·제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인적·물적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즉, 인권이라는 권리의 주체도, 권리가 요구되고 행사되는 것을 존중해야 할 상대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며, 따라서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영역에서 그 사회의 성원인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권리에 그 핵심이 있으며, 인권의 구체적인 영역은 인권의 사회영역, 즉 개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 사회의 제반 규율과 제도에 대하여 갖는 권리영역인 시민권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제반 규율과 제도는 궁극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자유 및 복지를 보장·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시민권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유권과 복지권을 위한 시민들의 권리총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봉철, 1991 : 12-13).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시민권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존재로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이 갖는 자유권과 복지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인권지표 체계'(길은배 외, 2001)에서는 '청소년의 시민권과 자유'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권리로서의 자유라는 측면과 이러한 자유가 차별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요구할 권리로서의 복지권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 비록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수립 시행에 의해 많은 부분 논의의 진전에 따라 의식의 변화가 있었고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지표에서는 청소년 인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시민권과 자유’의 항목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그러한 사회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살펴보고, 그것이 사회에서 구현되는 현실태로서의 의미를 시민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동시에 청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논의들이 막힘 없는 무한계도를 달리는 방임의 자유론적 논의로 전개될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한시적인 정치적 도구화로 오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즉, 현재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논의의 수준에서 다소 진부한 논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인권의 영역인 청소년의 시민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 증진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서의 청소년 참여의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3) 청소년의 시민권

청소년과 관련되어 가장 흔히 거론되는 것이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라는 문구일 것이다. 물론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 시행되면서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의 오늘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현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개정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청소년의 자리는 “미래사회의 주역”에 더 많이 할애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인식인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차세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제대로 커가야 한다는 이러한 여망은 아직은 막연한 수준에 있다. 지금 우리 사회를 꾸려나가는 성인들은 점차 노인이 되어 일선에서 물러나고,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니까 그들이 잘 자라야 한다는 당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연령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서 직업인이 되는 문제, 부모의 보호로부터 점차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생활인이 되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형성하는 문제 등 인생 발달의 대강을 틀 잡아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유보되었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기의 과제 수행의 성패는 사회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복잡한 각종 기제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잘 적응하는가 하는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사회 속의 존재로서, 온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는 것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아직도 부모나 사회의 보호에 의존적인 존재인 동시에 점차 독립성이 높아지는 단계로 옮겨가는 이중적인 존재로서 스스로의 자아를 확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있다. 따라서 가정과 사회는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실현해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사회 전 영역에 걸친 포괄적인 지원과 보호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

으로 어느 한 측면에서의 지원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 이러한 까닭에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정책은 아직은 성숙기에 도달했다기보다는 형성기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니 어쩌면 외형적으로는 침체기에 있다. 반드시 규모가 질을 결정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주무부서의 규모가 축소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전담 부서도 많이 줄어들었다. 사회 전반에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청소년정책 분야도 예외 없이 긴축의 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하여 지방 단위의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들도 지방 선거 등과 관련하여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성장을 멈추는가?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은 사회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더 절실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가? 경제논리나 정치적 논리가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무에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는 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이 오히려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기에 적합한 시점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책무의 단서는 청소년을 시민권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있거나, 시민권을 획득했으나 성숙한 권리 행사 능력을 키워나가는 존재로 인정해 가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시민(Bürger, citoyen, bourgeois)’은 원래 서구의 고대 도시국가에서 출생신분에 따라 부여된 정치적 결정권의 담지자를 뜻하

였으나, 11세기 이후 도시거주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고대의 시민이 지주와 동일시된 반면 중세의 시민은 봉건영주의 통제에 저항하는 도시의 상인, 수공업자를 뜻하게 되었다. 서양에서 대두된 시민사회 형성의 모체가 된 시민계층의 발생은 베버(M. Weber)에 따르면 네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해석된다. 첫째는 ‘도시들’의 존재인데, 이는 삶의 지리적·생태학적 조건을 뜻한다. 둘째는 ‘개별국가들의 합리적, 관료제적 행정’인데, 이는 사회조직의 기술적 합리성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재정적으로 조건지어진 자본주의적 이해집단들과의 결합’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생성·발전의 주역으로서 시민계층의 역할을 지칭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삶의 주체들 사이의 ‘권력을 둘러싼 경쟁’인데, 이는 인간의 사회적 삶과 그 역사를 관통하는 권력현상과 지배·피지배구조 형성의 한 주요 측면을 시민계층 생성의 경우에도 엿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시민’이라는 개념은 어떤 국가에의 정치적·법적 소속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되고, 이 소속은 일정한 권리(거주권, 참정권 등)와 의무(납세, 국방 등)에 결부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시민(Staatsbürgerschaft)’,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시민(국민)은 프랑스어 개념인 ‘시민(citoyen)’에 상응하며, 이는 사회경제체제나 국가 권력구조와는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배동인, 1992 . 36-40).

‘시민사회(civil society, bürgerliche Gesellschaft)’는 ‘시민’ 개념의 변화와 그 함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구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한 역사적 개념이다. 즉, 17~18세기에 걸쳐 봉건사회 및 절대주의 국가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경제 정치·문화적으로 자주적인 세력군으로서의 통일된 시민계층(Burgertum), 즉 시민들의 총체로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구

사회의 분화가 도시화→과학화→공업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인 자원의 획득, 생산, 분배를 중심으로 한 복합적 상호작용체계인 사회구조 속에서 핵심적 매개자원 또는 매개가치인 ‘권력(power)’을 획득해감으로써 본격적인 시민사회가 전개되었다(배동인, 1992 : 36-58).

반면 한국에서의 사회분화 및 사회발전과정은 서구와는 달리 공업화→도시화→과학화의 추세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발전의 과정은 국가에 의하여 계획·추진되었기 때문에 특정 권력집단의 이해와 관심이 관철되는 결과로 권력분배구조의 불합리성, 권력지배의 억압적 성격, 국가권력의 폭력화, 국가의 사회에 대한 총체적 지배 등의 파행적 상황을 빚게 되었다(배동인, 1992 : 60).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활동 영역이나 실질적 기능도 제한적으로밖에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을 통해 사회전반에 자율적 활동의 장이 확대되고 1991년부터 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등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됨으로써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게 되었다(이시재, 1992 : 443-445). 즉, 사회문제를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시민’을 종래의 국가에 대하여 수동적인 존재로부터 적극적인 사회의 주체로 전환시켰으며, 이에 따라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가 팽창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의 도시·환경 교육·여성문제 등 생활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공공부분에 대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대응방식이 모색되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부각된 시민운동 등 시민 참여 활동이다.

결국 우리가 논해야 할 청소년의 시민권은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현재적인 시민의 개념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의 문제를 청소년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세계시민'의 자질 함양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의식과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떻게 접근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고 하는 출발점 확인의 과정이라고도 하겠다.

4) 청소년의 참여, 시민권적 논의

기존 연구들²⁾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시민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여, 이를 '제네바 선언'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³⁾의 관련 내용에 연계시켜 살펴보면, 그 내용으로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회참여와 참정권, 법적 보호, 정보접근권 등이 포함되어진다.

(1) 종교의 자유

청소년기에는 인간발달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진행된다. 종교적 심성의 발달은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인 결정, 선택의 자유, 물질·인적 관계에의 참여 및 탈퇴, 폭력, 억압, 사생활, 양심, 표현, 집회 등에 대한 자유권을 가늠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는 인권 형성의 기초인 자유권이라는 측면에서 뿐 만 아니

2)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를 제시할 수 있음

길은배 외(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라, 청소년 종교 인구의 변화 추이와 그러한 변화가 종교별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가를 통해 청소년들의 종교적 자유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인권의 성취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종교별 청소년인구 분포, 전체 청소년 종교인구 수의 변화, 그리고 종교별 청소년인구 수의 변화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자유권으로서 청소년의 종교 선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 비율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 비율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적 권리인 교육의 기회 보장과 개인적 자유권에서 해당하는 종교의 자유가 동시에 관계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각 종교재단의 교육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만이 강조되어 대학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취학 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된 채 취학 당사자 본인이 학교의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본 항목의 선정 취지는 얼마만큼의 청소년들이 학생으로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종교적 심성이 확정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측면, 획득 가능한 자료의 활용을 통한 측정 가능성, 그리고 당사자의 의지에 따른 학교 선택 폭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들이 자신의 교육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종교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데 관련된 사회적 조건을 확

인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 사회에서 보장하여야 할 개인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권과 사회적 영역의 의사표명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명의 자유권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학교에서의 교지와 신문 발행이다. 교지와 신문의 발행은 이러한 청소년의 의사표현 수단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이와 관련된 현황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청소년기에 거의 누구나 거치게 되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과의례화된 학교교육과정에서 청소년의 의사표현의 기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의 기회가 되는 교지와 학교신문 발행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그 추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의 청소년들의 의사표현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웹진이나 청소년신문 등의 발행 상황, 지원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전국적인 학생연대의 촉발점이 되었던 두발과 복장 규제와 관련한 문제이다 한국사회의 학교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교칙에서부터 규정하여 통제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최근 중·고생학생들은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부당하고 불필요한 사생활의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전국적인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실제 중고생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적 목적 달성이라는 명목 하에 청소년의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교칙 차원에서의 규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교칙의 개정 등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사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쟁점화된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자율화 문제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사생활 보장을 위한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를 관철해내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청소년과 관련하여 고려할 또 하나의 측면은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표현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하여 쉽게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충격이 오랜 기간 동안 발달의 제측면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청소년, 특히 발달단계상 청소년 전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의사표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는 청소년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의사표현의 장면에서 가장 심리적인 압박과 사후 그에 따른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법정에서의 증인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얼마나 요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결사·집회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의 측면에서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학생회 활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수 학

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중의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자치적 역량과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 함양과 직결되는 학생회 구성에 대한 간섭이다. 특히 학생회 간부를 선출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는 교과성적을 기준으로 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가장 대표적인 결사체이며 자율적 활동 영역인 학생회 활동 대표를 성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비민주화 하는 것이며, 청소년기에 필요한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적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학생회 간부 출마자를 성적과 관련하여 제한하는 사례는 교칙에 근거한 경우와 교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사의 유형 무형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서부터 확인되어야 할 기본적인 시민권이 일차적으로 준칙성에 근거하여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칙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한 학생회 간부 출마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참여의 봉쇄인 동시에 원천적인 인권 제약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회 대표자의 자격 여부의 기저에는 학생회라는 조직이 ‘자치조직답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회는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결사체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의 학교문화는 학교 교칙, 교직사회의 여망 수준 등에 의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활동을 구성 수행하는 학생회의 본 면목이 무색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회의 본래적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를 통해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를 대표·대변할 수 있는 학생회를 지향하고 실현해나가는 정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회 문제와 아울러 살펴볼 것은 청소년단체 활동의 참여 문제이다. 학생회 이외에 청소년의 자율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집단적 활동이 청소년단체 활동이라는 점에서 학생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단체 가입의사가 실제 가입으로 연결되는 정도, 가입의사가 있음에도 가입을 제약하는 요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사회참여와 참정권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참정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통로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적 삶의 체험과 타인에 대한 배려감 형성 등 교육적 효과 이외에도 아직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회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지와 사회적으로 허용·보장되고 있는 기회의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정책 관련 활동의 참여 정도는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정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책 주체라는 의미가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적으로 아직 완전히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보장되지 못한 시기이며,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정책 중 청소년 자신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자신의 입장과 필요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회참여인 동시에 제한적이거나 참정권을 구체적으로 개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경험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셋째, 학교에서의 교칙 제·개정 참여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중요한 참여 경험의 기회가 바로 대부분의 청소년기 해당 인구가 통과하는 학교라는 공동체이다. 학교공동체를 움직이는 운영의 기준이 바로 교칙이다. 학생인 청소년들은 학교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교칙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 동시에 교칙 형성과 변화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교칙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느냐 하는 문제가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운영 원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참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강조되고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노력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당사자들, 즉 학교당국과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각 집단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상충되는 입장을 조정하여 학교공동체 성원들의 입장에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현장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청소년기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중요한 참여 경험의 기회인 동시에 청소년의 사회적 입장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참정권 행사의 장이 된다.

다섯째, 선거철마다 선거연령의 하한선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선거 참가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로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사회성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직접 자신이 속한 사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민권 행사의 방법이다. 이러한 선거는 전체 청소년에게 그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마다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지표에서는 선거 참여가 허용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나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운영에 대한 관심 정도, 주체적인 사회참여 의식 정도, 그리고 참정권 행사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권리 확장은 주어진 권리의 행사가 가장 중요한 수단일 것이다.

(5) 법적 보호

인지와 도덕성의 발달이나 사회성발달 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청소년기에는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주변의 영향이나 무심결에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때 사회적으로 적절한 관용체계와 조력이 없으면 그러한 범죄 청소년은 범죄자로서 자기계발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법률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전과자로서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나 성인 범죄와는 달리 청소년의 범죄는 성장의 미완성으로

인한 순간적인 문제의 표출일 가능성이 크며, 사회도 해당 청소년이 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저지르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우며, 처해 있는 문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자기계발을 재개하여 건실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보호처분과 같은 사회적 관용과 노력을 실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보호처분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행동에 빠지게 된 취약한 조건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는 정도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 문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호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사회봉사명령제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를 저지를 청소년 중 비교적 정도가 경미하며 관련된 범죄의 경험이 없는 경우, 사회적으로 타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게 하여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공익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체험하게 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제도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처분이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은 최소한의 제약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보호관찰 처분 가운데 사회봉사명령은 청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청소년의 비율이나 이행 상태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법적 처벌의 보호적 측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적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보호청소년에 대한 국선 변호인 변론 혜택 여부이다. 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년의 경우 상당수는 가정적, 경제적,

심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취약한 조건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보호청소년 중 상당수는 비록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것이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입장에 있는 보호청소년에게 사회적으로 법적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부담으로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본인이나 주변 친지의 도움만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자신의 정황을 정확히 제시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소년사건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사건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정상적 성장을 저해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이 크며, 이에 따른 성장의 미완성으로 인해 순간적인 문제가 표출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매우 크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청소년이 처해 있는 문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면 자기계발을 재개하여 건실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자 가급적 보호처분과 같은 사회적 관용과 조력을 실천하는 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추세이다. 이에 해당하는 보호사건이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점하는지에 대해 그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시민권의 형성이 미약하고 사회적으로 요인이 되는 자유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정도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6) 정보 접근권

청소년들의 시민권 함양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자유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적, 사회경제적, 성별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개인적 부담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이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청소년시설이나 문화센터를 마련하고, 이를 청소년이 얼마나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용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청소년이 복지권 차원에서의 시민권을 향유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시설이나 문화센터와 함께 복지권 차원에서 청소년의 시민권 향유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여건이다. 도서자료는 컴퓨터 등 정보기기의 발달과 보급 확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재까지의 정보기기가 갖는 특성과 비교할 때, 자료를 이용자가 충분히 소화하기에 적합하다는 점, 타인의 판단보다는 이용자 스스로의 판단력에 기초한 자료의 선별적 활용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아직은 정보화 수준에 있어 지역별·계층별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공공의 문화자원으로서 도서관과 도서의 이용 현황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시민권을 향유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획득과 고급 정보의 활용 능력을 발달시키는 사회적 지지기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사회변화의 추세와

관련하여 정보매체 이용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컴퓨터는 이제 특수한 목적에서 특수한 능력을 습득한 전문인들만이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활용되는 생활 필수품화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1차적 성장 조건이며 생활의 근거인 가정에서 컴퓨터를 보유 활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었다. 때문에 가정에서의 컴퓨터 보유 및 활용 여부는 청소년들의 시민권 형성에 있어 과거의 어떠한 매체보다도 강력한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보여주게 되었다. 특히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인터넷을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하게 하는 초고속 인터넷 회선의 보급은 이러한 정보 격차의 문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청소년의 시민권 보장과 관련한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정보격차의 문제는 연령대별, 경제수준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시민권과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하여야 할 것은 성별 정보 접근 정도의 격차이다. 한국사회의 제반 여건이 여성들에게 있어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한 접근을 다소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향후 여성 청소년이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정보 접근성에서도 남성 청소년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할 경우, 여자 청소년의 시민권 향유와 나아가 성인기의 시민권 행사에 있어서도 편차를 더욱 크게 할 우려가 있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성별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날 경우, 특히 여자 청소년의 이용시간이 낮은 추세로 나타날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풍토에 따른 여성의 시민권 행사에서의 불리함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성별로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특히 여성 청소년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별 차이가 시민권 향유에 필요한 조건의 구비에 있어서 차별적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방향성

결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공동체에 소속되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집단과 개별 구성원들간의 상호 보조적인 계약적 관계로서 의무와 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동체간에도 각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들간의 시민권에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시민권과 미국인들의 시민권간에 내용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현대적 의미-기본적으로는 의무와 권리로 대변되는 국가와의 계약관계-에서의 시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국가를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들 또는 정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유엔 인권선언이나 기타 관련 제도들에서 볼 수 있는 각종 기본 자유의 보장에 대한 내용들도 결국 이러한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틀 내에서의 본질적 자유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인권선언에서 거론하고 있는 인간 자유의 본질은 국가나 여타 인

위적 경계에 국한됨 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받아야만 하는 천부적 인권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시민권의 기본 토대로서의 자유는 소속 공동체 또는 국가의 유지와 존속, 발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 해야만 하는 의무 부분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질적 의미로서의 시민권이란 공동체라고 하는 제한성 내에서 보장받게 되는 선거권, 피선거권, 청구권 등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그들에게 적용되는 시민권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국가라고 하는 현대적 거대 공동체의 기본 원리가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 어느 것이든 간에 국가의 구성원으로 출생한 이상 출생과 더불어 그들의 시민권 또한 부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단, 공동체의 법적 체계가 허용하는 시기까지 그들의 시민권 중 일부분은 잠정적으로 유보되어지는 것 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연령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특수성에 기반 하여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청구권의 경우에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구체화되어 있다고 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상황에 따라 집단적 청구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전통적 가치관의 작용에 의해 청소년들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거나 아예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연령부터는 청구권의 집단적 구체화가 인정되고 있는 등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시민권을 잠재적으로 유보하는 경향은 비단 현대사회의 출범과 더불어 발생된 것은 아니었

다. 대부분의 과거 전통사회에서도 그들의 시민권은 이와 유사하게 일정 기간 동안 유보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단, 유보의 상태에서부터 실현의 상태로 전화되는 시점의 결정이 현대사회와는 달리 다양한 방식의 성인식 이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결국, 청소년에게 있어 시민권의 문제는 그것이 청소년의 인지발달과정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거와 현재 모두 동일하게 일정부분 제약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논리로 인지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내재한다고 하기보다는 보류의 이유까지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수혜의 자연스러운 당사자임을 공동체 전체 성원들이 인정하는 정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볼 때 선거권 연령의 국가별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가 추론되어질 수 있는데, 연령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비록 완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은 아니지만 그들에 대한 정책, 사회적 인식, 태도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성인들과 다르지 않은 고려의 정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정책연구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시민권은 잠시 유보상태에 있을 뿐 성인의 시민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한국사회에서의 그들의 시민권 상태는 어떠한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보고서의 궁극적 목적이다. 근자에 논의되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따라서 부가적인 것일 수 있다. 지극히 한국적 토대 내에서 살펴볼 때 청소년들의 시민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한 해석적 논의가 본 연구가 지향하는 커다란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한국 청소년의 시민권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소결

공 백

III. 한국 청소년의 시민권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한국 청소년의 시민권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선거권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48년 최초의 헌법제정으로 보통 선거권을 명문화하면서 선거권의 연령기준을 만 21세로 규정하였고, 1960년 3차 개헌 때 민법상 성년 기준연령에 맞추어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피선거권은 현재 만 25세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선거법을 다룬 법률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1994년 3월 16일에 제정, 선거연령과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15 조 (선거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 17 조 (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 60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다만,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선거권 외에 현행 여러 법률상의 청소년의 연령 범위규정 내용과 권한의 범위를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우리나라의 법률상 선거권은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각종 법률상의 권한범위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의 연령을 14세~20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법률상에서도 청소년의 권한범위에 대한 연령을 제대

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1> 법률상 청소년의 연령 범위 규정

법률	연령	권한범위
형법	14세	형법상 책임을 진다
민법, 도로교통법	16세	여자의 경우 약혼과 결혼이 가능(만 20세까지 부모동의 필요) 2종 원동기 면허 취득가능.
민법	17세	유효한 유언가능. 주민등록증 발급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아동복지법 병역법, 민법	18세	18세 이용가 영화 관람 남자의 경우 군대에 갈 수 있음. 남자의 경우 약혼과 결혼이 가능(만 20세까지 부모동의 필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19세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나이트클럽, 술집 등)과 취업이 가능. 술과 담배 직접 구입 가능
민법, 선거법 도로교통법	20세	자동차 면허 취득 가능. 재산소유와 처분 가능. 매매, 계약 등 영업과 금전행위, 사업자 등록 가능. 선거권 부여

시민권 가운데 청구권은 헌법 제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등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은 기본권을 보

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며, 권리보호청구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헌법상의 청구권은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헌법소원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인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청구권이라 함은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학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청구권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국가나 학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청구권이라 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구체화되어 있다고 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청구권 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청구권은 학교의 교칙제정 및 운영과 관련된 것에서부터 사회에 대응하여 집단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다양한 범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선거권, 피선거권, 청구권의 시민적 권리 가운데 선거연령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는 20세기 들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어린이(아동 및 청소년)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채택된 ‘어린이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필두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각 국에 맞는 제도적 준비를 제안했으며, 1966년 각 국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인권규약’을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B규약)으로 나누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전 회원국 찬성으로 채택된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이 인

권교육의 중심적 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1991년 어린이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즉,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권법이 통과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되었다. 학교교육의 구조 속에서 청소년은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청소년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권리와 의무를 다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이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청소년 선거연령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선거법 관련하여 여당은 20세 규정을 고수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18세로 하향조정 주장하는 논쟁이 있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만 19세로 타협이 되는 추세였다. 이후 1998년 하반기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 선거연령 만 19세 하향조정에 동의하게 이르렀다. 1999년에는 새롭게 부각되는 시민집단을 중심으로 선거연령을 만 18세부터 부여하자는 주장이 활발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의 청소년 선거연령 논의를 바탕으로 2002년 ‘하자센터’, ‘대구 청소년 문화아카데미드 우주인’, ‘청소년 웹 연대 with’, ‘문화연대’, ‘학벌없는 사회 전국학생모임’, ‘낮추자’, ‘아이두넷’ 등 다양한 청소년 단체에서 선거권 하향을 위한 운동 및 서명운동 전개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2년 대선 전 모의투표 실시하고, 광주 청소년 인권센터와 미래 유권자 연대주최로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 위한 모의투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청소년환경교육단체 그린넷에서 ‘지구청소년공화국’건국을 선언하고 지구청소년대통령, 수석부통령, 부통령등 청소년 대통령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개최하고, 인터넷투표 실시 후 임기 1년 동안 청소년 문화 선도와 각종 활동할 청소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2003년 민주노동당은 만 18세 정치적 성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정치캠프 진행과 선거연령 인하 범국민 토론회와 캠페인 개최하였다. 또한 현 정부 정책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등 청소년 참여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의회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 의식을 높이고, 청소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2003년 8월에 출범하였다. 의회출범을 위해 사전에 사이버 상에서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를 실시하여 의원을 선출하였다. 청소년의회의 경우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당하여 지역별 의원을 선출하여 중앙 정부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과 같이 청소년의 참여와 선거연령에 대한 하향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선거연령 하향화 운동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만 18세 선거권 운동모임(낮추자)³⁾

'낮추자'는 만 18세 선거권 쟁취 및 청소년 참정권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모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대통령 모의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선거연령을 낮추고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낮추자'사이트는 기존의 청소년 관련 단체인 청소년 웹 연대 with, 학벌없는

3) <http://www.downage.net>

사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청소년 웹 연대는 채널 텐과 Cyber Youth가 연합하여 창설하였으며, 2000년에는 ‘두발제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후 ‘낮추자’와 연대하여 청소년 선거권을 낮추는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선거 총 기획을 맡고 있다. ‘낮추자’ 사이트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기 보다 정치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려 노력하고 있다 선거 연령 하향조정과 청소년의 참정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대한민국 청소년의회⁴⁾

청소년은 늘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활동하였고, 청소년 의회는 이들 청소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들의 노력으로 움직여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청소년에게 참여할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의회는 의회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의식을 더욱 가지게 되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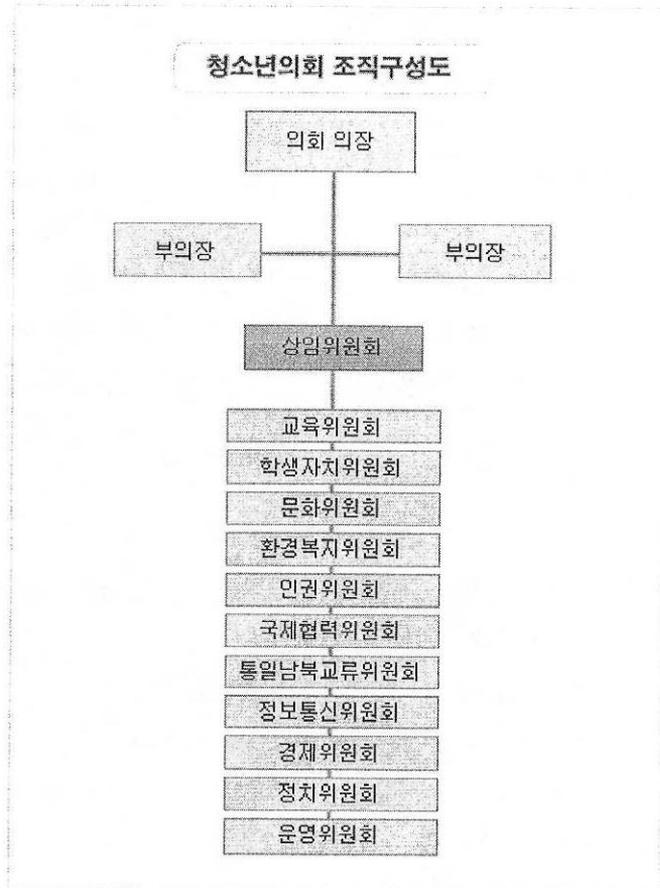
청소년 의회 활동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지역 사회 단위의 청소년 참여 방안에 대하여 신선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중앙 정부에게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한 결정 사항을 정책에 반영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하여 수많은 청소년이 지역 사회와 생활 현장에서 만든 모범적인 사례를 알리게 되고,

4) <http://www.youthassembly.or.kr>

이를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청소년 의회 사업 추진기간은 2003년 3월 1일부터 법제화될 때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의회의 정기회는 2003년 8월 4일 개최하여 닷새동안 진행되었다. 청소년 의회 구성을 살펴보면 2003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만 15세~19세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도별 인구 비례로 할당하여 지역구 100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계획하였다. 선출방법은 청소년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직접 투표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의회의 임기는 2년 만기로 정하고 있으며 권위시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2003년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사이버 투표방식 진행된 투표는 지역별 인구 비례의 의해 서울 22명, 부산 9명, 대구 6명, 인천 6명, 광주 3명, 대전 3명, 울산 2명, 강원 3명, 경 18명, 충남 4명, 충북 3명, 경남 5명, 경북 5명, 전남 4명, 전북 4명, 제주 2명으로 총 99명의 청소년 의원이 당선되었다. 당선자 가운데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으며, 고등학생 84명, 중학생이 14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42명, 여성이 57명이 당선되었고, 평균 경쟁률은 2.43대 1로 나타났다. 당선자들은 사이버 유세를 통해 선거연령 인하, 학생회 법제화 추진, 청소년을 위한 할인제도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에의 학생대표 참여보장 등의 공약을 내세웠었다. 청소년 의회 조직구성도를 살펴보면, 의장을 중심으로 부의장, 11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I-1).



[그림 III-1] 청소년 의회 조직구성도

청소년의회 당선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연수원에서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며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시작하고 8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정기회의 결의 안 가운데 가결된 안은 외국 청소년 의회와의 교류에 관한 안, 청소년 의회 법제화 추진, 청소년 사이버 통일 한마당 추진계획, 청소년 문화 거리의 제정과 활성화 방안, 청소년 네티켓 활성화 방안,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안(학

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촉구 성명, 청소년 문화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의식 개선에 관한 안이었다 반면에 부결 및 보류된 안은 NEIS 관련안, 최저임금법개정안, 선거연령관련안, 가출청소년 활동 관련안이었다.

청소년 의회는 2004년에도 개최될 예정이며, 학업에 매여있고 정치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법제화 될 때까지 의정활동을 계속된다는 것에 청소년들뿐 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문제점

우리나라의 선거권에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고, 국제적인 권리 조항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을 채택하고,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므로 국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국내에 협약의 존재에 대한 홍보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협약에 비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것이 불과하고 실천적 면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선거와 관련한 법 조항과 청소년 권한범위와 관련한 법 조항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연령에 대한 규정이 다양하여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명확한 연령규정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선거연령을 낮추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 경우 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하겠다.

셋째, 청소년의 시민권의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다. 청소년 자신들도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시민권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들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학교교육 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라기 보다는 성인이 되는 과정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어 청소년의 시민권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 시민권에 대한 움직임은 1990년대부터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만 그치고 장기적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권리, 특히 시민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청소년 시민권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민권에 관련 한국적인 모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단순히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선거연령을 낮추고, 청소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겠고, 이에 따른 모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결

우리나라의 청소년 권리는 유엔의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에 비준하여 이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연령을 낮추고 자 하는 움직임도 청소년 중심과 성인중심으로 활발히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연령 하향화 운동이 전개하고 있어, 점차 청소년 시민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의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의결사항을 정부기관에 청원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 시민권 증진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권에 대한 청소년들 자신의 인식부족과 성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시민권 증진 방안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 조항에서의 청소년 권한 범위 부여의 다양한 연령으로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소년 시민권 증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한국적인 모델을 마련되어야 국제적 협약과 관련된 시민권 증진을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현실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시민권 증진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공 백

IV. 외국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사례

1. 미국
2. 유럽
3. 어린이 공화국-벤포스타
4. 일본

공 백

IV. 외국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사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도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의 제12조 ‘국가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며...(중략)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 져야 한다.’의 내용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

세계 각 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과 아시아·태평양 각 국의 선거권 부여연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 세계 각 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

연 령	국 가 명	국가수
15세	이란	1
16세	니카라과아, 브라질(임의적)	2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2
18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필리핀, 중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태국, 브라질(의무적), 쿠바, 멕시코, 페루 등	93
19세	오스트리아	1
20세	한국, 일본, 튀니지, 나우르	4
21세	파키스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피지, 쿠웨이트, 보츠와나, 몰디브 등	16

각 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을 살펴보면, 이란의 경우 15세로 가장 낮은 연령을 나타냈으며, 북한은 17세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가장 많은 국가에서는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표 IV-2>에서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거권 부여 연령을 살펴보면, 이란(15세), 인도네시아(17세)를 제외하고 중국, 몽고, 필리핀 등 14개국에서는 18세를 선거권 부여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카자흐스탄은 20세로 피지와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21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아시아·태평양 각 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

연령	국가명	국가수
15세	이란	1
17세	인도네시아	1
18세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괌, 마카오, 마셜군도, 몽고,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필리핀, 스리랑카, 투르크만, 투발루	14
20세	한국, 일본, 카자흐스탄	3
21세	피지, 말레이시아, 몰디브, 사모아, 싱가포르	5

세계 각 국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살펴보면, 캐나다, 호주, 헝가리, 독일, 중국 등을 비롯한 9개국이 18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 영국, 브라질 등의 11개국이 19세로, 프랑스는 23세,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9개국은 25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의원의 피선거권은 2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의원 피선거권은 30세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상원의원의 피선거권은 3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나 브라질, 프랑스의 상원의원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3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피선거권 부여 연령(하원의원선거 기준)

연령	국가명	국가수
18세	캐나다, 호주, 스페인, 헝가리,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9
21세	싱가포르, 러시아, 룩셈부르크, 영국, 브라질(하원), 이스라엘, 폴란드,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니카라과, 멕시코	11
23세	프랑스	1
25세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이탈리아(하원), 파키스탄, 네덜란드, 그리스, 콜롬비아(하원)	9
30세	미국(상원), 일본(참의원), 쿠웨이트	3
35세	브라질(상원), 프랑스(상원)	2
40세	이탈리아(상원)	1

이렇게 세계의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각국의 실정과 문화에 맞추어 연령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시민권을 증진시키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미국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시민권 증진 방안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NYRA 청소년 권리 포럼⁵⁾

NYRA(National Youth Rights Association)는 1998년 6월부터 미국에서 청소년 권리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한 운동을 진행중이며, 영국에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알래스카에 걸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North Dakota와 워싱턴 D.C에서 선거연령 하향 운동을 진행중인 그룹들과 함께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2) 북아메리카 청소년 권리 조사(SNAYR)⁶⁾

북아메리카 청소년 권리 조사(Survey of North American Youth Rights)는 미국 워싱턴 올림피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 개입을 통하여 정책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청소년 지지자 그룹을 위한 Freechild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Freechild 프로젝트 활동은 교육적인 프로그램, 워크샵, 행동연구, 자원개발뿐 만 아니라 세계의 개인 및 기관 상담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뿐 만 아니라 캐나다 지역까지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SNAYR은 역사적으로 청소년 참여가 부인되고 있었지만, 사

5) <http://www.youthright.org>

6) <http://www.freechild.org>

회변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하여 정책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SNAYR 사이트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선거하는 법을 좀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토랜스 청소년위원회(Torrance Youth Council)⁷⁾

토랜스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인구 15만 명에 가구당 연평균 수입이 4~5만 달러 정도인 중형도시이다. 시장 한 명과 시의원 6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는 철저히 청소년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다른 기존 시정부 위원회와 똑같은 자문단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위원회 회의는 매 모임을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시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이 위원회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토랜스 청소년 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랜스 통합교육구내 4개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대표 8명(각 학교당 2명), 토랜스 시에 속해있는 El Camino Community College에서 선발된 2명, 그 외 청소년 중에서 2명이 선발된다. 위원이 되고 싶은 청소년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 면담을 거쳐서 선발된다. 12명의 위원들 중에서 투표로 선출된 의장은 청소년위원회 활동 경험이 많고, 주로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 온 대학생이 맡고 있다 성인 지도자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며, 시의원이 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사항에 대한 그

7) 김영지(1998) 외국의 청소년참여 동향과 우리의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매월 두 차례 정기모임을 통해 활동계획과 진행, 시 정부와의 협조사항에 대한 토의와 결정을 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는 청소년축제 및 크리스마스 행사, Friday Night Live(금요일 저녁 청소년 행사), 지역사회 행사에 대한 자원봉사자 파견 및 협조를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와 기타 청소년들을 구성하여 성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중·장기 단계별 계획으로 기획하고 있다.

토렌스 청소년위원회는 토렌스시의 공식 자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독립적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 필요한 자금은 지역사회축제 및 행사장 판매대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5

이 외에도 미국의 경우 1998년 시의원에 출마한 제이슨 네츠키는 시의원에 당선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9년 미국 뉴욕의 전형적인 시골마을인 뉴욕주 발라트시의 시장으로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 2학년생인 '제이슨 네츠키'가 65세의 현직 시장을 물리치고 당선되어 시를 이끌어 나갔던 사례도 있다.

미국의 청소년 법원은 유타주의 청소년 위원회 사업의 하나로 1993년부터 시작되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법원은 문제를 저지른 청소년들과 같은 연령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10대 피고인들이 동료들에 의해 재판을 받고 10대 검사, 판사, 집행관 등 모든 간부들이 10대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문제와 고민을 겪은 또래 집단들에게 문제를 토로하

기 쉽고, 처벌보다는 사회봉사, 사과편지, 보고서 제출 등의 선고 내용으로 청소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⁸⁾은 학생들에서 학교에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 외에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ASFAR⁹⁾은 미국의 연령제한으로부터 오는 사회에서의 자유를 위한 기관으로 청소년의 법률상 시민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선거 연령에 대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2. 유럽

1) 영국

영국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 BYC)는 16~25세 청소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국사회에서 청소년의 효율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독립기구이다. 영국정부 및 국내외 정책결정기구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표하며 사회 내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다양한 청소년문제들에 대한 정보제공, 또래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국내외 위원회에 청소년 대표를 파견하여 청소년 계층의 견해를 대변하고 청소년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8) <http://www.archive.aclu.org/students/sybil.html>

9) <http://www.asfar.org>

캠페인 활동을 한다.

영국 Devon지역의 청소년 위원회는 1993년에 설립되었고, 청소년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경찰, 보건당국, 판사 등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정책결정과정에서 회의, 연구, 정보 수집과 장기적 프로젝트를 구성하는데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실용적인 결정이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책임을 갖고 시민이 되는 법을 배우도록 하여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에 힘쓰고 있다.

그 외 영국에서는 각 지역에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 청소년 시 위원회(Children's and Young Peoples' Tow Council)는 지역사회 단위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청소년 스스로 결정하여 시의회에 건의하는 활동을 한다. 지역사회 내의 스포츠 및 여가시설의 설립, 전시회, 음악회 등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청소년 위원회는 스포츠와 문화, 여가, 환경, 인권, 연대의식, 학교와의 연계 등과 관련한 주제로 논의를 벌인다.

청소년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공공정신을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정책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독일

Herne시의 청소년의회는 1994년 청소년들에게 지구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하였고, 청소년들을 놀이공간 개선사업, 도시환경 개선 조치 프로젝트 등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며 청소년의회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19세 안나리흐만¹⁰⁾이라는 소녀는 독일 하원의원으로 현재 활약 중에 있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청소년이 직접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들을 위한 선거권 사이트¹¹⁾는 베를린에서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나도 선거하고 싶어(Ich will waehlen)¹²⁾’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 모임으로 청소년 선거권 운동을 펼치고 있다.

3. 어린이 공화국-벤포스타¹³⁾

헤수스 실바 멘데스(Jesus Silva Méndez)는 1956년 아이들에게 새로운 행동방식을 연습시키고, 변화를 추구하는 일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소년들의 도시’를 스페인의 오렌세 지역에 세우게 되었다. 벤포스타의 모든 운영을 소년들이 하게 되었고, 벤포스타만의 규칙을 정하고 벤포스타만의 화폐도 생겨나게 되었다.

10) <http://www.anna-nach-berlin.de/person/pressefoto.html>

11) <http://www.kraetzae.de>

12) <http://www.ich-will-waehlen.de>

13) <http://arrakis.es/~benposta>

벤포스타의 주민이 되는 것은 아동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들어 오거나, 이미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벤포스타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들어올 수 있다. 벤포스타 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또한 아동들이 자기들의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지나치게 조직에 치우치지 않게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에서는 재판이 열리는 일이 매우 드물지만 처벌이라는 개념보다는 구제라는 개념에 더 초점을 두고 재판을 하게 된다. 새로운 교화 방안을 찾아내어 아동을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벤포스타 아동들에게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습시키고, 더 나아가서 비판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된다.

벤포스타의 초창기 주민은 모두 2,000명의 남자 아동들만으로 구성되었다가 이후 1973년부터 여자 아동들을 받아들여 남녀가 벤포스타의 구성원이 되었다. 하지만 2000년 현재 벤포스타의 주민은 남녀아동 1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공화국은 스페인 뿐 아니라 근처의 유럽지역으로 확산되어 퍼져나갔고,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브뤼셀 어린이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고, 벤포스타에서 생활했던 12세 아동이 브뤼셀의 시장이 되어 운영을 하였다. 하지만 브뤼셀 어린이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없어졌고, 현재에는 세계의 여섯 군데 벤포스타가 존재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라구야히라, 일본의 고베와 도쿄, 미국의 뉴저지, 니카라과와 모잠비크에서 어린이 공화국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공화국에서는 고유의 화폐인 코로나 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외부 화폐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럼으로써 어떤 아동이라도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모든 아동들과 동일하게 일하고 공부하게 된다.

벤포스타의 학교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 교육하는 기관이다. 단순한 학교라고만은 할 수 없고, 교육공동체라고 하여 통합된 교육을 받게 된다.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문 훈련을 받으며, 하루 두 시간씩 자기가 고른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며 생각하는 것을 배운다. 또 정치적 가치를 형성하는 일이자 인간성을 재발견하는 것으로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 변화의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기르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벤포스타에서는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벤포스타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공화국을 운영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일정시간 일을 하고 생활비를 지급 받아 생활하게 된다.

어린이 공화국은 조화와 존경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동들이 만든 나라를 아동들의 힘으로 꾸려 가는 나라인 것이다.

4. 일본¹⁴⁾

일본의 고교생 주장대회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고교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적이며 자치적인 청소년활동이다. 고교생들의 의식과 문제들을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학생들의 흡연, 학교 내 폭력, 등교거부 등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자발적으로 학교간 연계를 이루어 시작되었다. 실행위원장을 중심으로 1~3월에는 주로 매스컴을 통한

14) 김영지(1998). 외국의 청소년참여 동향과 우리의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홍보활동을 하고 4월부터 일본 지방예선에 들어간다. 여름방학 때 집중작업을 하고 9월 1차 예선, 10월 2차 예선을 거쳐 12월에 본선을 개최하게 된다. 고교생 주장대회를 전후에서는 청소년음악제와 같은 축제가 펼쳐진다. 특히 청소년들은 청소년들 스스로 기획, 운영, 주제선정, 연출, 홍보, 진행, 스태프 등의 모든 것을 상의하며 행사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고교생 주장대회의 운영은 민간기업의 기부금 지원으로 마련되며, 주장대회를 거쳐간 선배들로 구성된 후원회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외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물자지원에 봉사지원을 받아 대회를 운영한다. 주장대회 참여 경험을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인정하여, 대학입시 때 가산점을 부여해 주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V. 청소년의 시민권에 관한 의식조사

1. 조사개요
2. 시민권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
3. 청소년의 시민권에 관한 교사의 의식
4. 소결

공 백

V. 청소년의 시민권에 관한 의식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를 위한 시민권 의식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적 방법의 사용을 지양하였다. 설문조사가 지니고 있는 한계 중 하나인 응답자 응답의 모범답안화, 응답 항목에 대한 응답자 인식 정도의 한계에 따른 응답 오차의 증폭 등의 문제가 청소년 및 성인 대상의 사전조사를 통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면접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 대상은 청소년의 경우와 성인의 경우로 구분하였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총 9개 집단이 대상이 되었고, 성인의 경우에는 5개 교사집단과 1개의 일반 성인집단, 1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청소년 9개 집단의 구성은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 3개 집단(남고, 여고, 남녀공학), 학생회 참여 청소년 3개 집단(남고, 여고, 남녀공학), 인권모임 청소년 3개 집단(하자센터,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집단은 4-6명의 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2003년 8-9월 동안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자들에 의하여 약 2-3시간 동안 집단별로 이루어졌다. 면접 내용은 녹음 방법에 의하여 수집되었다.

교사 면접의 경우에는 서울, 충남(공주), 전북(익산), 경북(포항), 강원(동해) 등 5개 지역의 학교들 중 임의로 한 곳씩 선정하여 학교 당 5명의 교사들을 추천 받았으며, 사전에 구성된 질문

내용을 e-mail을 통하여 전달하고 교사들에 의하여 작성된 내용을 다시 e-mail로 되돌려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내용 확인 후 각 학교에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현지 교사들의 느낌과 학교에서의 관련 분위기 등을 파악하였다. 일반 성인 집단과 전문가 1명의 경우에는 예정에 없던 경우인데, 교사의 의식과 차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면접내용 분석에서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보고서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국가 정책 보고서이며 따라서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본질적 의미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관련 자료들을 직접 본문에 인용하고 이를 해석하는 구조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시민권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

시민권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선거권, 피선거권, 청구권, 책임의식, 시민권 증진 방안 등으로 하위 영역 별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따라 총 9개 집단인 집단 1(인권모임 청소년), 집단 2(인권모임 청소년), 집단 3(인권모임 청소년), 집단 4(일반 남자 고등학교), 집단 5(일반 여자 고등학교), 집단 6(일반 남녀공학 고등학교), 집단 7(남자 고등학교 학생회), 집단 8(여자 고등학교 학생회), 집단 9(남녀공학 고등학교 학생회)의 관련 면접 내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선거권

(1) 집단 1

인권모임 청소년 집단 1은 학생 청소년과 비학생 청소년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면접 내용 중 선거권과 관련된 중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원 . 혹시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이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2 : 만 19세.

조사원 : 만 19세. 다른 분들은?

3 : 18? 잘 모르는데 ..

4 . 잘 모르겠는데, 스무살 아니예요?

조사원 . 20세.

1 . 만으로 20세요

4 . 음 . 우리 잘 모르는데 틀리면 어떡해요..

조사원 : 만 20세가 맞거든요.. 아냐 그리고 모, 틀려도 상관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하세요..

4 . 네

조사원 우리나라는 선거연령이 만 20세고요, 해외의 경우는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에 한해서 한번..

모두들 . ..

조사원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는? 가까운 나라니까..

4 : 한, 18세 정도요?

조사원 .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정치적 상황이 좀 비슷해서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가 맞고요. 유럽 국가, 미국 같은 경우는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책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선거권이 있는 어른들이 선거하는 것을 많이 보셨죠? 주변에 성인

들이 선거하는 것을 보실 때 참여율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 1 굉장히 낮아요
- 2 저도 낮은 것 같아요.
- 3 네, 낮은 것 같아요. 많이.
- 4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대통령 선거 막 이런거 할 때도 그때봐도 막 요번에 안 찍을꺼다 이런 얘기하시기도 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1. 연령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조사원 보통 어떤 연령대가 참여율이 낮은 것 같아요?

1 젊은층

조사원 젊은층이 낮은 것 같아요?

3. 아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선거 더 하려고..

조사원 젊은 연령층에서요?

3.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못해봤으니까, 내가 이제 할 나이가 됐으니까.

2. 저는 40대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조사원 그러면 젊은 연령층은 어떤 것 같아요? 참여율이. 2, 30대는?

2 20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원 : 지금 대체로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연령층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성인들의 참여율이 낮다고 보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인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1 그러니까 지금, 과거까지 이제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후보들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바대로 그 후보가 공약했던 것들이나 그런게 실행되지가 않았었고,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정치불신 그렇게 돼서..

4 자기 사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 저두요

2 앞에 사람들 얘기하는게 다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지 귀찮아서.

조사원 귀찮아서요?

3 · 휴일날 약간 어떻게 막 가족들이랑 놀러가거나, 친구들이랑 놀러간다거나 그런게 많잖아요.

조사원 . 그러면 투표하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2 · 그러니까 모.. 투표하는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것 아니지만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줄을 선 다음에 인제 도장 찍고 투표하는게 이렇게 그게 그런게 귀찮다고

4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라고 그래도 하루 온종일 놀 수 있는 것 아예 놀 수 없다거나 반나절이 되는데, 그 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 가치를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사원 ·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요?

1 ·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되게 진보적인 당을 뽑으려고 하면 이쪽에는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후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안 뽑아버리는.

조사원 ·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현재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1, 4 네

조사원 · 이런 불참여 상황을 볼 때 여러분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한 시각으로 보시나요?

4 · 싫으니까, 다섯 명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다섯 명이 다 맘에 안 들면 안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무책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또 약간 그런 부분 뭐, 누가 더 낫나 그걸 볼 때 다 별로라고 생각되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조사원 네, 무책임하게 보이지만, 이 정치적 현실에 좀더 문제가 많다..

4 네, 어쩔 수 없게 되는

조사원 다음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 네? 저는 잘 . 하하하

조사원 · 아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정답이 있는게 아

니예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발상의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3. 다른 사람부터

조사원 그러면 첫 번째 학생부터... 불참여 상황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청소년의 입장에서..

1.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그냥 분명히 뽑을, 나 개인적으로는 지난 선거만 봐도 뽑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들 보면 자기가 투표를 했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모 줌 될만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좀 진보정당 이렇게 나온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젊은층이나 진보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그런 뭐 주류인 후보 중에 뽑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가 됐으면,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러면 표가 안나와도 그렇게 사람이 좀더 이렇게 표는 없어도,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도, 정말 자기하고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게 맞는 사람을 뽑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한테 표를 줬자 무의미하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그렇게 내려졌으면, 그러니까 후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둘 중에는 그러면 굳이 안 뽑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말은 없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안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잘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4 그리고 뽑을 후보가 없어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거들을 나중에 보면은 두 명으로 그러니까 두 명이 남잖아요. 그럴 때 그 항상 그 나머지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보다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신의 표를 아예 안 써서 더 안.. 아니 어떻게 그것을 조절을, 조절을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도 같고.

1. 그리고 또 모 보통 선거 이렇게 다 뭐지? 개표하고 이럴 때 보면은 보통 텔레비전 같은 매체에서도 이렇게 주류인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통계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개표하고 그러는 것 보면은 그런식으로 약간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각되는 사람만 딱 매체에 보여 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공약 이렇게 내세우고 그럴 때도

이제 나뉘잖아요. 비주류, 주류 이래서 그래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하면 딱 비교가 되는데, 그런식으로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애초에 비주류인 사람한테는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언론 같은 데서 만들어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의 그런 생각과 맞는 후보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탓이라면 사실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 전 그다지 비판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른들의 한 표가 모여서 두 표가 되고, 두 표가 모여서 세 표가 되는 것은 알지만요. 결국 자신의 한 표가 권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보편은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가 안 해도 어른들이 남들은 다 할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해도 내가 안 해도, 솔직히 어느 정도 이상은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저같은 경우는 좀 이기적일지 몰라도 생각하고, 괜히 줄서서 또 도장 찍고 넣는 다는 것 자체가 귀찮기도 하고, 또 귀찮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런걸 안 좋게 볼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찮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또 뭐 그러니까 진짜로 아무리 그러니까요 자기가 투표를 안 해도 그냥 자기 마음이잖아요, 물론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3 : 저는, 약간 뭐 시민권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그런데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선거 같은 거, 국회의원 선거 그런 거 임마 아빠보다 더 관심이 많았고 TV를 보고 딱 줄줄줄 다 외웠었는데 클수록 더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약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뭐 약간 근대 선거를 꼭 안 한다고 해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 주목받는 사람들만 표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 후보들이, 근대 그게 일차적으로 매체에서도 그 뭐지? 표 많이 받은 의원들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좀 내려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적은 숫자로 투표를 해도 어차피 대통령은 나오고 약간 선거를 안 해도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그렇게 두 명만 있으면 올라가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쓸것 같고, 저도 솔직히 그냥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안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또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게 그냥 다 알아서
 조사원 . 네,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다는 것
 은 들어보셨어요?

모두들 . 네.

조사원 . 다 들어보셨나봐요. 그럼 지금 현재가 만 20세잖아요?

모두들 . 네.

조사원 . 지금 19세까지는 선거 연령을 낮춰주려는 의향이 있는데, 18세까
 지 낮춰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 .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런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나이라도 차이
 가 막,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그
 주어진다고 해도 진짜 지금 현재 어른들처럼 선거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일수도 있고, 정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낮추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적당하게 어떻게 약간, 뭐라고 말해야 하지?

조사원 . 그럼 지금의 선거 연령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시
 점에서는?

3 . 그러니까 20세 보다는 한 만 19세까지는 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
 고 막 다 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되게 선거날이 되면은 안하는 사
 람이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4 . 그러니까 약간 지금 생각이 드는 건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예요? 만약에 내 나이가 18세도 그러니까 그 나이가 돼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거나, 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다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좀 그전에 그 전
 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어야 하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시민권이
 라는 의미에서 보면 시민권이 낮춰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사원 . 모두 다 참여한다는 의미에서요?

4 . 그래서 18세라고 하는 기준도 약간 분명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어요.

조사원 . 그러면 만약에 교육만 제대로 선행해서 이루어지면은 18세로 낮
 추는 것에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세요?

4 네

조사원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이세요?

- 2 그러니까 보편요 그러니까 뭐지? 선거를 안 하는 것도 일종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잘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18세한테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권리를 줌으로써 물론 하면 상당히 좋지만, 안 한다는 이유로, 혹시 소수만 한다는 이유로 18세한테 선거권을 안 준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원 지금 선거를 안 할거 같다는 이유로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거 연령을 낮추자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거든요. 18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2 그러니까 저는 18세한테 선거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선거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알아서 하게 하고

조사원 : 네, 그럼 다음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1 저는 교육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은 당장 모두한테 선거권을 주자 이런 것은 정말 교육이나 그런 뒷받침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18세 정도로 낮추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19세, 20세 이정도 되면 학교를 졸업하게 되니까 정말 그러면 대학생이 되고, 제도권 학교, 억압된 제도권 학교나 그런데서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 애들이 자유로워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학교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망각하게 되면서 또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으로 변질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18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전 18세 정도는 일단은 모두 다 참여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맥락에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권을 18세로 선거권을 주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구요 근데 이제 바라는 것은 아까처럼 앞에 학생이 말을 했었지만, 그 그러니까 학교에서 윤리나 뭐 그런 것 가르치는 것을 보면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3, 4 맞아, 맞아

- 1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주입식으로 걸 핏기 식으로 다 그런 공부하는 속에서 과연 그런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생각해본 뒤에도 전혀 제공되지 않으니
 까 그런 것들이 보완이 같이 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4 그러니까 내, 나 자신이 어떤 입장인지 내가 생각하는 사관 같은지 그런 것들이 어떤 입장이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어떤 정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왜 이 정당이 어떤 점이 있고, 이 정당은 어떤 점이 있다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교육이 너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왜냐 하면 학교 교육 그걸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배우는게 부족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강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선거교육 그런 것을 또 하면 강압적인게 될텐데, 그런 것보다 선거에 관한 것들은 보통 TV나 인터넷 그런 것에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학교에서는 그냥 ‘너희들도 홍보 정도 그냥 선거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려준다면 그 나머지 무슨 무슨 의원이 뭐한다 그러는 것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보는 정보, 자신들이 얻는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사원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만약에 시민권, 참정권 이런 것이 주어진다
 면 그게 자신의 권리라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2 자기들의 권리라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마찬가지로 같
 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일부는 상관없다
 그런거 같아요

2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생각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
 니까...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집단 1의 경우 선거권 연령에 대해 정확

하게 알고 있는 청소년이 1명이었으며, 대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집단은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입시 등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태도를 지니고 있고 또한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도 두발 자유화 문제 등과 관련된 모임을 구성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선거권에 대해서도 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만 18세로 연령을 낮추는 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단, 학교에서 이 부분과 청소년들의 권리 인식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거권 연령 인지도 : 잘 알고 있지 못함
- 선거연령 하향 문제 : 만 18세에 찬성
그러나 이유는 불명확함
- 기타 : 학교에서의 시민권 교육 부족 문제 지적

(2) 집단 2

인권모임 청소년 집단 2는 총 8명으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권과 관계된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우선 해외의 경우 선거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4 : 자세히는 어떤 나라는 어떻게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요. 만 18세 선거연령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48개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나라만 이야기하자면, 가장 낮은 연령은 만 15세 이하로 알고 있고요. 북한 만 17세로 알고 있고요. 동티모르와 필리핀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20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만 18세인 나라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고 생각해 본 결과 예전에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만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원 : 예~ 해외 연령들이 낮은 데에 비해 우리나라 연령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연령이 높지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의회 활동 중에 나왔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3 : 우선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 의원 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성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하잖아요!! 예전부터 청소년들의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청소년들의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상정하여 회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KTB 패널들과 여러 교수님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 4 : 저희가 학생자치위원회가 있고, 10개 자치위원회가 있는데요.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게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정치위원회에서 선거연령을 낮추자라고 안건을 내고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끼리 각각 회의를 하셔서 의견을 냈는데요. 또한 패널로 나와주신 KTB 분들과 교수님께서 같이 참석하셔서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렇게 나온 이유는 성인들의 보는 관점에서 보는 청소년들과 청소년인 저희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성인들은 성인들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보기 때문에 어려 보이고, 아직 의식이 없는 10대로만 바라보는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개성과 충분히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치적 의식이나 사회 전반적인 의식에 대해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것을 찬성하는 입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원 네~!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민주 노동당에서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 낮추자라는 안건을 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간략하게 요즘 선거권 연령에 대해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19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라는 의견에는 찬성이나 만 18세로 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연령이기에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만19세가 적당하다고 하고, 다른 의회에서조차 만 19세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에 대해 여러분들도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 의견들에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3. 찬성하는 의견은 만 18세로 낮추자. 저희 같은 경우는 고3이기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무분별하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유가 확실했고, 사리분별력이 확실하고, 주장이 명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19세까지 낮추는 것은 찬성이지만 큰 모험이라. 우리나라 민법을 보시면 만 20세 이상 선거연령대로 보고 있는데 성인의 기준으로 19세로 낮추자는 건데 고3 학생들을 성인으로 봐야하는가라는 문제 19세까지 찬성을 하지만 점진적으로 생각해 봐야하는 것 아닌가 라는 2가지 의견으로 양분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8세로 낮추자라는 목소리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 예~! 전반적인 의회 목소리는 18세로 낮추자 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수에 인원들은 19세가 적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두 분께서만 이야기 해 주셨는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의견이 다 같지는 않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분 한 분씩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에 대해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8 : 18세로 낮추면 고3 수험이라는 것이 결리잖아요 성인들도 그것에 대해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만 18세의 나이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 18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만 18세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의 사리분별력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후보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6.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로 고3이 선거에 신경을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리 수험생이라고 해도 생각이 있고, 사회 속에서 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사회의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처해있는 사회적 상황을 잘 판단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순수 우리 의견만을 내세울 수 있는 나이가 있어야지 저희 청소년들의 의사를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 앞에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만 18세 연령으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데요. 앞에 분들이 왜 찬성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같은 의견이고요, 조금 그것에 우려점을 이야기 하자면요, 급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 보다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 4 : 저는 18세로 찬성을 청소년 문제의 전문가는 청소년이라고 어른들이 바라보는 것과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으로 저희가 이용될 수 있지만 저희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하고요 또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성인 의원님들이 저희를 표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표밭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많은 것을 알릴 수 있는 나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3 : 저도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일 피크로 공부할 때인데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의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 역시 정치적인 허용보다는 제가 아는 청소년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보다는 개인적인 소신들이 뚜렷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걱정들은 닦쳐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 있다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른들은 청소년 수련관이 다 인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 어른 분들은 그것 하나 만으로 청소년들의 복지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은 단지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엄연한 한 나라의 개체로서 참정권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 18세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2. 저도 18세로 하는 것을 찬성인데요 앞에 분들이 모두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하셔서 할 말은 없는데요.... 고3까지 낮추는 것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들이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들이 충분히 해 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저도 만 18세 선거권 연령 낮추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18세라는 게 고3이지만요. 그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회의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의 폭도 넓어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더불어 사회 참여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사회 참여도 해보고, 투표도 해보고, 투표가 어떤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들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3. 제가 이 의견에 한마디를 덧붙이자면요. 18세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것 자체는 그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확실해야한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우선적으로는 나라나 국가에서 이것들에 대해 멀리 보셔서 우리가 원하고 있지만 쉽게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 예를 들게요! 각 시마다 아니면 지역구마다 스피치 대회가 있거든요. 그건 각 주제마다 주최측에서 지정해서 다 계획을 세웠지만 고등학교는 거의 참여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요, 중학교도 저조하고, 그나마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이게 무엇을 뜻하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민주주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참여하면서 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들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참여 방법을 알 수 있게 되고, 왜 내가 이 의원을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우리가 18세가 되고 나면 확실하게 그 의원을 뽑을 거 같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이 덜 됐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사원 지금 여러분들은 의견들을 조합하자면 다들 18세로 낮추는 것을 찬성한다고 이야기들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18세로 원하고 있는 반면에 성인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

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른들의 선거참여의 유·무에 대해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 여쭙어 보고 싶거든요

8 : 현재 어른들의 선거 참여율이 낮잖아요 점차적으로 낮춰지고 있고, 18세도 참여를 하는데 우리들이 투표함으로서 어른들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무리가 안 되네요

조사원 : 성인들을 보는 관점은 어떠세요?

2 그 전에 어떠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쉽고 그것들을 알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7 .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엄마는 선거를 잘 참여하시는 편이신데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선거날은 TV 시청의 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옆집 같은 경우도 선거날 하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낚싯대를 챙기셔서 낚시를 하시러 가시거든요. 이렇게 선거 참여율이 떨어지는 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역구 의원을 뽑으면 저희 도시가 발전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을 뽑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역감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원 . 성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지금 성인들이 왜 참여를 안하는지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을 뽑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왜 성인들이 선거에 불참한다고 생각하나요?

7 .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잘 되지 않는데요..

6 :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요번 대통령 선거날에 투표율을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사회활동을 한참 하시고 계신 사회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높으신 분들인 40-50대 분들도 투표 많이 안 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은 선거 참여를 하지 않으셨지만 20대 초반 때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분들이 안 하시는 이유는 각 지역에서 나오는 후보들이 어떤 선거공약을 할 때, 그것들을 제대로 잘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구추구 때문에 공약을 내세우고, 후보

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표율이 그것에 대한 생각을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들이 후보 공약시에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에 어느 정도 이익을 주겠다는 것보다 자기는 여기서 태어났고 아니면 자신은 여기서 몇 년 간 살아온 여기 토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실망들이 쌓이고 불신감이 높아지니까 선거 참여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5 :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봐도 지역별로 색깔이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정당만 80~90%의 선거한 시민들이 한 후보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수의 다른 시민들이 소수의 의원들을 뽑아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감정이 뚜렷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그런 우리나라에 계시는 성인들의 의식들이 그렇게 지역감정으로 자리 잡고 올바른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 분들은 지역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피해를 보시고 자신들의 권리의식이나 이런 것이 망가졌고 자신들이 그런 대통령 밑에서 정권 당시에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 사상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 청소년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것은 덜 하잖아요. 혹시 집안에 어른들의 의해서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의식을 같이 하는 청소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청소년 의회 사람들을 봐도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인데도 모두들 자신의 지역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의 올바른 의식과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인식을 두지 않잖아요. 어른과는 조금 더 다르게 나아간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성인들이 지역감정이 많이 물들여 있지만 저희 청소년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불참여는 자신들의 지역구민들의 후보가 없거나 자신들의 지역에 이익이 없으면 불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할 말은 짧게 한 거 같은데.. 정리가 되지 않네요.
- 4 : 몇 달 전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도 TV나 다른 매체를 보시면서 느꼈던 것처럼 경북 영남 지역에 한 지역만 무소속으로 나오고 다 그 지역에서 밀어주는 특수정당의 후보가 다 당선되었지요. 그런 것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호남도 한 자

리만 다른 정당이고 다 그 지역에서 밀어주는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선거할 때 지도를 보거나 야당 후보들을 뽑고 나서 지도를 살펴보면 섹체 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균형적인 나라거든요. 이게 올바른게 아니지만 그리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이런 섹체대비를 봤을 때 우리나라 성인들은 선거에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표가 나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을 알지만 이 분들은 자신의 표가 선거함에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아세요. 하지만 표가 개표되고 나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신이 그 후보를 지지해서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때부터 나의 권리가 또 다시 시작되거든요 자신이 후보를 지지해줘서 그 후보를 밀어줬다면 자신이 투표한 것에 대한 권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 의식이 부족하신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큰 의미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언론도 마찬가지로 선거날입니다. 선거하세요~ 라고 이야기만 하지 왜 선거를 해야 하고 왜 내가 투표를 해서 나에게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해외에서 보는 것 때문에 선거날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게 아니라 정작 자신들이 뽑은 후보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선거날 서울대 학생들이 여행을 가자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했었고, 결국 그것이 무산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정치적인 무관심을 우리 내부에서 일으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3 : 저는 왜 성인들이 불참여 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하나는 왜 정치적 무관심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교육의 부재로 잡고 싶거든요. 지금 성인들은 그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그들이 강압적이 체제 속에서 자라왔던 말이에요~! 선거가 뭔지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뽑아주시고 계신다고 생각 들어요. 아까 균형적인 나라라고 반어법으로 이야기 하셨듯이 이건 불건전한 잘못된 개념이죠 즉, 어떤 정치인의 공약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 외모, 정당을 보고 뽑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걸 성인들의 교육으로 의식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체제 속 잔재들이 남아있어

서 지역주의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투표를 하고 있기에 일부 어른들은 그런 것들이 싫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너무나 잘못된 거죠. 또 하나는 ‘뽑을 사람이 없다’ 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치 누가 합니까 후보에 나온 그들 의원님들 중에 한 명이 하셔야 하는데...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자신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야 하는데 그들의 공약을 잘 살피고 그들이 어떤 소신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나의 권리를 잘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후보들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 범죄 저지른 의원님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왜 그 분들이 죄를 저질렀고 어떠한 일 때문에 법에 심판을 받았는가 그것이 정당했는가 정당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 의원활동을 하셨던 분이 또 나오시는데 그들이 과거에 활동했던 것을 충분히 살핀 후에 그 분들을 뽑아야 하는데 이것을 생각 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뽑아야 하는 것에 말이 안 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선거의 불참여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의 불참여가 이런 것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조사원 : 어떻게 하면 성인들이 잘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육이 잘못 이루어져서 지금에 불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하는 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셨던 것을 이야기해 주셨음 합니다

3 . 사회가 분위기를 예로 들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선거하는 분위기이면 모두들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하나?’ 그건 젊은 세대 층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많이들 비교를 하잖아요 50·60대 VS 20·30대 비교를 하는데, 50·60대는 몸도 안 좋고 기타 이유도 있겠지만 선거참여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20·30대 보다는. 그렇다고 20·30대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아직 그들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들 젊은 세대 또한 체계적인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희가 85년생들 이거든요. 어른들께서 ‘와~! 85

년 세대들은 선거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른들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 야닌테 자식들 따라 선거를 하실 수도 있고 재가 교육이야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뭐 잘 하셨잖아요.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지금부터라도 깨끗한 정치를 한다면 세대가 흘러가는 만큼 성인들도 따라 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원 · 네~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 보다 지금 청소년들이 선거를 참여하는 것을 어른들이 모델링해서 배웠으면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2 또 앞에서 다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청소년시기부터 청소년 사회참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처럼 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나 사회전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신을 갖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참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 세대가 되었을 때, 교육을 다 받은 세대이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선거율도 높아지고 사회적인 전반적 의식도 많이들 높은 수준으로 고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원 그러면 지금 2번 의원님은 성인들의 불참여는 앞에 분들과 같은 생각이시다는 이야기시고, 거기에 달리 이야기하자면 현 청소년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게 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맞나요?

2 . 예~! 맞습니다.

조사원 네~! 의견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1 · 저도 아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 자면요~ 어른들이 선거 불참여는 앞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태까지 독재 야닌 독재체제 하에는 모든 것이 손해잖아요. 그때에는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선거를 하게 하고, 정치에 대해 확실히 몰랐잖아요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게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정말 진정한 민주정치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지역

감정을 만들어 놓고 갔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서 나왔으니 까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나와야지라고 하면서 흑백이 나누어졌고, 자신들의 투표권을 소신 있게 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밀어주는 것으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불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일어난 거 같습니다.

이상의 면접 내용 결과 집단 2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문적 모임의 성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수준에서 선거권에 대해 이야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연령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까지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선거연령 하향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전문가 집단과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물론 선거연령 하향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만 18세 청소년들의 판단 정도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소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만 19세 선거연령 조정보다는 만 18세로 더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단,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권리에 대한 민주적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청소년들의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어느 정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이들은 선거 행태와 관계하여 볼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그 원인으로 성인들의 잘못된 정치의식을 비판하였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오히려 한국사회에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6 · 저두요.

조사원 그러면 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2 다양하잖아요

1 : 13세도 있고, 18세도 있고, 다양하네요.

조사원 우리나라보다는 좀?

3 어리다고 봐야죠.

2 · 네, 낮아요.

조사원 · 우리나라보다는 낮다는 말씀이시군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3 : 18세

조사원 · 네, 18세죠. 청소년들도 선거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 20세가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인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많이 지켜보셨죠?

모두들 : 네.

조사원 ·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어느 정도 선거에 참여한다고 보여지세요?

3 : 무지 참가를 안하는 걸로. 많이..

조사원 · 참가를 별로 안하는 것 같아요?

3 · 네, 맨날 놀러가는 날.

조사원 네 번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저는 이제 좀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많이 줄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거하시는 분들이.

조사원 · 젊은 연령층일수록 선거 참여가 저조하다?

4 · 네.

조사원 두 번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사원 · 그러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5, 6 · 네

조사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거 참여율이 저조할까?

- 1 정치적 불신이 많고, 편한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것이 많아서
2 네

1 내가 하나쯤 안 뽑아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거 같아요

2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지금 어른들께서 국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워낙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뽑을 때 모두 아예 신뢰성을 그렇게, 아예 신뢰성을 생각하지 않고 뽑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해봤자 결과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까.

조사원 음... 정치적 불신이 심하다. 그러면 세 번째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4 누가 정치를 하거든요, 여기까지 밑에까지 별로 영향이 안 오니까 누가 하든 상관없다 이런 식인 거 같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나까

조사원 아, 정책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음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5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게 뭐지? 자기한테는 이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

6 :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선거를 한다고 해서, 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할인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조사원 : 그러면 여러분들 성인들의 선거 참여율이 저조 한 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세요? 자기 권리를 행사를 안 하는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3 : 제가 지금 선거권 연령이 아니잖아요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서, 빨간 날이잖아요 될 수 있는 날이잖아요. 우리도 선거를, 아니 저희 부모님도 하시지만 저 같으면 '아 될 수 있는 날이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기가 쉬워서. 그러니까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2 과정이 은근히 번거로운 것 같아요. 아침에 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또 모든 잊은 거 없나 막 검증 받고 겨우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복잡하잖아요. 복잡거리고

조사원 별로 안 복잡한데? 주민등록증 하나만 제시하면 되잖아요

2 근데 줄도 서야되고..

1. 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현실이 점점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단순화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단지 그 복잡한 절차가 싫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귀찮고 나가기도 귀찮고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으니까 몇 일 만에 오는 휴일인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조사원 : 그래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든 그러한 이유로?

1. 적절하진 않아도, 우선은 제가 어떤 우리나라 어른들의 모습이 물론 자기네들은 관심 없다 그런 표현이라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피곤하니까...

2 : 그러나 그것은 옳지는 않죠.

3 : 되게 악순환이죠 인제. 내가 또 뽑는다고 되는 것도 해서 안 뽑지만 결국에 그렇게 되는 게 또 계속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되면서...

조사원 : 그럼 다음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선거 불참여 상황에 대해서..

4.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효과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 직접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가지구요, 영향이 없잖아요. 계단식 논이라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누가, 이렇게 계단식 논이 뭐 밑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구조이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물을 아무리 퍼부어도 밑에까지 안 닿는 데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에서 아무리 뭐가 해도 밑에까지 별로 영향이 없다 솔직히 뭐 변하는 게 맨날 안 보이고, 몸으로 안 느껴지는데, 누가 선거에 참여를 하고 싶겠어요?

조사원 : 그래도 참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선거라는 것은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사표현이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선거 불참여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4 그런데, 선거권이라는 것이 권리라고 인식이 안 된,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거든요?

2 : 그래, 맞아.

4 그런데 선거권이 권리다. 권리다. 당신 권리를 뭐 챙겨라 뭐 그런데, 권리를 챙겨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리를 챙긴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성인들이 참여를 안 하는게 선거권이 자기 권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세요?

4 : 권리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왜, 권리를, 권리가 어떤 건지...

1 : 자기 권리를 느낀적이 없으니까...

5 : 자기 권리의 소중함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때문에 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2 : 네.

조사원 :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이 우리나라는 만 20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적절한가?

3 : 전 아직까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협소한 그런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인제 한참 그 선거권 연령을 내리자고 운동을 했을 때, 그때 보통 제 나이대로 낮추자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선거를 할 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긴 해도 권리를 행사를 했을 때, 그런 반영되는 면이 되게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언젠가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 : 아니요, 저는 아예 20세는 아닌 것 같구요. 왜냐하면, 20세가 학생과 비학생, 아니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구분 짓는 나이잖아요. 20세 이후에는 대학교에서 좀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워낙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저도 세 번째 학생과 똑같은 생각인데,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지금 고등학생들이 선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도 언젠가는 연령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지금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만큼, 그리고 청소년도 그만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워낙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크고, 그게 더 우선적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청소년이 죽잖아요. 가장 쉬운 예를 보면 청소년의 놀이 공간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선거권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뭔가 투자를 할 가치를 못 느끼니까 어른들이, 위에서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번에 문화 관광부 청소년, 그 누구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장관님

께서도 아예 청소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시작도 안 하시고 등극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전에는 아예 청소년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또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진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빨리 개선책을 찾으려면 선거권이 빨리 낮아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18세건, 19세건 아무튼 학생이 그만큼 참여를 해야지 학생에 대한 권리가 그만큼 생길 것 같아요.

조사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의 선거 연령에 대해서..

1 : 저는 지금이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요,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18세고,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만 13세예요. 선거권이. 그런 선진국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 나라들이 선진국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청소년들이 많이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많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음.. 뭐지?

2 .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1 . 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선진국으로 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4 : 지금은 일단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야 선거 연령을 낮추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18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쪽에서는 16세가 선거권을 낮춰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랑 비슷한거 같아요. 20세가, 만 20세가 되어야 선거를 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연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솔직히 저한테 선거권이 주어진다하면 누구를 찍을지, 아니, 누구를 못찍을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렇다고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지금 막 선거권을 줄 테니까 어서 정치 공부를 해라 막 이러면 짜증도 날테고, 진짜로...

3 : 18세가, 만 18세들도 선거를 하는 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쯤 되야. 아니다. 이걸 아니구나, 18세로 일단 낮춰주고 하긴 하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5 . 현재까지 계속 저희 또래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인식이 아직 남아있어서 저는 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의 선거 연령도.

6 . 지금 선거 연령이 20세인데요 지금이 적절한 것 같아요.

조사원 지금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6 제일은 아니구요 그냥 음..

조사원 현시점에서 적절

6 : 네, 현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집단 3의 특성은 이들이 청소년과 관계된 특정 모임에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집단 2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 3에서는 청소년들의 선거권에 대해 다소 상이한 응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선 선거연령에 대해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응답 내용에서 보면 한 청소년이 만 20세라고 응답한 이후 다른 청소년들도 비로소 그 응답에 동의한다고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곧 한 명의 청소년을 제외하면 다른 청소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 20세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의 고등학교 연령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판단력이나 관심 정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 밖에도 집단 3의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선거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단적으로 불신과 무관심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 또한 투표를 한다면 역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 등에 의하여 선거참여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거연령 인지도 . 부족함
- 선거연령 하향 문제 : 장기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금 현재의 청소년 의식을 고려한다면 낮추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봄
- 기타 . 정치에 대한 무관심, 불신 등이 보편적이라고 봄

(4) 집단 4

이 집단은 남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있는 청소년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권과 관계된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우리나라는 선거권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4 : 나 언어영역 70점대야.

조사원 . 선거권에 대해서 알어?

3 . 선거권 좋은거

1 : 애들 다 몰라요.

2 . 선거권... 정확하게는 말 못 하겠지만 국회의원 뽑는거...

4 . 1번 2번 3번 찍는거

6 : 풋~(웃는 소리)

4 . 그거 만 20세로 내려지나?

3 . 저희에게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6 아. 왜 이렇게 어려워~

2 그러게 말야~!

조사원 . 선거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6 . 차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2 : 길게 말해~!

3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조사원 . 선거권이 차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나! 그리고 민주주의 핵심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
인지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6 : 선거권이 주어져야져!

2 : 모르겠습니다!

조사원 : 너희들은 선거권이 있나?

4 : 저희는 아직 어려서 라는 말로 아직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조사원 : 어려다는 기준이 뭐야?

4 : 성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조사원 : 성인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나이?

3 : 네.. 20살이 아니니까 어리잖아요. 저희는 대통령을 찍을 수 없습니다.

6 : 만 19세

3 : 성인이 되면... 만 20세

2 : 전 별로 찍기 싫은데요~! 그래도 나이를 말하자면 대학교 3학년..

1 : 그렇지 나이가 어려서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누나는 이번에 했어요. 만
21세부터 할 수 있다.

5 : 만 21살~!

3 : 난 찍고싶어요~!

2 : 난 별로.

조사원 : 노무현 대통령을 뽑을 때 투표율이 연령대 중에서 어느 연령이
높았을까?

1 : 난 알지~~~ 20대 .

6 : 60대 ..

3 : 우리 부모님 나이 대 40대...

5 : 30~40대 ..

2 : 나는... 30대..

4 : 나는 모든 연령이 비슷했다...

조사원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6 :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나이 때면 은퇴하시는데 나라가 잘 되야지 자
신들이 교령화 사회사는 이 시대에서 밥을 잘 먹고 살 수 있을지 않을
까라는 생각에 .

3 : 40대의 70% 정도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친구분
들 오셔도 '너 누굴 뽑을 꺼야?' 라고 물으면서 자신은 누굴 뽑을 건데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매일 선거에 관한 뉴스, 신문을 열심히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정치가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서고, 대통령이 잘 이끌어야 이 정계가 살지..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때 연령 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5. 난 리서치 조사를 봤어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선거율이 타 다른 나라 보다 낮다라고 하는데 40~50대 들 보다 이번에는 20대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보았는데 20대가 투표율이 높았지만 타 나라보다 낮다라고 말한 것을 보았어요.

1. 젊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뽑았다고 하던데요 20대가 투표해서 표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원 :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 선거권 연령의 인지도는 어떨까?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연령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어떤거 같아?

2. 요즘 대학생은 놀고 먹을 줄만 알았지.. 선거에 대한 인식이 없을 거 같아요.

6 : 맞아! 술 먹고 놀고 연애하고...

조사원 : 너희들도 2년 후면 대학생이 될 텐데.. 혹시 그런 것들이 부러운 거 아니야?

3 : 맞아요! 정말 우리가 시민권이란 걸 생각하기 전에 생각해야 하는 건.. 수능 점수예요! 수능 점수가 잘 나와야지 지금처럼 답답한 곳을 벗어날 수 있지요..

조사원 : 그럼, 국내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에 경우는 몇 살부터인지 아니?

5. 20살!

3 : 만 18살!

2. 만 15세 입니다!

4 : 만 16세!

3. 거짓말이다 만 16세면 우리 나이인데.. 우리 봐 인식이 없는데

6. 만 19세인가?

6. 아~ 왜 이렇게 어렵지..

2. 만 15세!

1. 만 18세!

4 1~20세 중 하나 있는 게 분명해!

6 만 18세야.

조사원 : 너희들이 말한 연령은 다 우리나라 연령 보다 낮은데 그 이유가 뭐야?

1 우리나라 보다 외국은 민주주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잖아요~!

6 다른 나라는. 어린 나이에 우리처럼 청소년들이 입시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2 : 우리 보다 깨어 있는 생각을 할 거 같아요.

4 만 16세라고 처음에 했는데 그 나이에는 생각이 어린 것 같지만 알 건 많이 아니까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5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3 : 심각하게 생각했는데요~ 우리나라 보다 더 정치 문화가 오래 되어 있고, 민주주의 의식 아니 정치 의식이 잘 되어 있고, 국민들 의식이 깨어 있어서...

조사원 : 너희들이 말하는 외국은 어디야?

1 : 미국, 유럽

2 우리나라 빼고 다....

조사원 : 하지만 해외도 우리나라랑 비슷해. 일본은 20살 이상, 미국은 18세 이상, 영국은 18세 이상, 독일은 만 18세.

6 아..

1 흠..

6 : 나이스!!

6 역시..

3 뭐지?

1 일본은 똑같네~

조사원 .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퍼센트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대한 참여를 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선거에 참여할 욕구가 있을까 없을까?

6 선거 할 때,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3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참여 욕구는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욕구니까

- 5 대통령 선거할 때는 경상도, 전라도 나뉘어져 선거에 대해 투표를 개표할 때, 그렇게 나왔는데 항상은 아니지만 느낀거지만. 사람들이 인식 없이. 자신의 지역에서 밀어주는 정당을 밀어주느라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만 잘 되길 바라면서 진정한 대통령을 뽑기 보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가 너무 크지 않나 싶어요.
2. 오~ 처음으로 옳은 말했네.. 참여 욕구가 없을 것 같아요~ 선거하는 사람들 받으요~ 언론에서 선거하기 전부터... 우리 담임선생님도 집에 가서 너희는 선거 안 하지만 선생님도 내일 할 텐데 부모님 꼭 하시라고 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욕구가 별로 없는 거죠..
- 4 진짜 안 나왔는데... 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 열심히 듣는 어른들을 보면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 조사원 . 너희들이 왜 참여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 해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어?
- 6 : 창피한 이야기지만요. 저희 부모가 안 가기 때문에... 뽑을 사람이 없어요~
- 2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다 안하고 놀러가요!
- 6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기요~!
- 1 . 제 마음에 80%는요 내가 크면 한 번 해 보고 싶기 때문에 어른들도 해 보고 싶을 거 같아요.
- 5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람직하게 못해서 짜증이 나니까 사람들이 뽑으나마나 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거 같고, 참여해도 아무나 되면 어때 아님 학연, 지연으로 뽑는 거 같아요.
- 4 . 3번이 없어졌다! 나 네이버 지식검색 뒤지고 올걸..그냥 내가 없으니까 남들도 없다고 해야하나 저도 이렇게 말하는데 짹 짹 매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 일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르고 어른들도 우리랑 같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서 정말 왜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모르니까 필요의 당위성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 거 같아요
- 3 . 지금 의식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난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 생각이 있는 대한민국

국 국민이니까... 그래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식은 있지만 정말 어느 국회의원도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불신해서 뽑지 않는 거야.

조사원 선거에 대해 너희들 관심 있어?

6. 예~ 하고싶어요.

2. 아뇨~!

5. 관심~ 제로

1. 제로~

6. 막. 궁금하는데... 대통령만. 이번에 그랬어요~!

3. 안 궁금해!

4. 선거하기 귀찮지 않아요?

조사원 : 현재 너희(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은 어떠니?

4. 별로

3. 저도 별로.

2. 별로.

1. 난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6. 일도 하기 힘든데. 학교까지... 그리고 언제 투표까지

5. 생각 안 해 봤는데요~ 하기 싫어요. 정치가 썩어서 뽑을 사람이 없어요~!

1.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하고 싶어요

3. 저희에겐 선거 날은 학교안가는 날일뿐이에요!

2. 해보고 싶었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멀어지나봐~

4. 내가 안 해도 대통령은 선출돼... 썩은 생각이지만

1. 좀 더 사회생활을 하고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갖게된다면 지금의 의식없는 성인들과 같은 과에 속에 우리가 지금 어른들을 비난하듯이 비난을 받을 거 같아요.

5. 만 20세면 슬슬 정치에 관심 가질 때, 아닌가.

2. 청소년들은 그냥 자기가 이 사람 좋으면 찍는 거 같은데 공부 때문에 그 후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거 같아요

4. 지금은 애들이 철도 없고

3.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장난이나 할 듯

6. 나도

3. 좀 못 생긴 애 찍거나

6. 좋다고 하는 사람 찍거나

조사원 : 지금 애들이면 너희들이잖아!! 너희들이 당연히 불참여 한다고 생각하니...

1. 저희들은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4. : 내가 저 번 투표권 있었으면 김길수(학교 반 회장선거 때 다른 후보임, 우리랑 같이 토론하는 6번이 지금 반에서 회장을 역임함) 찍었을 걸..

2. 전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3. : 어차피 저희들은요. 선거하기 전에 소문에 의해서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듣고 좋은 사람 뽑는 거 같은데 의식없이 대중성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5. : 애들은 선거행사에서 좀만 잘해주면 그냥 다 찍을 것 같아요.

4. : 맞아~!

6. : 우리에게...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선거율만 낮출 것 같습니다!

4. : 학교 앞에 돈 조금 써서 스쿨(음료수 이름) 하나 씩만 사주면 다 찍어!

5. 그 날 놀러가지 선거할거 같지 않아~!

4. : 생각있는 애들은 하겠지. 근태 그냥 시간가는 대로 사는 애들이 더 많아!

2. : 만약에 선거연령이 14세로 낮추고.. 대통령선거에 장동건 나오면... 장동건 다 찍을텐데...

6. 2번 짱!

4. : 그럼 여자 애들은 다 뽑을 거야..

2. : 여긴 강제로 강퇴 시키는 거 없나요~! 누가 애네들 좀 강퇴 시켜주지..

5. : 수능 폐지하면 그러면 다 찍겠다.

1. : 맞아~!

4. : 버스무료

조사원 : 선거 연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아까 잠시 14세 이야기도 나왔고, 수능을 폐지한다면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만 20세가 적정하다고 생각해?

4. : 파격적인 질문인데요. 너무 어리면 안 되니까 지금 적당

2. : 선거연령은 지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함.

3. 스타(오락게임)로 대학을 보내준다거나 하면 나도 하고 싶어요 선거

를. 아님 지금 나이도 솔직히 어리다고 생각함

5 :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되면~ 몰라~ 그림 하고 싶을걸요!

조사원 그렇구나~! 지금 나이가 적당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친구도 있네. 그럼, 선거 연령 낮추는 논의가 있었다는데 그거 알고 있어?

3 : 아뇨.

4 : 아뇨. 처음 듣습니다.

2 : 뉴스에서 얼핏 들었어요!

6 : 당연하게 모르지요!

5 : 뉴스에서 봤어요.

3 : 아~ 얼핏 나왔습니다! 신문에..

조사원 : 그렇구나!

1 : 난 모르는데...

4 : 난 아예 몰라~

3 : 나도 몰라.

조사원 :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자고 나왔어 고등학생은 선거에 참여할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 19세로 하자고 개혁안을 발표했었어

3 : 19세로 하면 뭐 하자는 건지...19세면 수능 보는 나이 아닌가? 그럴 시간에 공부 더 하겠다. 선생님들도 반대할걸요. 공부가 최고인지 아는 선생님인데 학교에서는 이런 것 모르고 공부만 잘하면 좋은 학생이잖아요. 1번처럼 말이예요. 선생님 충애를 받고 있지만 이런 것 하나도 모르잖아요.

1 : 만 19세면 20살이 되어야 하는 건데 저는 만 20세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처럼 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사회경험을 쌓고, 세상 물정을 알아야 의식을 갖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학생은 공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앞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 거 같아요. 공부나 아님 선거활동에 둘 중에 하나는 포기가 되겠죠.

6 : 맞다... 한 살 정도 낮추면. 아무 상관없을 듯

2 : 난 19세로 낮추면 정치적 의식이 제대로 있을까? 란 걱정이 되는데요. 그걸 주장하는 아이들의 기사를 보고 나서 그 아이들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건 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 : 난 다른 아이들이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졌어! 2번이 이야기했듯이 소수의 아이들만이 그거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요. 일반적인 나와 같은 아이들은 이런 것에 대해 중요성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자신만의 의견이지만 저랑 생각하는 것이 같은데 연령을 낮추겠다 라는 기사부터 시작해서 소수의 아이들의 의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4 : 뭐 하러 낮춰요!

5 : 내려도 좋은거 같어

6 : 높이면 높였지

2 : 내리던 안내리던 그게 그건 것 같은데..

5 : 왜 내리면 좋지?

1 : 높이는 거에 찬성. 내리는 거 반대

4 : 생각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6 : 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 대학교1학년 올라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딱 찍는거야

4 : 어린애들이 정치에 대해 뭘 알겠어!

6 : 너 어린애냐?

1 : 그렇지

4 : 그럼

조사원 : 신문상에 본 사람들은 알 듯이 청소년들이 한쪽에서는 청소년 연령 낮추자는 의회나 이런 토론을 많이 열고 있는데 알고 있니? 아까 내가 말했잖아~ 차티스트라는 운동과 청소년의회라고 해서...

6 : 처음 들어요.

1 : 몰라요..

2 : 괜히 심심하니까 선거 찍는 놀이하려고 하는거예요.

4 : 치토스 회의

3 : 들었지..

조사원 :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자신들도 한 나라의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 거야.

6 : 그거하면... 국회에.. 들어가나요?

조사원 : 들어가서 모의국회 하는 아이들도 있어~

조사원 : 대학 2학년 생일이 지나야지 할 수 있지.

6 : 그거다 부질없는 짓!

- 3 : 늦게하네.
- 5 : 만 19세가 딱 좋은 거 같어.
- 3 : 그러게
- 4 : 난 모르겠어! 아~ 복잡해
- 6 : 학생에 절반도 투표 안 할 게 뻔한데.
- 3 : 대 1때
- 6 : 만 20세가. 제일 낫 듯.
- 4 : 직장인 돼서 하는게 좋겠다
- 6 : 난... 무조건... 기호 2번만 좋아하는데
- 4 : 제대로 알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 3 : 그럴 수도 있지
- 4 : 그럴까~!
- 1 : 흠.. 대학생의 이미지는 술만 먹고. 놀기만 하는 그런 이미지라서... 정치에 대해 모를 것이라는 생각..
- 2 : 대학생이 정치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 4 : 역시 직장인이 돈 벌다보면 세금문제도 알아 갈테고, 그러면 정치 어찌고 저찌고 도 말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학생들은 아직 사회를 알아가려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해서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대학생이 선거에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일거라 생각이 들어요.
- 5 : 맞아요 선거연령 낮추자는 이야기를 한다는 아이들도 소수, 대학교에서 의식 있게 선거를 실시하는 사람도 소수 우선 아쉬운 게 있는데요 이런 것을 논의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단 4의 경우에는 상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로 선거연령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연령 하향과 관계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숙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

의 응답자들이 입시준비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 관심 이외에는 선거권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가 일반적이었다. 선거 적정 연령은 현재가 좋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직장인이 된 이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오히려 선거권 하향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청소년의 선거권과 관계된 모임을 주도하는 청소년들은 소수이며 대부분의 일반 청소년들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정치적 판단이 부족하며 의식도 없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선거연령을 낮추어 만약 고등학교 연령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유행을 따라 투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우세하였다.

- 선거연령 인지도 : 매우 부족함
- 선거연령 하향 문제 · 낮추는 것에 반대하며 오히려 늦추어도 된다고 생각함
- 기타 : 청소년 선거권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소수일 뿐이라고 생각함

(5) 집단 5

이 집단은 여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6명으로 구성되었다. 선거권과 관계된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한국 선거권 연령이 몇 살부터 인지 알아?

3. 대충요! 만 20세요~

4. 저도 만 20세요~

5 : 어른들이 하는 거요~

조사원 : 구체적인 나이이야기 해 줄래?

5 : 20살 부터...

1 : 모르겠어요. 대충 25살.

2 : 또 이런 질문 하니 얼음 공주 된다... 음 저도 20살이요~!

6 : 만 20살이요~!

조사원: 그럼 해외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

1 : 우리나라도 모르는데 전 당연히 해외는 몰라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말
아요~!

2 : 우리가 미국, 일본 따라하니까 거기도 그러겠쥬 뭐~! 만 20살...

3 :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야기하자면 만 20살이요~!

4 : 저도 마찬가지로!

5 :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숫자를 이야기하자면 18살이요.

6 : 해외라고 하면 어느 나라 지칭하기 곤란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하지
만 저도 18살일 거 같아요.

.....

4 . 자유국가라고 하지만 국가 이기주의가 많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전
솔직히 정치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옆집에 우
리 지역 국회 의원 *** 살거든요.. 항상 친절하셔서 우리 부모님 그 분
을 찍으셔서 당선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된 것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른들의 선거하는 이유는 자기가 뽑은 사람 당첨되면 자
기도 기분 좋으니까 하는거고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뽑을 사
람이 없어서.... 그리고 음~ 불참여하는 어른들 보면 신문이나 이런 대
서 한심하게 보는데 정말 한심해요~!

5 : 저도 앞에 친구하고 같은 생각인데...한 번쯤은 선거하고 싶어요~! 어
른들은 선거가 이런거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6 안 하는 이유는 귀찮아서.. 그런 어른들보면... 나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들끼리 싸우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밀어주기 싫을
거 같아요.

5 . 요즘 너무 지역주의 심해서 . 정말 선거할 때도 눈살이 찌푸러지고 그
랬잖아! 그러니까 일부 어른들은 안 하는 거 아닌가요.

4 : 일단 대통령이 되면 믿어주고 지켜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

- 아요~! 단지 의무심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 3 선거 같은 거 하면 자기가 꼭 앞에서 이야기 한 건데 무슨 일 한 거 같이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아니면... 특정후보가 나오면 좋고, 뽑히면 기분 좋아서..
- 1 : 그니까... 뽑히면 자기가 큰일한 것 같잖아요
- 6 : 맞아, 큰 일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같아.
- 3 . 하지만 일부 어른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예요~!
- 4 . 솔직히 이유없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 6 : 자유니까... 그렇겠지...
- 4 . 안 하는 어른들은 이제 사람들이 질린 것 같아요. 막... 서로 싸우고 무조건 헐뜯고.
- 3 : 그런 것들이 싫어서..
- 2 : 아님. 나라에 관심이 없거나 .
- 1 자기 일에 바쁘거나... 자기 먹고살기도 바쁜데.
- 3 : 나랑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 조사원 : 그럼 현재 선거연령이 만 20세라고 이야기했잖아,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 3 : 나는 좀 이른 것 같은데
- 4 : 음... 저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하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2 : 난 20세가 딱 좋은데
- 4 : 저는 우리 나이 때의 아이들이 선거를 한다면 솔직히 나이가 많을수록 지역적인 감정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지역주의 없는 아이들이 나와서 하면 조금은 선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 5 :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만 20살.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고등학생들 중에 생각이 있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요
- 1 : 막 대학생이 됐는데 바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한 25살
- 6 .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고등학교 1학년은 좀 그렇고... 그래도 자기 생각만으로는
- 4 . 나는 고2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약간~의 생각은 있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 6 자기가 경험 안 해 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판단력을 잘 발휘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등학교는 무리이고 지금 나이인 만 20세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1 . 내가 생각하기에 고등학교는 너무 빠른거 같아 우리들 봐. 의식이 별로 없잖아.
- 4 . 그 후보를 선입견 없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바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실천하기 때문에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할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아이들이 역시 자신이 배운걸 활용하므로 더 알게 되고 의식을 갖게 될 거 같은데요

3 . 더 잘 볼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조사원 그러면 요즘 선거연령 낮추자는 논의가 있는데 알고 있어?

1 : 아니요.

4 : 전에 스치듯 인터넷 신문에서 봤어요

6 . 사회는 영~

5 . 들어본 것도 같아요!

2 . 전 싫어요~! 저도 봤지만 너무 소수에게 맞춰져서 진행되는 거 같아서..

3 아주 스치듯..

4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모르거든요~!

1 난 아직 우리가 공부 밖에 몰랐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조사원 애들아 선거연령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4 . 저는 찬성이요.

5 . 아예 낮추려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하게 하지

2 . 만 18세?

1 . 난 몰라~

2 : 그 정도로 이왕 낮출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공부 신경쓰기에 정말 앞에서 반대하는 당에서처럼 너무 능력이 없는 거 아닐까

6 나도 모르겠다.

조사원 : 그럼 너 보고 투표하라고 하면 어떨까?

6 전 아직 잘 몰라서 부모님 의견을 따르지 않을까요~ 언니 의견 들으니까 이 말도 맞는 거 같고 저 말도 맞는 거 같아서. 제 판단이 아직 미성숙.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5 우리에게 하라는 것 우리의 정치적인 의견을 내라는 거 너무 어려워요.

3 정말 어려워요

이상의 면접 결과를 보면 집단 5의 여자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현재의 선거연령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막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선거권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스스로를 판단이 아직 충분치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였음이 나타났다. 남자 고등학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청소년 선거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청소년 집단은 소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 선거권 연령 인지도 : 막연하게나마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선거연령 하향 문제 : 만 18세에 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유는 없고 이 나이는 판단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음
- 기타 :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요구는 소수의 의견인 경우라고 생각함

(6) 집단 6

이 집단은 일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면접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참정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투표권

5 투표권이 뭐냐? 선거권이지 민주주의의 꽃. 선거

1, 2, 3, 4 와~~

조사원 .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시민권이라는 것은 선거권, 피선거권, 청구권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선거권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는 것 같고, 피선거권은 좀 생소하신가요?

모두들 . 네.

조사원 선거인으로써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이 몇 살인지 말씀해보시겠어요?

5 . 만 19세?

4 . 20세.

6 . 만 20세

2 . 대학가서 21살.

1 . 만 20세.

조사원 :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권이 만 20세에 주어지고 있는데, 타국의 경우에는 몇 살에 선거권이 주어지는지 아시나요?

6 : 일반적으로 18세. 일본은 우리나라랑 같고, 독일은 18세.

5 :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18세.

조사원 . 네, 맞아요 여러분들 시민권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군요..

모두들 . (웃음)

1 . 우리 권리인데요. 그런데 우리 보다 어린 애들 하는 나라도 있어요?

조사원 : 음, 네, 미국, 독일, 캐나다, 중국 그런 나라들이 18세, 브라질 같은 나라는 16세에도 선거권을 주고 있고요 이란은 15세

3 : 중학생한테? 근데 그 나라 못사는 나라 아냐?

모두들 : (웃음)

조사원 :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선거권을 낮추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두들 : 네.

조사원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5 . 신문, TV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별로 말 안하고,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2 : 맞아요, 좀 홍보 좀 해주고 그러지. 맨날 정치인들 헛소리하는 것은 열심히 떠들어대면서.

조사원 아~~ 여러분들 선거권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러면 몇

살까지 선거연령을 낮춘다고 들어보셨어요?

5 : 고3때부터 할 수 있다고...

3 : 준다고 말만..

6 : 19세까지도 아직 논의만 되고 있다고 알고있어요.

1 : 그거 통과되려면 수일 걸릴 듯..

조사원 :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지금 만 20세 이상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즘 성인들의 선거 참여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3 :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사원 : 그럼 왜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1 : 뽑을 사람이 없어서

3 : 의식이 없어서.

5 :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은 놀러 가는 날.

조사원 :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5 : 저를 뽑지 않을까요 (웃음)

1 : 해야죠.

6 : 해야죠.

조사원 : 그러면 선거를 하지 않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왜 선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2 : 글썽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거하기에 개판이라.

1 : 나라도 개판이고, 정치가 개판이라.

3 : 맨날 짜고 치는 고스톱

4 : 우리나라가 정치 비리1위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죠.

5 :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6 : 공약을 못 믿고, 공약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참여를 하지 않겠죠

조사원 : 성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회피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6 : 자기네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바꿔나갈 생각을 해야지 피한다고 달라지는게 있나요? 전 공약을 철저히 보고 꼭 참여를 할겁니다

조사원 ·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2 :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6 · 참여를 해야죠

5 . 그냥 가운데를 찍겠어요. 무조건.

조사원 · 지금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자신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까지 말씀해주세요.

1 · 전 반대!

조사원 · 왜 반대입장이세요?

1 : 장난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라고 하면 솔직히 이렇게 장난으로 대통령을 뽑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는 그냥 그랬는데, 선거 진짜 하라고 그러면, 난 투표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대통령 뽑아봐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해요. 누구 누구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 당선되고 나도 뭐 앞사람이랑 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거권이 주어져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2 : 저도 반대.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사원 : 공부하느라고?

2 아니, 특별히 공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선거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3 · 반대예요.

조사원 왜요?

3 · 18살에는 사회적 현실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쯤 음.. 깊이 있게 여러 측면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1 · 오~~ 통찰력...

3 . 음, 그리고 대통령 뽑아봤자 국민들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실망만 하고.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별로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모두들 . (웃음)

5 저두 반대인데요 학생들이 경제나 사회 현실에 대한 관념이 적으니까 그런데 무관심하니까 그리고 저도 안해요. 공약 건 것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뇌물이나 받고 믿을 수가 없어요

조사원 그러면 혹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서 참여하다 보면 사회 현실에 대해서 보다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5 글썄요 사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아야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고 그렇지 않을까요?

조사원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여러분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야 청소년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이 정책적인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5 그런 쪽에서 봐도, 아니 뭐 성인들에게 보여주는 공약도 안 지키는데 하물며 힘없는 우리한테 말뿐 아니겠어요? 정책적인 측면 그런 거는 솔직히 우리나라는 안 되요.

3 . 괜히 그런 걸로 잘 모르는 우리 표나 한번 더 얻으려고 하겠죠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만 시끄럽게 굴지 정작 필요할 때 나 몰라라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 처럼요

4 . 찬성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일에는 장난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도 전 내세우는 거, 공약 그런 거 보고 짚을 거 같아요. 평가를 해야죠.

6 . 저도 찬성인데요. 저번에 겨울방학 때 학원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 연령이 낮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높은데요. 우리 교육 정책이요 1년마다 바뀌고 그러는 게 우리가 참정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생으로 선거연령이 낮아진다면요, 교육정책을 잘 짜가지고요 우리한테 제시하면 우리가 좋은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에서 보면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상기 내용을 보면 집단 6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선거연령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유에 의한 논리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장난칠 것이라는 이유와 정치적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많았다 찬성

하는 경우에는 공약에 대한 평가를 위한 이유와 잘못된 정책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의 사용 이유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앞선 집단의 경우에서와 동일하게 청소년들도 현재의 정책시행과 정치 전반에 대해 불신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하여 이에 대한 무관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거권 연령 인지도 :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
- 선거연령 하향 문제 : 반대가 다수였지만 명확한 이유에 의한 찬성도 있었음
- 기타 : 정치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음

(7) 집단 7

이 집단은 남자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먼저 선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연령으로 선거를 몇 세부터 할 수 있을까요?

3 : 대학 3학년...

조사원 · 아, 대학 3학년이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럼 만 21세정도 다른 분들은요?

4 : 저는 만 20살부터요.

조사원 · 또 다른 분들의 생각은요? (얼마동안 대답없다)

조사원 ·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6 :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점점 줄여가는 추세라고.

3 : 18세인 곳도 있는 거 같고 잘 모르겠어요 (침묵)

조사원 ·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거 참여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 : 50%정도요.

조사원 : 네. 그럼 50%는 선거를 안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 분들은 왜 선거를 안 할까요?

1 :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조사원 :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1 : (정치를) 잘할 것 같아서 뽑아놓은 후보가 막상 선출이 되어서 뭘 하는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조사원 : 네. 국민들이 기대치를 많이 저버린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는 이쪽(학생 2)부터 돌아가면서 말씀 해주시겠어요?

2 : 저도...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해요.

조사원 : 그럼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2 : 일단은 뭐... 뽑고싶은 후보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거를 안 하려는 이유가 선거가 귀찮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조사원 : 네. 후보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시죠?

2 : 그냥 뭐..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정치를 해도 특별히 차이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하다가 똑같아지면 또 실망하게 되고.. 뭐... 일단 정치하는 놈들이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싫은 이유도 있겠죠

조사원 :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정치라면 무조건 반감부터 생기는 이유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2 : 그렇죠.

3 : 저는 일단 대통령 선거는 크고 중요한 선거니까 한 60% 정도고, 지방 자치단체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한 40%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 참여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이 선거하러 가는데 귀찮다. 선거하러 가서 얻는 이익보다 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런 이유들도 있겠고요, 그것보다는.. 내가 심사숙고해서 뽑은 후보는 내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치가 솔직히 말해서 변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투표를 하던, 안 하던 간에 똑같다는 얘기죠

3 : 다시 정리를 하면요 투표율이 저하되는 이유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거라는 것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선거를 하

던 안 하던 정치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시민들은 신중하게 공약을 보고 선택해서 그 후보를 뽑았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었는데 당선된 후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의견을 낸들 이것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죠.

조사원 : 일단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안되고,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선거하러 가서 얻는 이익보다 내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3 · 선거를 하러 가는 데 쏟는 에너지보다 공휴일이니까 차라리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조사원 : 선거가 공휴일을 하루 보내는 것만큼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

4 · 저도 앞 친구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그거보다 좀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책임감이랄까...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돌아올 큰 이익들만 생각하고 정치 비난만 하지 투표는 안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말이죠

조사원 : 네 국민들의 책임감에도 문제가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4 · (끄덕끄덕)

조사원 : 그럼 다음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 선거를 할수록 점점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고요, 투표라는 것이 국민으로서 하나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새로운 정치인을 뽑으면서 뭔가 다른 걸 기대할 거 아니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정치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계속 투표를 안 하게 되고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사원 : 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정치인들과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학생6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 : 저는 대선에서는 한 70% 투표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선거에서는 한 40%정도 참여하는 것 같고요, 해마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겠지.. 개인이 안일한 생각으로 그 시간에 차라리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투표를 안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선거일에 참여를 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안 해도 되나보다. 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조사원 네. 새로운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부모님의 모습에서 투표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도 있다는 의견이셨고요, 다음 분은요?

7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국민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선거에 참여하는데 막상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투표를 해봤자 변할게 없다는 의식이 많은데요, 그 의식부터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뽑음으로서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무엇인가 바라고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투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체가 문제인 거 같아요. 자꾸 투표율이 낮아지는 게 그런 생각들이 점차 만연되기 때문에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우선 그런 의식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바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개척해나간다는 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사원 · 의식의 변화. 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이제까지 선거참여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네요.

조사원 이번에는 맨 처음에 잠시 다뤘던 선거연령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볼게요 현재 만 20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는 낮춰야 한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1 · 예전에는 매체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의식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보다 어린 아이들도 정치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20세보다 낮은 나이에 선거에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조사원 · 선거연령을 낮춰도 괜찮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연령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1 . 고등학교 2학년정도부터요 17세요.

2 저는 일단.. 특별한 연령보다는 투표에 대한 바른 인식 같은 것들이 키워야 되는 문제인데

조사원 그렇다면 현재 20세로 정해진 연령에 대해서는?

2 : 그런데... 그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른 인식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저도 고2부터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조사원 고2부터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네요

3 : 저는... 요즘에 선거연령을 낮추자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령을 낮추자, 높이자의 문제를 떠나서 연령을 낮추자는 사람들의 입장이 지금 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어떻게 얘기하면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일종의 단순한 공약 때문에 그런 제안들을 하는 것은 아닌지... 20세 이하로 낮추자는 문제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현재처럼 20세 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생은 아직까지 사회에 대한 견해가 많지 않고 아직 사회적인 통제가 더 많은데요, 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대학 1학년정도면 이제 갖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적응기간 없이 대학 1학년 이하로 투표권을 준다면 자칫 잘못해서 허왕된 공약으로 휘둘러서 정치에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저도 지금 현재 나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넓은 사회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 :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6 : 고등학교 때는 우선 대비해야 하는 것이 수능. 대학에 가는 것이 절대 목표잖아요, 무조건 대학을 붙고 보자는 식으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선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회경험도 부족하니까 공약에 넘어가서 찍어버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연령을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인거죠

조사원 . 대입문제 때문에 선거권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다.

7 : 저는 무턱대고 선거연령을 낮추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비록 매체가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투표라는 것은 어른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 투표를 할 수 있을 판단력은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 무턱대고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보다는 오랜 기

간에 적응시간을 두면서 점차적으로 시도해보면서 낮춰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사원 :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7 현재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7의 경우에는 학생회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지만 선거연령에 대한 인지 정도는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선거권에 대해 자신의 명확한 주장을 할 수 있는 포괄적 논리와 지식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한 명의 청소년만 17세로 낮추는데 찬성하였고, 다른 청소년들은 모두 반대의 의사를 보였다 반대 이유는 경험이 부족하며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아직까지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지배적이었으며 선거연령보다 선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거 적정 연령은 만 20세 또는 20세 이상이라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었으며, 성인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현상과 이유에 대해 비교적 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

- 선거권 연령 인지도 인지 정도 부족함
- 선거연령 하향 문제 : 반대가 다수였고 만 20세 또는 그 이상을 적정 선거연령으로 보고 있음
- 기타 : 정치 무관심 현상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음

(8) 집단 8

이 집단은 여자 고등학교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7명의 여자 청소년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면접 내용의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그럼 먼저 선거권 얘기부터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선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2 : 성인

3 : 만 20세

5 : 그냥 20세요.

6 : 만 열 아홉이요.

1 : 스무 살인가 열 아홉 살인가부터 하지 않나요?

조사원 : 그렇군요.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3 : 열 일곱 정도?

조사원 : 네. 그럼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5 : 일본은 비슷할 것 같아요.

조사원 : 네. 그럼 다른 나라들은요?

1 : 다른 나라들은 한... 스물 다섯?

조사원 : 우리나라보다 늦네요

2 : 그건 너무 늦은 것 같고요. 보통 열 여덟에서 스무살 정도 사이에 할 것 같아요

조사원 :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거에 얼마만큼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3 : 제가 중학교 때 선거할 때 갔었거든요 근데 선거를 할 때 보통 30%~40%가 안 되는 거예요 선거참여를 안 한다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빨리 선거하러 가라고 방송나오고. 지역구 선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무지 선거를 안 하는 거 같아요

5 : 그때 수업시간에 선거얘기가 나왔는데요. 50%가 채 안 된다고

2 : 그나마 대통령 선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4 : 암튼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선거가..

조사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5 13대인가... 아니다 16대 이번 대선에서는요.. 처음 대통령 선거 할 때는 90%이상 선거를 하다가 점점 안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60% 정도 하지 않을까.
- 6 . 점점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해지니까 솔직히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하는 날이 곧 휴가 가는 날이고.
- 1 . 어차피 뽑아줘야 속된 말로 그 놈이 그 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 많잖아요.

조사원 : 네 선거들을 참 안 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럼 왜 선거를 이렇게 안 할까요?

- 1 .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정치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고 돈을 써서 선거를 하니까 선거를 한 후에 비리가 일어나고 그 선거비리로 또 국민들이 실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사원 . 그래요.

- 2 . 대통령 아들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런 걸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 4 .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매년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실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에잇! 이런 건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 5 : 지금 국민들이 돼지저금통으로 뽑아준 대통령도 기대만큼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대들을 많이 했을텐데.. 그래서 기대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선거를 안 하게 되지요.
- 3 : 그리고요. 제가 그때 선거하는 날 부모님 쫓아갔을 때 거의 선거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중·장년층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셨거든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분들은 거의 당을 보고 뽑으시고 당 중에서도 거의 보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른들의 뜻에 보통 그냥 맡겨지는 거 같아요.

조사원 그럼 중·장년층 이상의 후보 선호도가 결국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죠?

- 3 : 네, 그렇죠 뭔가 신선한 당이나 후보가 나와서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고 발전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선거를 안 하니깐요. 나이 많은 어

른들이 뽑는 후보는 정해져 있잖아요 무조건 뭐. 당으로... 너무 그게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조사원 그럼 이번에는 얘기를 좀 바꿔서 좀 전에 우리나라 선거연령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잖아요 만 20세라는 선거연령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 :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고등학생은 미성숙한 부분이 특히 정치면에서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대학을 가는 때가 가장 많이 변하는 시기가 되고 보고 배우는 부분이 많아지면 사회를 보는 눈도 달라질테고 물론 정치를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딱 적당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낮추면요, 학생들은 솔직히 장난삼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거날 되면 '에이 아무나 되면 어때? 그냥 노는 날이지'라고 말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냥 지금 만 20세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조사원 . 지금 연령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네요. 다음분은요?

2 : 저는 좀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조사원 . 아~ 네 지금보다요?

2 : 네. 왜냐하면요. 만 20세면 빠르면 대학교 1학년때부터 선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학교 1, 2학년은 그다지 인격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솔직히 고등학교때까지 입시에 너무 시달려 가지고 노는 데 집중하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얼마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졸업할 나이여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나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23살이나 24살 정도가 되면 진지하게 선거를 할 것 같아요.

1 : 저도 그냥. 대학교 3, 4학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솔직히 고등학교때랑 대학교 입학 했을 때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선거를 겨울에 하는데 대학교 1학년이라 해도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깊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선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대학을 계속 다니다가 3, 4학년이 되면 단순하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3~4학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6 : 저도 두 친구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진짜 1학년은 말이 1학년이지 아직도 미성년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그렇

게 많이 성숙되지 못한 것 같고 대학 4학년 정도는 되어야 취업란에도 시달려보면서 직접 경험을 해 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 좀 더 우리나라가 잘 해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5.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고2나 고3 정도로 연령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조사원 : 아. 현재 선거연령에서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시네요.

5 네. 지금 친구들이 보는 관점은요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미성숙하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런데 저희 나이에 또 분명히 성숙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른들 중에서도 분명히 미성숙한 어른들이 있듯이.. 최근에 선거를 했을 때 반 친구들이 누구를 뽑느냐에 대해 관심이 무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연설을 했을 때에도 집중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사리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람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고2 정도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어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선거를 빨리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봐도 친구들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성숙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어린 친구들이 있고, 나라가 어떻게 되던지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의식이) 깨어있는 친구들만 한다면 괜찮지만 이 나머지 친구들도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그 표가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저도 좀 연령을 높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조사원 지금보다 높이자는 의견 쪽이시네요

4 네 대학 3학년 이상이요. 연령을 좀 높여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철이 들고, 여자들은 취업이나 이런 쪽이 가까워지면 그때쯤 해야 할 것 같아요.

.....

3. 네. 한 살 정도 낮춰도 고3이면 아직 미성숙하긴 하지만 고1, 2는 아직 입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한테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그렇지만 고3정도 되면 정말 자기에게 당면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알아갈 만한 나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1학년이나 솔직히 고3이나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 4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중3 때 대선을 했어요. 그때 연설을 할 때, 대통령 후보들이 방송에서 합동 연설을 할 때 애들이 안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꽤 많이 봤더라고요. 그런 식의 관심이 저희한테 퍼질 수 있다면 진짜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정치문화에 좀 더 익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2학년이나 3학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몰라도 좀 더 자기 판단이 제대로 선 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거권을 주는 것도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사원 : 그럼 지금 선거권을 주는 것이 이후 두 번째 선거를 하기 위해서 혹시 시행착오적인 경험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4 : 그래도 뭐.. 미래를 위해서 연령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둘 다 장단점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선거문화가 더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5 . 저희가 미성숙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는 절대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을 보면서 나라가 많이 걱정되고 그렇거든요. 미성숙하다는 말은 솔직히 제가 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가 되면서 초등학교때부터 계속 학교 내에서라도 선거를 해보잖아요. 세대가 변하면서 우리세대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겪어왔으니까 그것도 정말 큰 경험인 것 같아요. 안 해본 사람과 해 본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갑자기 연령을 많이 낮추자는 것 보다는 고3부터 하는 것도 한 살을 내린다는 것이 적당하고 주장하시는 것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사원 : 네. 그럼 여기는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논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셨는데 어떠세요?

- 6 . 한 두 살 어린애들을 선거에 참여한다고 보면, 솔직히 저는 저 자신이 성숙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선거라는게 총선뿐 만 아니라 대선을 봤을 때 한번의 대통령 선거로 10년이 좌우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학생들의 내적 성숙만 가지고는 이뤄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선거를 할 때

내가 다 컸다는 생각만으로 내가 다 컸으니까 내 가치관으로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가치관이나 세계관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은 미군들이 철수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미군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세계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계관이나 이런 관점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적 성숙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1, 2년을 더 사는 것 자체가 크게 가치있는 날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되면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더 넓게 보고 세계관도 확립이 되고 자기의 가치관도 확실히 확립이 되었을 때 선거를 해야 한다고 봐요

6.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고3이면 한창 수능에 예민해있을 때잖아요. 항상 공부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솔직히 선거를 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는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학업에 열중해야 할 때 그러한 것들을 도무지 알아낼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팍한 수준의 판단으로 선거를 할 것 같아요. 뭔가 신중한 면이 필요한데 고3이 되면 학업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선거를 할 때 신중하지 못할 것 같고 또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니까 부모님의 권유에 그대로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또 경험면에서도 많이 부족하고요. 아직은 폭이 좁으니까.
1. 저는 고등학생이 나라에 관한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거를 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학교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공약도 너무 뻔하고 친분관계로 뽑아주거든요. 그런 알팍한 경험으로 대사를 거론할 만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의 면접 내용을 보면 여자고등학교 학생회 청소년들의 경우 선거연령에 대한 인지 정도는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지만, 앞선 남자 고등학교 학생회의 경우에서와 동일하게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

거연령 하향 문제에 있어 대부분은 현재의 연령이 좋다거나 또는 대학교 3, 4학년 정도로 오히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거란 경험도 어느 정도 되고 인격도 성장해 있어야 하며 정치상황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들과 대학 1, 2학년은 아직 미성숙의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낮추어도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경우 청소년들이 미숙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선거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 사람들이 불신을 지니고 있는 현상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거권 연령 인지도 : 인지 정도 부족함
- 선거연령 하향 문제 : 반대가 다수였고 만 20세 또는 23, 24 정도를 적정 선거연령으로 보고 있음
- 기타 : 정치 무관심 현상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음

(9) 집단 9

집단 9는 남녀공학 고등학교 재학생들 중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6명으로 구성되었다. 관련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첫 번째로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건데요, 우리나라는 언제 몇 살부터 선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학생들 (다같이) 스무살

조사원 : 스무살이요? 이쪽분은요?

3 . 스무살

조사원 . 이쪽도요?

5 . 스무살이요

조사원 . 다 스무살로 알고 계시나요?

학생들 네

조사원 .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4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 않나요?

조사원 . 우리나라 같이 20세 이상일 것이다?

4 . 뭐, 조금 적은 나라도 있을 것 같고요.

조사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그럴까요?

4 . 미국 같은 경우는 18세 부턴가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원 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 잘 모르겠거든요.

조사원 . 다른 분들도 잘 모르시나요?

학생들 : 잘 모르겠어요.

조사원 :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선거권이 없지만 현재 선거권을 가진 성인들, 즉 유권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선거를 하면 어느 정도 선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조사원 . 그러니까, 선거참여율이죠..

4 . 저는 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45%정도 한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조사원 . 네 그럼 대선은 어느 정도 참여할까요?

4 대선이요? 선거 홍보같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2 저희 친척들이나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투표를 하더라도요. 속된 말로 정치개관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차피 투표를 해서 뽑아놔도 정치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하러 뽑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조사원 . 아~ 누가 하던간에 변하는 게 없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 50%정도요.

6 투표율이 낮은 문제가요. 사람들이 비판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 시민들이 비판할 줄만 알지 정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조사원 : 정확한 지식이 없다?

6 . 네. 어쨌든 정치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면 비판만 하고 보자는 식인 거 같아요.

조사원 . 아.. 그럼 국민들의 문제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3 저는 일단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거 같아요.

6 . 생각을 다 말했는데요 어쨌든 옛날에는요 80%까지 올랐다가 떨어져서 제일 중요한 대선까지도 50~60%정도로 떨어졌잖아요. 자기가 뽑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도 당내에서 결정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들만 뽑아야 하니까요. 내 맘에 드는 사람은 후보로 못 나오잖아요. 당에서 뽑힌 후보로 나온 사람을 뽑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버리면 뽑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선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3 그런데요...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 때문에 선거를 안 하게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판적인 시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론매체의 영향도 큰 것 같거든요. 꼭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언론매체에서 보편요. 아무래도 특별하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언론매체잖아요. 그런 부분만 너무 부각시켜서 나오니까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 사람들이 더 비판적이 되는 것 같아요.

조사원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선거연령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앞서 드렸었는데요, 현재 만 20세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선거연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4 . 저는 좀 낮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요, 감정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정치 같은 것에 관심이 없는 애들은 안하고 투표를 하는 애들은 뭔가 관심이 있고 뭔가 알고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의 투표도요. 물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이르면 고2고 조금 늦춘다면 고3까지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5 : 오히려요. 일반 선거에 참여하는 분들보다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참여를 한다고 생각해요. 고2부터 참여시킨다면요. 저희가 참여를 하면 현재 저희가 선택과목에 정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오히려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편견없이 훌륭하게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하고도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요. 더 오히려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참여가 낮잖아요. 그 친구들은 저희보다 교육지식이나 그런 부분이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낮춰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시민권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보충하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차츰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선거에 참여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사원 그럼 현재 20세로 되어있는 나이보다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고 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 : 저는 지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세 이상이나 저희나 다 마찬가지로, 선거일을 삼일절이나 8.15 정도로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차피 내가 선거를 안 해도 누군가는 뽑히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는 19세나 18세로 낮춘다고 해도 감정이 많이..

2 : 저는요 오히려 지금 이 선거연령에서 조금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딱 높이지는 않더라도 한 두살 정도는 높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말했듯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고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 어느 정도 편견 없이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는 학생은 아주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못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좀.. 철이없다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많이 늘고 문화도 노는 문화이다 보니까 연령을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스물 둘이나 셋? 아무래도 취업이랑 가까워지다보면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적인 판단이 될 것 같아요.

3 : 저도 지금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배운다고 해도 정치의 기초적인 것도 배우지 않고 깊이 들어가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학생들은 정치 이야기만 나와도 머리 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감정이나 이런 것도. 언론매체에서도 항상 나쁜 모습만 보여주니까 정치나 국회의원들 보면 그냥 '비리' 뭐 이런 것들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이 제일 적당한 거 같아요.

조사원 · 남학생들(학4,5,6)과 여학생들(학1,2,3)과 차이가 좀 있네요.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어요. 선관위에서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겠다는 입장이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낮추자라는 운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학생들 · 잘 모르거든요.

조사원 ·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5 :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줄이자는 이야기는요. 어차피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낮춘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지요.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연령이 낮춰졌다면 의미가 있는건데 대학교 2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으로 줄인 거 밖에 안되잖아요. 낮췄다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조사원 (여학생 쪽을 바라보며)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계셨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단체 중에 청소년 의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에서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토론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 그냥 그들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1 ·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아까 말했던 이유들로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집단 9의 경우 흥미로운 사실은 동일 집단 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의견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남녀 모두 선거연령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점차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선거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했는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원 반대하거나 또는 현행보다 더 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자 청소년들이 찬성하는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오히려 성인들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무책임하게 유행 등에 따라 물표를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 그리고 투표행위 또한 청소년들 중 관심 있는 경우만 할 것이라는 이유 등을 제시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지면 감정개입에 의해 투표를 할 것이고 또한 대학생 역시 저학년의 경우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지금을 유지하거나 더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 선거권 연령 인지도 : 정확하게 알고 있음
- 선거연령 하향 문제 : 남자 청소년은 찬성
여자 청소년은 반대
- 기타 : 정치 무관심 및 불신 현상에 대한 이해 정도 높음

2) 피선거권

(1) 집단 1

집단 1의 피선거권에 대한 의식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연령이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4. 잘 모르겠는데

1. 25세.

3 저도 잘 모르겠어요

2 저도

조사원 만 25세가 맞거든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경우 몇 살인지 혹시 아
세요?

1 19세? 선거권 나이랑 동일하지 않나?

조사원 : 독일, 캐나다, 중국 같은 나라가 18세, 영국이 21세, 미국, 일본은
25세, 일본 같은 경우는 참의원이 되려면 30이 되어야 하구요

1, 3 : 음.

조사원 .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19세의 청소년 국회의원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러면 현재의 피선거권 연령
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해 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생각을 해 볼 때.

4 몇 살이라구요?

조사원 : 25세.

4 실제로 이렇게 뽑히는 올라 온 후보들을 보면, 25세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4 . 실은 그런거, 25세다라는 그런 것들도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예상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18세나, 19세,
20세로 낮춰졌을 때 거기에 올라온 사람들이 어느 만큼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을 뽑을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될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
런 것들을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제 생각에는 생
각만하자면 ‘참 진보적으로 잘 될꺼야’ 뭐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생각
되는 그런거...

조사원 : 그럼 25세 연령은 적절한 거 같아요?

4 : 실은 그것도 되게 낮은 것 같은데.

3 . 아~ 지금까지 좀 나이 많이 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만 봐도 그 사람 옛날 저희가 맨날 어떤 사람이라고
들 하는, 그 나중에 이렇게 크게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
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뭐가 잘 될꺼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옛날에 뭐했던 사람이라서 저 사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 참, 그런 것 보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이 하면은 그

런 것들은 비교해 볼 때 바로 그렇게 국회의원 되서 올라가는 분들이 환영을 못받을 것 같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나이 어린애가 나와서 뭘 하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피가 어찌구 막 이러면서 좀 밀어줄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한 27, 30정도가 피선거권 연령으로는 적당한 것 같아요

- 2 : 저는 피선거권이라는게 뭔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나오는거 많이 보면서요. 왜 아무리 지금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이 20대는 안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그 가능성만큼은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뽑히지는 않더라도 21세이든, 20세이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분명 젊은 사람들은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장년층한테는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젊은층한테는 호응을 받잖아요. 최소한 2, 30대 계층한테 호응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3 : 그런데 닫혀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막 10대까지 준다 약간 아까 네 번째 친구가 말했듯이 외국 같은 경우는 잘 되어있고, 물론 자기 스스로 그런데 참여할 만한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막 불공평하다고 해야되나? 그런 쪽에 이렇게 그러면은,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물론 어른들도 그러는 판에 저는 그래도 약간 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뭐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이겨내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의지가 있으면 나이가 먹어도, 그동안 그런 것을 살아오면서 나중에 되서 더 성숙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4 :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이라는데 정치 참여한다는 생각이잖아요. 자신의 시민권에 대한 생각, 이런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자신과 같은 나이에 누군가가 의견을 내고 하겠다고 나왔을 때, 전 20대 사람들이 별

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더 전체가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조사원 . 참여의 길로서 피선거권을 길을 열어 놓으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4, 2 내.

- 1 아니, 아까전에 교육을 해야지 뭐 그래도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게 좀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라는 말을 잠깐 했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되게 약간 딱딱한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책에다가 다 펼쳐놓고 그것만 보는 것이고, 저 후보가 뭐 했고, 그건 어떻게 됐고 이런식의 교육 방식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단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서 이렇게 토론을 한다던가 이런식으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뭐 저 후보는 어떠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에서 TV를 보고 와서 요번에 후보를 토론회를 봤는데 내 생각을 어때?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일방적인 주입식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그 피선거권 나이가 낮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전에 두 번째 학생이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일단 그 가능성은 열어 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19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솔직히 다섯 살 먹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생각, 더 대중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당연히 열어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8세, 뭐 이렇게 저는 선거권하고 같은 나이로 낮춰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9세도 아니고 18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게 제도권 학교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대학을 다니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때 고등학교 때 이런 학창시절이랑 직접 다니면서 자기가 부당한 것들을 맞대고 있을 때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지잖아요. 그때 충분히 좀더 리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대중들한테 얘기하는게 더 호소력이 있고,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8세짜리가 국회의원을 나간다면 이리하면 좀더 이렇게 그 또래들이랄까 아니면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성세대 층한테 그러니까 다양하면서도 현실적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이렇게 나이가 어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간다고나 그랬을 때, 한국 정치판이 되게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사람한테 발언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기성세대 국회의원이거나 그런 사람이랑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마찰이 많을텐데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나이 어린게 어디서 떠드냐’ 뭐 이런식으로 입이 막혀버린다면가 아니면, 왜 이렇게 그런 외압들이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물들어 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게 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기본적으로 가능성은 다 열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4. 그러니까 18세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이 약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당장 실현된다고 보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의 입장에서 저는 아직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너무 급하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낮춰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천천히 조금씩 낮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저는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대해서 찬성이고요. 그리고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일부러 18세까지 준다고 꼭 18세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시기면은 고등학생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18세가 나가서 무조건 뽑힐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진보와 보수 여러 가지 생각이 묶여있는 한 최소한 분명히 국회의원 될만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굳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참가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안되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지도 않을 것이고, 가능성뿐이니까요 18세까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상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 1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피선거권의 개념뿐 만 아니라 구체적인 연령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선거권 연령 정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피선거권 연령을 더 낮추어도 된다고 하

는 입장이었으며, 대표적인 이유로는 청소년들에게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이 경우에도 연령을 낮추는 시기는 천천히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한 명의 청소년은 피선거권 연령을 27, 30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 피선거권 연령 인지도 : 알고 있지 못함
- 피선거권연령 하향 문제 : 찬성입장이 다수이나 높이자는 의견도 있음

(2) 집단 2

집단 2의 피선거권에 대한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여러분들께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면 하시겠는지?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청소년들의 피선거권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해 주세요.

1. 독일 어느 지방에서 19세 의원이 당선된 것을 신문상으로 보았는데 저는 무지 부러웠어요. 저는 무지하고 싶거든요. 저는 기회 되면 나가고 싶어요. 내가 능력이 되면 꼭 나가고 싶은데요 아직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가지 못 하고 또한, 연령의 제한으로 인해 나가지 못하는데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저는 청소년들도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자신들의 의견을 잘 대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의회 사람도 의식이 좋잖아요~! 전국에 각 대표님들이 모여서서 각자의 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 청소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을 가장 대변을 잘 하는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같은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

문에 청소년들을 위해 힘을 발휘 할 수 있을 거 생각하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산에서는 청소년들이 선거를 했었는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후보를 결정을 한 다음에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못 하고 있고, 나이라는 제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알건다 알고, 청소년들 각자 소신 있게 저희 생각을 표출할 수 있으니까 어른들 못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기회가 된다면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 고3 형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나갈 수 있다면 나가겠습니다.

3. 저는 반대거든요. 아직 청소년들에게 피선거권을 주기에는... 저희가 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공부는 끝이 없거든요. 대학교,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등 평생교육이란 말처럼 변화하는 세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 못지 않은 교육도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고등학교에 얽은 지식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걸 확신해요~! 아까 피선거권을 청소년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시장, 도지사, 대통령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저는 반대해요! 선거권은 되는데. 피선거권은 소신 있어서 하는 건 좋으나 어느 정도의 엄청난 경험을 해야 하고 겪을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데요. 그리고 그들만의 틀을 넓히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미성숙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의회 활동이 아니라 그들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는 청소년의회 충분히 좋고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집약적으로 해서 낼 수 있는 기관이기에 이것만으로도 활성화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 그런 것은 좋지만 사회적으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4. 참정권이란 것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수님을 만나 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가 아는 것이 있는 반면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있는 반면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고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 분이 말씀하셨듯이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마다의 지식은 다르거든요. 나이 별로 루트는 안 되거든요.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이렇게 두는 것도 안 되고요. 나이로 막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수준이나 경험에 의해 달라지긴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보고요. 표는 우선, 선거인단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세니까 ‘그래 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안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해서 25세를 더 부각시키거든요. 참정권에 의미처럼 선거권이란 피선거권을 같은 나이대로 두고 그리고 피선거권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인단의 생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가 소신을 갖추게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 5 피선거권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말을 못 하겠고요 피선거권이 저에게 주어진다 면 현재 미성숙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미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가고 싶어도 마음만으로 가지고 있을 뿐 나가지 못 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우선 내가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못 한다고 판단이 서면 포기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기 만에 가치판단을 내리고 나서 결정을 할 거 같은데요. 웬만한 청소년이 나가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 역시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가 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 6 아까 3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학교육을 받아야 피선거권이 주어 져야 하고,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에게는 피선거권 주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고등교육 받지 않아도 저희 선거위원단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직 고등학생이라도 어느 정도의 어른 못지 않은 소신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 상임위원회 별로 도우미선생님과 조직위원회 그리고 교수님들이 계셔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피선거권을 가지고 저희 나이에서 선거에 참여 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나이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한 연륜이나 경험을 같은 정당 내에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고, 저희와 40·50대의견 차이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견을 결의할 때, 각 나이별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국민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서로가 선거 의견을 절충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요, 역시 세대 차이 없앨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에 청소년들은 피선거권을 가지고 행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언론매체에서 보이는 정치인들은 저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당파 싸움이다 아니면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 싶으면 무조건 소리 지르고 보자, 싸우고 보자 이런 것들을 흔히 보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나가면 저 만큼 보다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8. 얼마 전 저희가 민주당사에 방문했잖아요 그 때 어떤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젊은 층과 여성들 위해 당원을 늘리는 것에 회의하고 그것에 대한 안건을 표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선거권 출마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젊은 층에 정치활동 꾀하는지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 분이 이렇게 이야기 하셨듯이 우선 낮춰주면 그 전에 관심두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 전반에 대해 알아가는데 하나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즉, 청소년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것을 찬성합니다.
3. 아까 반대했었는데 문제를 파악을 할 때, 저는 대통령까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제한한다면 국회의원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통령까지 두었을 때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독일의 예를 들었지만... 저 역시 지금 혼란스럽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집단 2의 경우에는 현재 특정 모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의 지식과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피면접자 대부분의 경우 피선거권 연령을 국회의원의 경우라면 청소년 연령까지도 포함하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고 또한 대부분 이와 같은 정치활동에 대해 이미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선거권 연령 인지도 · 확인 안됨
- 피선거권연령 하향 문제 : 찬성입장이 다수이나 경우에 따라 해당되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음

(3) 집단 3

집단 3의 관련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선거인으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연령이 몇 살인지는 아세요?

- 3 · 정확히는 모르는데 되게 높은 걸로..
- 2 · 23세, 25세 아닌가요?
- 4 · 34세.
- 5, 6 · 잘 모르겠어요
- 1 · 30정도?

조사원 : 우리나라 피선거권 연령이 25세부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해외의 경우는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 1 18세요
- 4, 5 글썸요.
- 3 · 되게 어린 분도 많이 봤거든요

조사원 . 우리나라 피선거권의 연령 25세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3 : 아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선거권을 낮추지 못해도 그런 참여가 있다면 이게 바뀌는 점이 많을텐데 그런 면에서도 되게 아쉬움을 느껴요.
- 2 . 전 좀 적당한 것 같은데?
- 1 저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선거권이 만 20세? 선거

권이 만 20세면은? 피선거권이 만 25세잖아요 그럼 5년 차이밖에 안나는데, 그 5년 동안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 20세에서 만 25세기간까지.. 뭐라고 해야하지?

2 그 텅 사이에 적절한..

1 · 네, 그 사이에 얼마큼 성장할 수 있고, 또 얼마큼 정치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4 저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4 · 아니, 25세라고 만약에 그래도요, 23세 정도 된 분이 나도 하고 싶은데 피선거권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신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한 30이 좀 넘어야 나가가지고 될라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4 :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물론 불만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일단 저는 별로 모르겠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딱히 불만을 갖고 높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하시면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5 피선거권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을 해 본적은 없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다른 분들처럼 뭐지? 선거권이 20세고, 피선거권이 25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6 :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3 동시에 주어지는게 오히려, 그러니까 동시에 주어지려면 피선거권의 나이를 미리 낮추는거 보다 선거권이랑 동등하게 시작을 해서 정치교육을 미리 시작을 하는게..

4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다 그냥 연결되는 얘기 같은데,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교육이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야지 아, 우리가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져서 투표를 할 수 있고, 피선거권을 갖고 출마를 할 수 있구나 이런걸 알게되는 것처럼요. 뭐 지금이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어릴 때부터 정치교육을 빨리 시켜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2 저는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선거권도 주어지지 못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도 않았고, 또 청소년이 그만큼 선거에 참여할 기회도 없었는데, 갑자기 피선거권이 생기면 그만큼 악순환이 될것 같아요. 문제가 클 거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청

소년의 나이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처럼 위원회도 있고, 요번에 의회도 새로 생겼지만, 그러면서도 저희들 안에서도 이미 세력적인 그런 다툼이 있는 저희들도요. 보이지 않게 서로 이렇게 견제하려는 것도 있고, 같이 뭉쳐서 뭔가 하려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아적인 크거든요.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그 교육이예요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교육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좀더 있어야지 선거권을 가지고, 또 선거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야지만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6. 선거권이 먼저 주어지고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교육을요 먼저 받지 않고서는 그 피선거권이 주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정이나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5. 피선거권을 낮추려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먼저 시키고, 선거권을 준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집단 3의 경우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연령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피선거권에 대해 관심이 높지 않았음을 나타내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피선거권연령 하향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현재의 연령이 적당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어린 시절부터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권을 부여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선거권은 이후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여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 피선거권 연령 인지도 . 인식 정도 낮음
- 피선거권연령 하향 문제 : 반대 입장이 다수이지만 낮추자는 의견도 있음

(4) 집단 4

피선거권에 대한 집단 4의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피선거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1 피선거권?

3 그러게.

조사원 . 피선거권이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걸 말하지...

1 피선거권 아는 사람 없음..

3 . 저희가 피선거권을요?

5 : 아! 좋다~!

2 . 그건 완전 결사반대..

3 . 그럼 대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는거 너무 부적절해요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어떤 것에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기에.. 피선거권은 무리임.

5 . 왜 좋은데 .. 우리나라 정치의 세대교체가 필요해 지금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소수라고 했지만 소수가 다수를 이끌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좋은것 아닌가

4 . 멋진 말이다

2 대통령은 40~45 세가 딱 좋은데... 그때가 되면 세상이 어떤 것이란 것을 알고, 삶이 어떤 것이란 것을 깨닫지 않을까 우리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생각없이 다른 정치인들에게 휘둘려서 자신의 의견인냥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1 피선거권은 아직 무리 우리가 국회위원 된다는 건데.. 그건 정말 미숙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를 보아도 그렇고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한 지역을 책임진다는 거 너무 무리임.

4 . 고정관념이다.

6 : 적당하기는 .. 그 나이가 적당하다는 건 조금은 그런 것 같아. 이거 이 야기하면서 생각한거지만 내게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피선거권이 주어

진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에만 신경써서 이런거 몰라요. 하지만 우리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어른들이 모르는 게임을 더 많이 알고 있잖아. 이런 학교에서 가르쳐 준거 아니잖아. 안 그래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피선거권,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정치에 관심을 쏟고 소수만 안다고 우리가 이야기 한 것들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터득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해외 청소년들의 선거권 연령이 낮고 우리는 높고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어른들의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지금 번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정말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선거권도 주어지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4. 앞에서 너무 멋지게 말해서 호응은 했지만 젊은 사람도 할 수 있지 여건만 되면 하면 좋지..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교육현실과는 동떨어진 거 아닌가.
- 2 : 대통령이 학생이 되면 뭐가 이상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지 그 때 신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 한 거 봤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수능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기자한테 하더니 하는 말 수능을 보는 이유는 사회에 나가 큰 일꾼이 되려 하는 건데 수능에서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기 보다 사회와 동떨어진 지식을 가르치고 있고, 인성을 가르치기 보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참다운 학생이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 말이 옳은 거잖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싶은 것도 사회에서 일하기 위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그런 건데 지금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사회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국한되어 있고, 개구리가 울 밖을 모르듯이 우리도 그러잖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회에 대해 알려면 교육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 역시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 조사원 : 피선거권 나이는 만 25세는 국회의원 출마권을 갖고, 만 40세 이상이 되면 대통령 후보에 권한을 가지게 되거든. 이런 것을 받을 때, 25세 이상이 정치에 출마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 3 찬성. 왜냐하면 그 때쯤이면 의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아까는 반대했지만. 그들 소수가 다수를 바꿀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면 찬성. 그리고

만 25세면 26~27세 되는 건데 그때 되면 사회에 대해 알고 자신의 재량이 튼튼하겠죠

- 1 · 결사반대
- 2 · 반대.. 아무리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아니 예전에 욕먹었던 김 모 의원 봐.. 아무리 어리다고 다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
- 5 찬성에 올인~!
- 1 · 반대.. 나도 그 김모에 대해 아는데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으나 자신의 의식이 별로 없어서 우왕좌왕 정치관 만들어 놓고, 어디서 70년 세대 정치 해 놓고 갖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김**의원이 지금 정치가 썩었다 하고 떠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25세도 젊은 것 같아요.
- 6 : 반대.
- 3 25살이면. 아직 대학 졸업하지 않을 나이고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알겠고... 정말 참다운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드라마처럼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 5 : 25세 정도면 옳고 그른 일을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
- 2 오호~ 25세.. 25세가 정치에 대해 얼마만큼 알겠어요?
- 4 . 맞아요~!
- 2 아니~ 25세면 공부 기간도 짧을 텐데..
- 6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안다고..
- 1 ·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이제한을 올려야 돼 .
- 5 만 25세 찬성 .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더 어린 연령도 괜찮아요

집단 4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선거권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인지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문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적당하게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대화의 진행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화되는 경우도 다수

이 있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나같이 어린 아이를 뽑아줄까요. 그리고 정말 나는 잘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많이 알고 학식이 뛰어난 아이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몇 명일까요~!

2. 지금 정치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정치인이라면 나 같은 정치인을 인정하지 않을 거고, 내가 되어서 어른들한테 이용당할 거 같아요~!
1. 난 어린... 그런 사람 정치인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 3: 오히려. 그런 엘리트들 보다. 일반 아이들이 정치에 대해 많은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무시당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일반아이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5. 학생들도 일종의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학생, 주민, 서민... 뭐 다 섞어서 같이 보좌관을 하는 거지... 회의를 하고 그럼 더 다양하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서로의 마음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질문에 답이 아닌가요.
- 3: 매력은 있어요~! 하고 싶어요
4. 저도 매력은 있지만 아직 판단력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피선거권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 5 아직 철부지인 우리들인데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 2: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 1: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후보에 오른다면.. 안 되요~!
- 6: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의식만 철저하다면...

집단 5의 경우에는는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인지 정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을 볼 때 피선거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등 이 문제에 대해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령을 낮추어 정치에 참여해보고 싶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청소년 연령에 피선거권 자격을 지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피선거권 연령 인지도 : 확인 안됨.

개념에 대해서는 인식정도 낮음

- 피선거권연령 하향 문제 : 반대 입장이 다수를 차지함

(6) 집단 6

피선거권과 관련된 집단 6의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혹시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연령이 몇 살인지 알고 계시나요?

5 : 20대 정도?

6 : 만 25세.

1 : 그냥 똑같지 않나? 선거권이랑?

2 : 잘 모르겠는데요

4 : 30?

3 : 저두 잘 모르겠어요

조사원 :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른 나라의 피선거권의 연령이 몇 살인지 알고 계세요?

6 : 아시아권은 25세, 독일은 18세?

5 : 미국 그런 나라도 18세 아니예요?

조사원 : 독일은 18세가 맞고, 캐나다도 18세, 중국, 뉴질랜드도 18세, 미국, 일본은 25세.

1 :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정치인 되는 나이예요?

조사원 : 네,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연령.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은 또 다르죠. 그럼 대통령은 몇 살이 되어야 출마가 가능할 것 같아요?

2 : 쯤 많이 알아야 하니까. 50세? 45세?

6 : 40대.

1 : 음, 40대 정도.

5 : 국회의원이 25세니까 30?

조사원 :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 40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25세가 피선거권 연령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1 . 음, 글썄요, 피선거권은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4 . 저도요. 근데, 25세면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4 . 정치를 하려면 좀더 지식이나, 경험을 많이 쌓고, 모랄까 좀더 성숙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1 . 성숙해서 할아버지들 정치 저렇게 하나?
 2 . 아니야, 적당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노인정치 시대를 탈피해야지
 5 . 근데 피선거 연령이 25세라는 것을 너무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1 : 맞아, 뭐냐 그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런 것은 교과서에서부터 달달 외우게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생각도 안 해 봤을 것 같아요..

조사원 : 청소년들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령이 18세 정도로 낮춰지는 것에 대해서 .

- 5 . 저는 괜찮은거 같은데요. 어릴때부터 해봐야, 나중에 더 잘하지 않나?
 1 . 쥘봐야 하지 않나? 그 사람들은 우리 생활을 잘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 생활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참여를 하면 우리 생활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도 공약 같은 것도 제시할 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많이 생각하는 쪽으로 제시하지 않을까요?
 2 . 너무 좀 정책적으로 너무 막하지 않나? 여러 가지 잘 모르니까.. 일단 그... 아니, 그냥 찬성이예요. 생각해보니까. 우선 청소년 노는거나 그런게 썩 그러니까, 그런쪽 생각해주시지 않을까.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공간도 좀더 확보해주고 그러지 않을까..
 3 . 그냥 모, 젊은 세대의 정책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저는 찬성이예요..
 4 . 저는 반대 공약은 잘 세울 것 같은데요, 그 공약을 잘 실천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5 .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찬성! 현실적으로도 같은 입장이나 지금보다 훨씬 더 나올 것 같고, 우선은 잘했듯 못했듯 실질적인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6 . 글썄요, 연령을 낮추는 게 이걸 좋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만일에 국회의원을 해도요, 저는 어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른들도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기울이고

듣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아마 청소년들이 나가면 장난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럴 것 같아요.

- 2 : 맞아요. 정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좀 밀리고 경험도 없어서 좀 나이도 밀리고 그래서 살살 말하니까 피선거권을 줘도 별로 잘될 것 같지 않아요.
- 6 : 청소년이 되면은 집안 같은 걸로 갈라져서, 뭐 학연, 지연 그런 것으로 갈라져서 배척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서는 선거 연령이 낮춰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1 : 정치에 참여하면 많이 배운다고 쳐도, 뇌물 같은 것 받는 것부터, 나쁜 것부터 자기한테 개인적인 이익이 되는 것부터 배울 것 같아요. 계속 정치가 개판이고 정치인들 뇌물만 받고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말 배우면 처음에 욱부터 배운다는 것같이 처음에는 몰라도 좀 하다보면 금방 나쁜 거부터 배울 것 같아요 더 몰들기 쉬우니까. 같이 참여하는 거는 좋은데, 그 뒷사람부터 어떻게 해야 이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3 : 그건 그래요. 공약만 내세우고 우리 세대라서 뽑아주면, 또 금방 뇌물이나 받고, 같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 1 : 그냥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 같아요. 지금이랑 다른 거 없이... 우리 공간도 없고.
- 3 : 그래도 우리가 해보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 6 : 참여하는 것은, 잘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말하는게. 그럼 괜찮은 거 같아요..

집단 6의 경우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논리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점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나타났다. 연령 하향에 대해서 다수는 낮추어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는데, 그럼으로써 무엇인가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의한 문제가 되는 정치의 모습을 청소년들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는 생각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의 장에서 성인들의 힘에 막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힘의 활성화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타냈다. 한편, 지금의 연령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정치인은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식 수준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피선거권 연령 인지도 : 인지도 낮음
- 피선거권연령 하향 문제 찬성이 다수이지만, 더 높이거나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음

(7) 집단 7

피선거권과 관련된 집단 7의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우리나라는 24세부터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24세가 적당한가요?

- 1 : 지금 정치에 대한 인식이.. 안 좋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연륜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의미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20대부터 지금 현재 정치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신선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5 : 저는 좀 다른데요, 근래에 386세대가 대두되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론에 너무 이끌려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또 좋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정치 전

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연령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잖아요. 정치선배들의 의견에 끌려다니는 것도 있고 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3 · 그런데 애초에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가졌던 생각은 내가 이 비뚤어진 세상을 올바르게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을 사람들인데, 왜 5년 후에 10년 후에 당론에 휘말리고 당끼리 싸움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찾는데 급급한 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변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들이 지지해준다거나 뚜렷한 생각이 뒷받침되고 당론에 휘말리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변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한번은 바뀌어야 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진보적인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뒷받침해준다면 보수적인 세력과 충분히 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6 유권자와 젊은 정치인들이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치에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 2 . 24세부터 정치를 해서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키워 연륜이 쌓일수록 좋은 정치방안을 내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4살은 정치를 배워 가는 입장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7 · 저는 정치가 바뀌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세는 좀 어리고 30대 정도도 아무리 개혁을 하자고 해도 연륜 있는 정치인들에 밀려서 그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달리해서 점차 바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대가 좀 지나야 하지 않을까. 연령자체는 24세는 괜찮지만 지금 현재는 20대가 출마하는 것도 회의적이죠.

조사원 · 청소년에게도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면?

- 2 기회가 된다면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 7 저는 사실,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처음부터 정치권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생긴다면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요
- 3 :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정치가 바뀌려면 개혁세력이 필요하잖아요, 주변에서 많은 유권자들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저는 처음부터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치에 대해 판단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한사람의 지지자로서 개혁세력의 주체가 아니라 지지자로서 일을 하다가 당론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면 그때 정치에 직접 나서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조사원 : 아 네... 이후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시점부터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청소년은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 3 그렇죠.. 학생들한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해봤자.. 얼마나.. 뭘 할 수 있겠어요?

집단 7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인지 정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의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 연령으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 발휘의 한계로 인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성인기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한 후 피선거권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 피선거권 연령 인지도 : 인지도 확인되지 않음
- 피선거권연령 하향 문제 : 반대가 다수임

(8) 집단 8

피선거권과 관련된 집단 8의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피선거권이 무엇인지는 아시나요?

3 . 네.

조사원 : 네. 우리나라는 만 25세부터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데 이 연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 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25세는요.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보자면 한 나라 안에서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권위자이면서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 대처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5세는 너무 낮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적어도 서른 이상이어야 하고 서른 다섯. 그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인생에 있어 중반정도의 위치인데 이때는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외면에서나 내면적으로. 그래서 저는 35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2 . 저는요.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제적인 나라경험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당이나 지역구 의원이나 중요한 나라의 일들을 10년은 해야 실제적 경험이나 사고가 일어나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군대 다녀오고 직장생활하면서 사회경험을 하다가 한 40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연령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라면 한... 35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5 . 만 25는 너무 낮은 것 같고요. 최소한 30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조사원 :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5 . 왜냐하면요. 스물 다섯 정도면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해야 할 때이고 연륜 같은 것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세계를 보는 눈이나 정치면에서 넓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스물 다섯 살이면 너무 어리고 정치를 하려면 나라 돌아가는 사정도 알아야 하고 예를 들어 지역구 의원이라

면 뭐가 지역사람들과의 마찰을 없애면서 지역을 잘 이끌어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스물 다섯이 너무 어리면 많이 무시를 당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스물 다섯 정도면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인데 너무 신리적이지 못하고 야망이나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못 볼 수 있으니까 30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1 : 저는 일단 국회의원까지는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이 정도 나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을 토대로 정치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상적이고 열정적이니까 그런 진취적이거나 도전적인 자세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일단 25세는 적당하다고 봐요.

4 : 저는 처음에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생각해 보면 이것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 같은 것들을 많이 따지시는데 저는 나이와 능력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나라가 좀 바뀌는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많이 진급을 하고 의식의 변화가 있듯이 지금도 그런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6 : 네. 저는 충분히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사원 : 그럼 이제.. 청소년을 만약에 나라에서 필요로 한다면 혹시 참여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1,2,3,4,5,6 : 네!!!

조사원 : 모두 다 참여하고 싶으시네요. 그럼 한 분씩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3 : 저는 진짜 하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정말 잘 할 자신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 딱 화가 나요. 내가 하면 정말 잘 할 자신이 있거든요.

2 : 한번 참여해보고 부딪혀 보면서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사원 : 참여할 기회만 있다면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의견들이시네요. 그러면 좀 전에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왜 나이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신 거 같거든요?

3 : 그런데요.. 제가 마음만 앞서긴 하는데요. 우려가 되는거죠 제가 말한 것은 30~35세가 적당하다고 했는데요. 그 나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지

금도 생각을 하지만 . 물론 제가 말한 30~35세는 정말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25세 나이에 있는 사람이 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다면 출마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경험이나 연륜은 따라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 이유는요 그냥 솔직히 제가 참여한다는 것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경험을 해서 참여를 한다면 기회를 준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같은 나이에 비해서 성숙된 사람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리가 제대로 안되긴 하는데...

조사원 : 네.. 정리가 잘 안되신다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던?

3 : 네. 한번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싶어요.

4 : 네. 저는 바로 참여할꺼예요. 제가 제 자신이 능력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신문 같은 것을 보거나 이런저런 곳에서 들어보면요. 깨어있는 청소년들. 저보다 한 두 살은 많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면 진짜 우리의 문제를 좀더 뼈저리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5 : 제가 청소년의 자격으로 만약에 간다면. 제가 17살이잖아요. 17살에 시민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청소년의 입장으로 간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7살의 시민으로 간다는 것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청소년 자리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 : 저도 이 친구랑 같은 생각인데요. 아까 이거랑 저희가 생각이 모순이 되잖아요. 피선거권이 만 25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나이에 반대를 했고 그것보다 한 두살을 높이던가 십 년 이상을 높이던가. 하는 것에 대해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던 당장 국회로 가겠다.. 그것은 정말 많이 모순이 되잖아요. 그걸 봐서는 정말 국회의원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회로 가서 청소년들의 현실이 이렇다. 왜 그거 있잖아요. 하자하자나. 청소년 할인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것처럼 저희도 가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마도 학생들일 것 같아요.

1. 저도요 국회로 간다면요. 뭔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변해주는 건 의서를 제출한다던가 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뛰어난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2. 저도 종합적인 의견인데요. 청소년이 발언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을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제안을 해야한다고 봐요. 교육부 같은 곳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청소년들도 국회 같은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집단 8의 경우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인지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념 자체에 대한 인지 정도는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는 연령 기준을 30-40세 정도로 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가 적당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참여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현실적인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연령 기준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참여 욕구 간에 격차가 존재함으로 알게 되었다. 기회가 주어져 참여하더라도 시민으로서가 아닌 청소년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이 격차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피선거권 연령 인지도 : 인지도 확인되지 않음.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
- 피선거권연령 하향 문제 :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가 적당하다고 하는 의견이 균형을 이룸. 그러나 본인의 참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명함

(9) 집단 9

피선거권과 관련된 집단 9의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우리나라는 피선거권이 만 25세라고 주어진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만 25세가?

- 4 : 하고 싶다거나 그런 의지만 있다면 만 25세부터 괜찮다고 보거든요?
- 2 : 저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솔직히 25살이라는 나이가 크게 인생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력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25살 정도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정치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3 스펴 다섯 살이 되고 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그 집단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극소수만...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연령이 다 중년이상인데 거기서 25살인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못마땅해 하거나 무시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자기가 극복하고 할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 6 . 요즘에는요 예전하고 다르게 한 명의 인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보면 꼭 나이가 그렇게 논란의 여부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한 나라들이 있다면 그 나라의 상황을 알아야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 5 . 25세라는 연령이요. 독일같이 18살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무리인 것 같고요, 스펴 다섯 정도면 걱정한 것 같아요.
- 6 저는 반대의견인데요. 스펴 다섯 살이면요. 아직 군대갔다가 와서 졸업도 안한 나이이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1, 2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솔직히 아무리 정치적으로 머리가 뛰어나고 엘리트이고 리더쉽이 있고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학을 막 졸업하고 정치로 뛰어들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더 많이 배워서 배운 다음에 27세쯤이 되어서야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사원 : 27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네요.

5 . 근데 그전 법이 25세라는 얘기고요, 대부분은 아무리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이에 정치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조사원 : 그렇다면 만약 청소년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져서 청소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6 :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로서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크기는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 저는 청소년들도 그런 기회가 법적으로 주어진다면 출마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이 정말 잘 해낼 수 있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치인들보다 더 잘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 네. 우리 나이에 정치인인 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만큼의 자질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능력도 되고.

6 . 저는 지금 나이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아직 별로 아는 것도 없고요 그 쪽으로는 적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4 : 정치를 한다면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출마해보고도 싶지만 지금 위치나 입장에서는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해요.

3 : 만약에 처음에 청소년들이 그런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나쁜 물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다보면 타락 할 수도 있잖아요.

2 :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아까와는 생각이 틀리게 오히려 저 같으면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특별하게 정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경험에 대한 것들이 없어도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맞춰진 바깥. 어른들에게는 원론적인 이론이어서 답답한 면들도 보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신선한 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른들이랑 생각이 틀려서 어느 부분에는 더 유의할 수 있는 의견들이 많아서 많이 참여는 안 해야겠지만 한 둘 정도는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집단 9의 경우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인지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선거권 연령의 적정 선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험과 객관적 판단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더 낮아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령 기준이 더 낮아져 청소년들도 참여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성장과정상 미숙함을 인정하여 직접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다수 나타내고 있다.

- 피선거권 연령 인지도 : 인지도 확인되지 않음
- 피선거권연령 하향 문제 :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청소년으로서 본인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음

3) 청구권

(1) 집단 1

청구권과 관계된 집단 1의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청소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권리 찾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2 · 인터넷 그런걸로.

3 · 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청와대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학교에

인제 뭐가 왔더라고요. 전보라 그러나요? 약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보면은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이젠 아까 말했듯이 개인적 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막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막 TV 같은 것 보면 좀 재수 없는 학생도 많고,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봐도 진짜 재수 없는 학생도 있고, 재수 없는 선생님이 있듯이 그건 무조건 '선생님만 잘못했다' 이래서 청구하고, '학생만 잘못했다' 그래서 막 청구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솔직히 양쪽이 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 4 그런데 교육 제도가 잘못된 것은 누군가 위에다 청구를 하던가.. 그러니까 민원을 받는데 가서 해야되는데, 구청 그런데 가서 하기도 힘든 거니까, 거기서 실은 어떤 것을 해주는지도 사실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근처에도 기본적으로 한 군데도 없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건의함 같은게 있는데 그런 것을 썼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청소년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백년대계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참 어른들만이 생각하는 것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은 시험도 당장 닦쳐야 되는 것도 우린데 그것도 6개월만에 수능 볼게 바뀌어버리고 이래서 되게 혼란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해야할 시기에 너무 많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것도 힘들고.

조사원 · 현재 가능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청구권 행사 방법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2 그러니까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체벌도 안되고. 하지만 웃긴 게 막상 학생이 신고하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다 알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나? 실제로 신고한 사람이 욕먹은 애도 있고, 맞은 애도 있거든요. 또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들이 말하는 게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한테. 아무리 인터넷이나 그런 게 있어도 결국은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 막상 바꿔봐야지 하지만 졸업 후에는 신경 안 쓰는 애들도 많고 아직까지는 청소년들이 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말한다고 해도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 4 : 정말 제 친구들을 보면은요,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고 3이 기도 하고 그런데, 주로 하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런 것을 말할 기회가 없을뿐더러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공부, 학원에 가야하고, 공부를 해야되고, 수련회 가야되고, 뭐 얼마 안 있으면 중간고사고 얼마 안 있으면 기말고사, 모의고사 그러고 물론 적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중간 중간에 시험도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실은 그런 것을 생각할 틈도, 시간마저도 안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기회도 안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안 다녀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쉽게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학교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도권 학교에 다니면서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나 내가 무얼 하고 싶고,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교육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할 때는 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한고비를 넘어야 다른 고비로 넘어가는데 한 고비도 못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2 : 그리고 만약에 청소년들의 그 말이 반영되었다면 절대 시험 제도가 그렇게 심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4 : 실은 고등학생들이 전체 얼마나 인터넷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인터넷을 하고 있나 보면 실은 한번에 한번도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많아요.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있고, 인터넷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곳에 관심이 있냐? 또 그런 아니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유발하는가 그런 것을 볼 때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 1 : 저는 예전에 두발 자유화 운동 한참 있었을 때, 그런 것을 청와대에 글을 올렸다가 이렇게 말은 자퇴인데 강제적으로 퇴학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공부 그런 거 외적으로 학생회 활동이나 약간 그런 것들에 관심이 약간 지나치다 높다 싶으면은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그런 것들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학생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벗어나고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에는 학교가 너무 제약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뭐 또

이렇게 학생의 말을 들어주거나 다독여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그 학교 안에서 개를 보듬어 가지고 어떻게 키우거나, 여하튼 그것들이 학생들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 시험 제도 같은 게 수시로 바뀌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5년 안에 바꾸겠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제도 자체를 바꾸나갈 생각을 해야되는데, 시험의 방향을 바꿨다고 해서 사실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너무 많은 학생을 억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제도를 안 바꾸고 걸겼데기만 바꾼다고 해서 그 썩어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원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솔직히 그런 것에 막 놀아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나, 이렇게 지금같이 자기 눈앞에 조금 혁신적인 교육부 장관이었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조금 바꾸거나 이런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길게 보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학생 애들이 바보 되는 것은 점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

조사원 : 지금 저희는 청구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 3 인터넷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 중학교 때는 좀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되게 좋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근데 이것은 그냥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학교에서 학생이 받은 대우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첫 번째 학생은 거기서는 막 강제 퇴학당했다 그랬잖아요. 되게 좀 안 좋네요. 마음이.. 그런데 아직은 인터넷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진짜 두 번째 학생이 말했듯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저희 학교는 좋게 끝났으니 망정인데, 그거를 청와대에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냈는데 학교에서 그 학생이 누군지 알거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래서 좀 학생들이 청구권을 제시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 4 : 좀 익명성이 보장된다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어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나 이런 것 같은데 실은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자기

라도 보면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그러니까 아까같은 그런 경우도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분명히 자기도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문제 제기한 것은 어쩌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계속 입막음만 하려고 하는 것도.

조사원 : 그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 4 . 네!

조사원 :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 :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 토론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더 활발해져서 이렇게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자리들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건의함 뭐 이런 것들도 정말 껍데기만 있는게 아니라, 전시용 행정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진짜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의함을 받는 사람들 다같이 이런거 쉬쉬하는 맥락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아무리 건의를 한다 그래도 그게 먹히지를 않죠. 그래도 토론 같은 것을 해서 전교생들한테 다 생중계를 해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얘기가 학교에 대해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과정 중에 학생과의 대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마련되려면 일단 학교의 기득권층인 선생님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조사원 :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안되나요?

1 : 전혀 안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권 학교에 있을 당시에 학생회나 이런 것을 열심히 참여를 했던 편이었고, 그랬는데도 대개 명분만 있는 회의였던 것 같아요.

4 : 거기서도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학생회장을 뽑는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내세운 공약이 축구장, 축구대를 만들겠다 이런 거고 실은 그러니까 나온 후보들도 자신도 어느 정도로 바꿀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공약을 어느 정도까지 내세울 수 있는지도 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회도 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사원 · 다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찾아본다면요?

아까 첫 번째 학생은 청소년들의 주생활 공간인 학교에서 토론 활동이 좀더 활발해 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요?

4 센터 안에 있으면 되게 청소년 활동이 활발해 보여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일단 생각이 들고, 제가 청소년 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그러니까 청소년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1 :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보호원이 있고, 학교안에서도 선생님들 전교조처럼 약간 그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 혼자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단체에서 나서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청소년 단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서로 같이 도와갈 수 있는.

3 : 저도 그건 좋은데.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저는 학교를 예를 들면은 두발 자유, 저는 솔직히 물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생각 안하고 왔는데 나중에는 이해한 게 솔직히 그 나이 때 아니면은 언제 이렇게 배제 받으면서 그렇게 그랬거든요. 솔직히 나이 먹으면 자유가 되는데 이때 아니면 이때 안 하면 또 언제 해봐요?

조사원 · 그런데 생각하기에 지금 두발 자유화를 얘기했는데, 그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당하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3 ·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유희가로 막 나갔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짧은 단발로 자르라고 했대요 그런 것을 보면 그게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잖아요

조사원 : 지금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 : 지금 말하는 게 왜 그럼 그거랑은 별 상관없이 머리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청구권도 피해 학생들 경우에는 그런 것을 청구할까 아니예요.

1 . 학생, 그 청소년 그런 참신한 단체가 밖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학교 안에서는 좀 잘나가고 소위 그런 그룹인 애들이 보통 학생회를 점점 나아가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또 이러면서 차지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대학갈 때 유리하다고 접수를 따려는 이런 애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학교 안에도 되게 그러니까 잘 선생님들도 학생들만 알고 있는 그 알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 단체가 일반 학생들의 성폭행이나, 어떤 문제들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실현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 친구들이 개를 괴롭혔는데 괴롭힘 당한 그 당사자가 어떻게 헤달라고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4 : 방금 드는 생각이 학교에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 말고도 적십자.

3 아람단.

4 : 아 맞아, 아람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학교 안에 직접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든데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시민 단체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 단체에다가 신고하는 것은 별로 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좀더 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지려면, 참여연대 같은 데서 아예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를 부수적으로 열어서 좀 밑에 소속체라고 말해야 되나? 청소년 뭐 감시단이라거나 뭐 그런 것을 그런데서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꺾데기만 있는 청소년 의회며, 감시단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게, 그런데는 좀 가산점 준다고 그런 것들을 공부화하는 그야말로 선생님 말씀에 깜박하는 애들만 온다던가, 혹은 제대로 성향이 있어도 와봤자 자기 얘기 결국은 못하게 되는 이런 꺾데기만 있는 단체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좀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작은 그룹을 거기에서 좀 만들면 그쪽에 학생들이 붙어서 움직이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단 1의 경우 청구권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현재 탈학교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경험 상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이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으로는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도구로 논의되었지만, 이 방법 또한 교사

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의 청소년 청구권에 대한 이해와 인정 없이는 어려울 수 있다는 태도가 나타났다. 청구권을 사용하여도 학교와 다른 제도권으로부터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돌아온다는 실례로 들고 있는데, 이처럼 현재의 성인들은 청소년들의 청구권에 대해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회 등 일정 제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강압적이고 형식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입시 위주의 청소년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구권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안으로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의 구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 청구권 이해 정도 : 양호
- 청구권 실현 방법 : 인터넷, 새로운 단체활동
- 문제점 : 성인이 청소년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2) 집단 2

청구권과 관련된 집단 2의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여러분들끼리 청구권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 있으셨지요? 이런 청구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사를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4.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생각 나는게 있는데 저희가 어제 학생자치위원회에서 학교에 개정안을 냈어요. 교칙에 보시면 학생들의 정치활동이나 정당 활동을 막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누구나 정치 활동을 막는

다고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단체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걸리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가입하게 되면 걸려요 제가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나가자고 하는 건데 막으세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헌법소원을 내셨어요. 민주 노동당 의원님들과 함께 자기 주민등록증 내시고 11번제로 하셨어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실질적인 제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은근한 태클을 걸어놨어요 사회적 제도가 엄연히 있지만 그 아래 있는 제약이 더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아니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없애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없애 주셔야 되요.

조사원 : 여러분들이 어떻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3 : 저는 청소년의 청구권에 대해 활용하지 활용의 하나를 저희 의회라고 보거든요. 전국에 각 학교의 학생들이 의회의 이름을 걸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의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청구권을 내면 합법화하여 의견을 타당성 있게 만들어서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만 국한하지 않고, 분리하자면 어느 정도의 단체 합법성을 띤 단체에서 내면 어느 정도 청소년에게 그것에 관한 것들이 이루어질 거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은근한 태클 거는 것을 보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렇게 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청구를 해 나간다면 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희들의 의식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들의 욕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희 청소년에 관한 정책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조사원 :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청구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내세울 수 있을까요?

- 4 : 학교는 저희의 제2의 생활 터전인데요 학교에는 학교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존재가 유명무실하고, 어떤 학생은 학교에 회장도 모르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거의 회장선거가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뽑는 다라고 보고가 있거든요. 저희 쪽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간선제로 뽑힌 학교는 학생 추천을 각 반의 반장을 내세워 후보로 내세우던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후보를 내셔서 하시는데 성적이 우수한 지,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추천을 하는데 저희가 이걸 국회와 비교를 하면 국회에서는 후보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상관없이 후보를 나갈 수 있게 해 주잖아요 또한, 성적으로 학생

들을 평가하여 추천을 하시는데, 선생님들 의견에 속뜻을 보면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을 잘 따르는 학생들을 뽑아 놓는대요. 하지만 국회는 공부 잘 한 거와 같은 맥락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정치적 의식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회 법제화 추진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법이 있지만 그것들이 유명무실해져 있고, 학교에 법이 있는데 위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3. 저의 의견은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학생의 청구권 어떻게 유명무실하니까 여러 청소년들이 저희 의회를 아시고, 학생의 복지화 추진을 같이 추진하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 8 : 지금도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실제로 아이들 관심이 바닥이에요. 자기가 어디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의 관심이 없는데 그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소년 스스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예~! 그 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은데요 청소년들의 관심도도 문제가 되지요, 그건 저희는 관심이 많아서 하고 있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대학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사회적, 정치적 관심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이 어떤 대학을 가야할지만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청소년 시절의 절풍노도를 겪고 친구끼리의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끝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고 모델링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 수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으니까 너희가 이런 경로가 있으니까 청구해 보고 너희의 권리를 찾아라고 말씀 해 주는 교육이 아직 없기 때문에 대신 너희가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런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두시고 점차적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즉, 교육이 문제인 것인데 교육을 바꾸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의식들을 가르쳐 주어야 저희가 이렇게 내세우는 권리들이 정당화 될 수 있고 저희만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청소년들이 말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조사원 . 일반 친구분들 하고는 청구권에 대해 이야기 안 하나요,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지?

- 2 . 친구들하고 청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어떤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자기들은 이런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하면서 참는 편이고 이런 것에 대해 크게 의식을 하지 않거든요. 앞에 것에 대한 것을 이어서 말하자면요. 저희가 청구권을 어떻게 내세우냐고 하셨잖아요. 의회말고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인터넷으로 부당한 내용들을 글로서 올리고, 메일 보내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의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부당함을 올리는데요. 그건 거의 소수의 의식 있는 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나와서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더 유용하고 자기 소리를 내도 어른들에게 비판을 조금 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사원 :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도 없다면 청구권을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의회에 관한 것 말고..

3 : 그럼, 학생회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2 . 학교에서도 충분히 회의 시간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의견만 잘 내세우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5, 6, 7 : 저도 그래요.

- 4 . 학교로도 충분하지만요. 지금 생각이 난건데요. 예전에 촛불시위 할 때, 전국 민주 고등학교 연합이라해서 전·고·협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시위에 같이 참여하자는 그런 공고가 나서 학생들 참여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기 교육부에서 알고, 그것에 대해 참여하지 못하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만약에 학생들이 참여한다면 그것을 주최하는 <○○○>라는 의원장을 명예 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라고 공문이 학교 측으로 날아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도 즉, 할 수 있는데 제약이 따르거든요. 학교에서 배울 때만, 그리고 교과서에서만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다라고 말만 명시할 뿐 그것에 대해 너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그런 것이 없고, 제약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해야 한다고 느껴야겠죠.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참 힘들죠.

집단 2의 경우 현재 청소년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 매우 구체적인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1과는 달리 청구권 실현의 방법으로 청소년의회활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학교의 법개정, 청구권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교육의 필요성, 학생회 개선 등을 이야기하였다. 인터넷도 거론하였지만 인터넷을 사용한 청구권 실천은 매우 소수의 의식 있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한정하였다. 청구권과 관계된 현실적인 문제점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체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청구권 이해 정도 : 높음
- 청구권 실현 방법 : 청소년의회, 학교 법개정, 청구권 교육, 학생회, 인터넷
- 문제점 : 청소년들의 관심 및 의식이 매우 낮음

(3) 집단 3

청구권과 관련된 집단 3의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자신의 권리 행사가 청구권인데,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1 . 위원회나, 문광부나 이런 소속을 통해서만 할 수 있죠. 이렇게 위원회나 문광부가 형성된다 해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의견이 정부로 들어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청구권이 된다고 생각해요. 조사원 . 그러면 학교에서는 혹시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4 . 외관적으로는 건의함이란게 있기는 한데요 .
- 3 .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옛날 같이 적었던 세대도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도 있고 한데, 충분히 인터넷을 가지고도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건의함이 아니더라도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원 . 그러면 청소년들이 청구권에 대한 인식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 2 :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청구권 아닌가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하지 않아도...
- 3 . 두발제한 운동이나 그런걸 하면서 되게 가까운 분들이 그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운동권 쪽의 일을 한 건 아닌데. 그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대변자 역할을 해서 그 운동을 시작한거긴 한데, 그 전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계기로서 애들이 얘기를 하는걸 보면 자기에 대한 권리를 많이 인식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2 . 학생회애다 건의를 해서 그 학생회가 뭉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또 그 학생회가 점점 더 커져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 3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신문고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더 홍보도 잘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면 우리가 더 오히려 더 도움이.
- 2 . 또 단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낮추자나 뭐, 소리바다, 고슴도치 이렇게 그 청소년들이 뜻이 맞는 청소년들끼리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단체를 만들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 1 . 근데 지금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대로, 학생회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게 점점 더 커져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려면 한 5년?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시에서 중·고등학교 회장단을 다 모아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분명히 학교 공문을 보낼 때도 학생회 그 네트워크를 형

성을 하니까 학생회 임원진을 보내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한 80%는 학생회가 오는데 20%는 그냥 학교에서 놀러 가라고 하니까 가라 그렇게 하니까 별로 학교에서도 안 밀어주고 그러니까 좀 약간은 학생회 네트워크를 행사한다는 건...

- 2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지역에 있는 목소리를 모으려고 위원회가 지역으로 이렇게 퍼진거잖아요. 문화관광부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도단위로 나가서 시단위로 나누고, 그 시단위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저희처럼 저희 시처럼 이렇게 각 학교를 모으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금은 학교에 있는 학생회가 그만큼 힘이 적지만, 그게 좀더 커지면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 5 : 저는 여럿이세요. 일단 뜻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무리 뜻이 같아도, 그 어른들 입장이 있잖아요 어른들 입장이 저희들 입장이랑 많이 다른데요 저희가 아무리 원하는 것들을 말해도 어른들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런식으로 자꾸 하시니까 저희들의 힘이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들의 그 생각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 유도를 해야죠. 저는 고정관념에 쌓인 어른들의 그 의식 자체를 좀 열어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 3 . 그 학생회를 예를 들자면요, 저희 전세대만 해도 학생회가 굉장한 힘을 발휘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때 되게 많이 인제 학생회가 일반적인 학교의 운영에 동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많이 전략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인제 애들이 인식을 못하는 게 더 커서 학생회가 더 힘이 적어지는 거라서 좀더 아이들이 이런 인터뷰나, 아니면 이런 다른 권리에 대한 교육이 조금 늘어난다면 외부에서라도, 학생회도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신문고 같은 것도 그게 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나면, 아무리 어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들어주기만 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을 얻거든요, 그럼 면에서 꼭 시장이 아니라 어떤 각종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오다가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점진적으로 많아진다면 오히려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단 3의 경우 이미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청구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볼 수 있는 청소년 청구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성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고 더불어 학교에서도 이 부분의 청소년 활동에 대해 지원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대안적 방법으로는 위원회 활동의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신문고 이용, 학생회를 통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건의, 다양한 청소년 단체활동 및 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청구권 이해 정도 : 양호
- 청구권 실현 방법 : 위원회, 인터넷, 학생회, 단체활동(네트워크)
- 문제점 : 성인의 고정관념, 학교에서의 낮은 지원

(4) 집단 4

집단 4의 면접 내용 중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너희들이 청구권을 학교에서나 아님 다른 사회 기관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

1 . 학교에서 토요일마다... HR 시간에서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개선하려고 회의를 해요~!

조사원. 그렇구나~! 회의 시간에 무슨 이야기 해?

4 . 전 락 메탈 감상부인데요 여기서는 스타(게임)이야기만 하고..

2 . 넌 자자나..

6 : 에이~ 안 자는데~

1 . 우리 CA이야기 하는거...

1 .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 가지고 와서.

4 . CA는 2주에 한번하나..

1 : 락 듣는거예요..

4 지도교사 인솔하에 .

3 : 피물음악 가지고가면 다들 열광해요.

2 첫째 날은 헤드뱅이 해요~!!

조사원 : 지금 감이 오지 않아 말을 못하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 하면 너희 <청구권>이 뭔지 알어?

1 : 헉... 아까 누나가 설명을 해 줬긴 한데..

6 . 너무 어렵다.

3 솔직히 청구권이란 말 들어보긴 했지만 명확한 정의는 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5 : 이제 생각난다. 사회 시간에 배웠지 ..

조사원 :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교에 너희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

1 :누나 우리가 학교에서 해 낸게 있어요~!

3 . 스쿨...

4 : 스쿨...

5 맞다... 우리 학교 매점에서 스쿨이란 음료수를 팔았는데요... 스쿨이 맛 있는데.. 뉴스에 세균이 많다고 나온 뒤로 우리 학교 매점에서 스쿨을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스쿨을 팔아달라고 항의를 했지요~!

3 . 용기에 문제니까... 용기만 바꾸면 되니까 회사에 전화해서 용기 회사 바꾸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각서 받고 각 반 마다 서명 받고... 문제 없다는 것 발견하고.. 다시 매점에서 스쿨을 팔게 되었지요.

조사원 . 그랬구나... 너희가 학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지... 또 뭐가 있을까...

2 우리 왜 ** 임원후보에 올려줬잖아....

4 . 우리 반에 정말 임원되서 잘 할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장년에 성적이 잘 못 나와서 회장 후보에 올라야 하는데 평균이 1점 모자라는 거

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서명운동해서... 그 아이 회장 후보에 올려주고, 그 아이 당선되서 정말 1학기 동안 개가 정말 열심히 했지요..

6 : 청구권이라.. 두발검사도

조사원 : 만약에 너희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을까?

1 : 우리가 학교 HR시간에 의견을 모아서 반장이 대의원 시간 때 발표하면 학생회장이 이야기를 하지..

2 : 프라이버시지.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거야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지지를 얻는거지요

3 :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면 돼지..

1 :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전달해요.

4 : 데모.

6 : 학생시위!

3 : 서명 운동..

4 : 다 삭발하고 . 데모를 해야지..

6 : 교과서 불지르고.... 항의를 표한다.

1 : 우리 하나 하나가 서명운동을

4 : 머리에 띠 두르고..

6 : 그러다가 학교 학생부 선생님한테 터지고

5 : 나 뎀뎀 어떻게 해?

3 : 서명 운동 밖에 없어요.

6 : 우리가... 정치인으로 나갈 수 밖에.

4 : 횡불시위

3 : 횡불 시위 할 수 있어?

6 : 우리가... 정치인이되서.. 주장하면 안되나..

2 : 인터넷으로 교육 홈페이지에 시위하자~!

3 : 비서가... 우리 학교에 전화 할 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런다고 그 다음에는 담임이 교장한테 혼나고, 담임은 우리 혼내면서 부모님 불러 오라하고.. 완전히 사다리예요~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들어주지 못하는 거 알기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건 국가라고 생각해요~!

6 : 머리 길다고 교문 앞에서 머리 잘리고 교복 똑바로 입지 않는다고

혼나고

- 2 . 하지만 고등학생이니까 공부만 해 이런 건 너무 하지 않나
 6 : 공부가 아님 되나.
 3 . 맞아...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요~! 내가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되니까.
 4 . 앞머리는 눈썹 위까지 두발제한하고.
 6 . 젤 발라서 넘기면 머리 감기고.. 이렇게 우리 내 현실이랍니다.
 1 . 너무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공부 말고는 학생이 할 것이 없다
 3 . 없나?
 4 . 학생이 공부 말고 할거 뭐 있냐? 돈을 벌어도 뭐 제대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1 .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 밖에 안 가르쳐서.
 5 : 입시의 노예..... 입시는 격해.
 4 . 그러면 교육제도가 문제네
 1 : 이 모든 건 교육문제야. 짝~다..
 4 . 그러니깐 처음부터 다 고쳐야되는 구나... 그럼... 연령 낮추면 안돼! 우리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사원 · 너희 같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6 . 입시 밖에 모르는 아이들... 정치와 나의 권리에는 관심없어.
 1 : 학교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하는데...
 2 : 정치인들을 다 싸쓸이하면 해결 될 텐데...
 1 : 청구권을 활용할 방법을 안 가르쳐줘서
 4 . 싸쓸이하면 누가 정치하냐?
 1 . 우리는 의견을 내세우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요~!
 2 . 물갈이란 말이야~!
 2 : 기존에 정치인들 물갈이 해야 돼!
 3 . 앞.뒤 꼭 막힌 녀 물가리라니...
 2 . 기존에 정치인들보단 낫겠지..
 3 . 그냥 조금 바꾸면 돼...
 4 . 새 사람들이라고 뭐 부정부패 없을거 같아~!
 5 . 아까는 늙은 사람이 해야 된다면
 4 . 부정부패 어떻게 해도 생긴다니까?

- 6 · 맞아!
- 2 · 그건 절대 안 될 거 같아요.
- 4 · 법을 세게 해서 돈주다가 걸리면 사형 . 이런 식에 법을 강화해야 해요~!
- 6 · 목민심서를 한 100번 정독 시켜야 돼~!
- 1 · 그것도 좋은 방법
- 4 · 공개 처형 해봐~! 아무도 안 할걸
- 6 :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하면 잘 들어 줄까요?
- 2 : 올바른 의식은 커녕 권력 돈 명예 이런 거만 더 늘어날 뿐...
- 4 :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법의 강제성이..
- 2 . 소비자 고발센터 그거 다 우리의 청구권을 위해 싸워주지는 못해.

집단 4의 경우 청구권에 대한 이해도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을 거치면서 점차 이해도가 증가되기는 하였지만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적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들 또한 그들의 청구권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긴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매점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 음료수를 다시 판매하도록 서명운동하여 목적을 성취한 경우, 능력은 있지만 임원 후보의 자격이 안 되는 동료를 임원후보로 등록하기 위하여 서명을 받고 운동하여 당선시킨 경우 등을 들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의 청구권에 문제가 있는 이유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체계를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였으며, 청구권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도 지적하고 있었다. 청구권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는 HR시간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학생회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교사나 학교에 건의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였는데, 이 외에도 인터넷 활용, 데모, 서명운동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과격한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국 이와 같은 급진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여

도 청소년들 자신의 청구권은 학교, 성인, 국가 등의 강압적 방법에 의하여 제압당하고 말 것이라는 회의론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구권 이해 정도 : 매우 낮음
- 청구권 실현 방법 : 학생회, 인터넷, 시위
- 문제점 : 입시위주 교육체계, 청구권 교육이 없음

(5) 집단 5

집단 5의 청구권과 관계된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청소년에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

- 1 : 두발의 자유화
- 2 : 교복의 자유화.
- 5 . 고등학생은 거의 두발 자유라. 우리 선배들은 우리 춘추복 싫어서 바꿔 달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런 권리들 머리 길이 제한..
- 6 . 우리 교복 그건 키 크고 날씬한 애들이 입어야 이뻐.
- 3 : 80년대 새마을 운동 할 때 , 만들어진 교복이라 실용적이지....
- 2 : 늘 수 있는 권리?
- 1 : 우리가 휴식 할 수 있는...
- 3 : 시험을 폐지 해 달라던가
- 4 비현실적이군.
- 2 : 꿈만 같아요~! 청구권을 내가 쓸 수 있다는게. 즉 비현실적인 거 같아요~!
- 3 : 시험을 폐지하면.. 그건 학생이 해야 될 의무잖아요~!
- 5 . 애들이... 정작 수능은 학생 보는데 그걸 국회나 학교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런걸 청구하고 싶어요~!

- 2 : 근데 학생이 수능에 대해 결정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국회에 나가서 그런 것 결정도 하고 수능 일을 결정하고...
- 3 : 우리들이 수능 날짜라던가. 몇 학년이 수능을 봐야한다던가
- 4 : 수능을 볼 때 조건이라던가.
- 5 : 하긴. 그냥 자기 실력이 된다면 몇 명 학생이 어디 학교에서 봐야 한다던가 이런 건 상관이 없겠지만.
- 4 :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칠게 너무나도 많은데...
- 3 : 대학을 가야... 나의 청구권이 넓어질려나.
- 2 : 방학기간을 우리가 정하는 거. 솔직히 미국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신이 하고 싶은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많잖아~!
- 1 :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정하면 천차만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너희들이 의식하는 편견 같은 것도 있으니까 청구권... 우리의 한계인 거 같아요~!
- 6 : 용기가 없는 거 같아~!
- 3 : 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우리들이... 뭘 이야기하면 공부나 해 하고 말하는 어른들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 4 : 맞아~! 솔직히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마구 따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 5 : 맞아~!만약에 우리가 공부 못하면 학생도 아니고... 공부 안 하면 사람도 아니고..
- 4 : 우린 왜 몸으로 실천을 못하죠?
- 5 : 공부 못 하고 딴 거라도 잘하면. 누구는 일본 가서 성공했다는데....
- 1 : 우리나라는 뭘 해도 영~정치도 엉망이고 정말 싫다.

집단 5의 경우 청소년들의 청구권에 대해 어느 정도는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권을 시행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두발문제부터 입시제도 및 방학제도의 수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여러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용기가 없고 실천을 하지 못하는 자신들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나오기도 하였다. 올바르게 부여되고 있지 못한 청소년 청구권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고정 관념을 지적하고 있다.

- 청구권 이해 정도 : 양호
- 청구권 실현 방법 :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 문제점 : 성인의 고정관념, 용기 없음

(6) 집단 6

청소년의 청구권과 관계된 집단 6의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여러분들 청구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1 : 네, 청구하는 거. 근데 감이 안와.

조사원 : 어떤 게 청구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6 :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거

5 : 오케이. 헌법 소원 그런 거.

3, 5 : 음...

조사원 :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나한테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5 : 그냥 교복, 머리 그런 거 규제 안 했으면 생각은 많이 하는데, 글썩요..

1 : 맞는 것으로만 끝나면 다행이지..권리, 인권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 없어요.. 시험 볼 때나 필요한 말이지.. 답 - 프랑스 인권 선언. 그때 말고 인권은 들어본 적도 없고, 청구권도 시험 볼 때만 필요한 말.

조사원 : 청소년들은 어떤 방식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1, 3, 4 : 우선 인터넷

2 : 음, 나도 인터넷 게시판

5 : 1인 시위

조사원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5. 없죠. 말하면 맞는다니까요

6. 정계 먹거나.

조사원 그러면 학생회 같은 통로로 건의를 하면?

1. 개네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거라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우린 개네 무슨 일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뭐하냐?

6. 교육이요. 그런 정보를 잘 안 알려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전혀 그런 것 모르고 있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경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6. 아무래도 몸을 좀 사릴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런 거 얘기하면 나쁘게만 보니까..

5. 데모.

2. 우선 청소년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EBS에서도 토론이다 모다 그런 거 하는데, 거기서 말할 때는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 아, 우리 문제에 관심이 많구나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데 전혀 달라지는게 없어요. 아예 경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권리라는 것도 학교에서 좀 알려주고, 좀 우리 의견도 눈에 보이게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5.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법이 있다 법만 만들지 말고, 이러한 법이 있다고 학생들한테도 좀 의견도 좀 물어보고 독자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 학교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운영이 아니라 직원처럼 그런 청소년 담당 선생님 같은게 오서 갖고, 좀 우리 권리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7차 교육 과정인데 이중에서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좀 제대로 알게 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좀 잘 알게 우리에 관한 그런 법, 그런거를 좀 자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3. 맞아요, 교육이 문제가 많아요.

집단 6의 경우 청소년들의 청구권에 대한 이해 정도는 어느 정도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청구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시위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들 방법은 어디까지나 고려해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일 뿐 학교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체벌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대신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청구권과 여러 제도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 정보제공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학생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몇몇 학생들의 점수관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더불어 학교에서 인권, 청구권 등 제반 개념들에 대해 들은 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험을 보기 위한 용어일 뿐 실제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 청구권 이해 정도 : 양호
- 청구권 실현 방법 : 인터넷, 시위, 인권교육, 정보제공
- 문제점 : 입시위주의 교육 체계

(7) 집단 7

집단 7의 면접 내용 중 청소년들의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청소년의 경우 크게 그 대상이 학교나 가정 혹은 국가를 상대로도 청구권을 요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예전에 신문기사에 두발문제가 나오고 자신의 자율권을 내세우기 위해

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의견을 모으고 두발자율화를 지지하고 권리를 갖고 싶어해서 국가와 학교를 상대로 인정해달라는 서명서를 제출을 한 것을 본 적 있어요

- 4 : 저희는 학교에다가 그런 거 건의 못하는데요.
- 5 : 솔직히 저희가 알아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 1 : 저희 의견을 모아서 수업을 빼먹고 집회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웃음) 저희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나 모임을 만들어서 그 대표들이 문제에 대해서 전달하는 입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2 : 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많이 쓰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 7 : 정말 잘 생각이 안나요.

집단 7의 경우에는 청소년 청구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구권 행사의 구체적인 대안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면접 당시 담당 교사의 자발적 입회가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일 수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청구권 행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의견 개진과 대변 단체의 구성 및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 청구권 이해 정도 : 양호
- 청구권 실현 방법 : 인터넷, 대변 단체 구성 및 활성화
- 문제점 : 이야기하지 않음

(8) 집단 8

집단 8의 면접 내용 중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뭔지, 어떤 방법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5 청구권을 어디에 행사하는 거예요?

조사원 : 네. 여러분들의 청구권은 작게는 가정, 학교에서 문제의 유형에 따라 국가에까지 행사 할 수 있어요.

3 : 일단 학교에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예를 들면, 파손되거나 수리를 요하는 것들을 적는 칠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반 화장실 옆에 손 건조기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그걸 몇 번에 걸쳐 적었거든요 그래서 장난반 진담반으로 고쳐주지도 않을 끼면서 왜 이런걸 적으라고 해요 라고 적은 적이 있어요.

3 : 진짜 그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일단 선생님들이 저희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긴 한다고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학교 예산문제라던가... 여러 가지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어쨌든 학교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조사원 : 개인적으로 학교를 상대로 하는 청구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느끼시네요.

3 : 네. 전 그렇다고 봐요.

조사원 : 그럼 국가를 상대로는 어떻게 보세요?

3 : 응... 잘 모르겠어요 국가를 상대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2 : 무슨 문제가 있지? 아까 청소년 의회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면 요즘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들끼리 그런 연락책을 만들어서 교환을 하면 더 쉽게 의견이 모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총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저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

를 거쳐 거쳐가면요. 사실상 저희의 의견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생님들의 의견이 같이 섞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느끼는 것들이랑 선생님이 느끼는 것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성부도 대통령 직속 기관이듯이 저희 같은 청소년들도 청소년들만의 부서가 따로 만들어져서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1. 전 TV를 통해 홍보를 하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의 의견들을 저희가 말을 한다고 해서 잘 들어주질 않잖아요. 그런데 매스컴의 힘을 빌리면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서 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의 문제를 알리기에는 매스컴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나올 것 같아요.
2.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국민들의 돈을 빌려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금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청소년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후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단체가 있어야겠죠. 하나로 모아야 하는... 한국 청소년 연합회(?) 이런 이름으로 단체가 만들어져야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겠죠.

집단 8의 경우 청소년 청구권에 대한 이해 정도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의 청소년 청구권에 대해 문제의식이 미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 부분과 관계되어 제시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건의가 대부분 수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안적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한 상호 네트워크의 구축, 관련 청소년 단체 구성, TV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 대통령 직속 전담기관 구성 등을 이야기하였다.

- 청구권 이해 정도 : 양호
- 청구권 실현 방법 :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단체 구성, 매스컴 홍보, 담당 부서 구성
- 문제점 · 학교에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9) 집단 9

집단 9의 면접 내용 중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어떻게 청구권을 행사해볼 수가 있을까요? 청소년의 입장에서...

3 : 어떤 청구권이요?

5 :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이 이 부분을 말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학교의 굵적굵적한 단체가 없잖아요. 그런 단체가 법제화된다면요.. 그냥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법제화가 된다고 하면 만약 그런 단체에 속해 있다면 어른들과도 대등한 위치에서 얘기하는 게 되잖아요. 그냥 학생부 선생님을 만난다면 그 대표가 선생님과 대등한 위치로 의견을 나누게 되고요, 크게 보면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모아서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게 되면 저희들의 문제를 잘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그게 안되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죠.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 저는요... 라디오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청소년의 의견을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문에 기사를 올리거나..

2 : 저는 개인적으로 말고 집단적으로 기사를 올릴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다 보니까 개인의 의견보다는 집단으로 모아서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5 : 저는 약간 그 논제에서 벗어나는데요... 그런 방안들이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선진국과 같은 그런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법제화가 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시간을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요... 교육제도도 역시 그

런 활동을 하는 입장의 애들은 일단 대학하고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질이 충분히 되는 애가 있다고 해도 전교 1등하는 애가 대학에 가는 거만큼 대우를 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 정치활동만 하고 어차피 대학에도 못간다면 애는 그냥 그런 경험을 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실제로 청소년의회활동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다하더라도 그게 보통 학교장 추천으로 어차피 공부 잘 하는 상위권 소수 아이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대학에 더 유리할 수 있는 조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 4 : 이런 청구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 방안은 지방이나 도에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으로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청소년 전용 홈페이지요 그것도 국가에서 직속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바로 볼 수 있게... 대통령이 그런 안건을 보고 몇 달에 한번씩 이야기를 하거나 논문식으로 정리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요.
- 3 : 연합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집단 9의 경우 다른 집단들에서처럼 청구권에 대한 이해 정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 청구권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청소년 청구권의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관련 단체를 전국조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 메스컴 홍보, 교육체계의 선진화,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청소년 전용 홈페이지 구성,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연합체 구성 등이 제시되었다.

- 청구권 이해 정도 : 양호
- 청구권 실현 방법 : 관련단체의 법제화, 매스컴 홍보, 교육체계 선진화, 청소년 전용 홈페이지 구성, 학생-학부모 연합체 구성
- 문제점 : 이야기 하지 않음

4) 책임의식

(1) 집단 1

집단 1의 면접 내용 중 책임의식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여러분들이 보기에 선거권 피선거권, 청구권 이런 시민적 권리가 주어진 시민들의 책임의식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 1 : 근데 함부로 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뭐 18세라고 해서 어느 정도 80% 성숙했고, 15세라고 해서 50% 성숙했다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시민의, 아니, 일반적으로 성인들도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개인 문제라고만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너무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되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잘못되어 갈 수밖에 없는데 언론이나 혹은 좀더 기득권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소시민 개개인한테 그 잘잘못을 다 이렇게 미뤄버리는 그 책임 전가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벌어져서 저는 되게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은 사실은 그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왜 너네는 이거 안 하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은
- 4 . 그 자신이 뽑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실은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좀 놀란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을 보고, 언니, 저희 언니들이 선거할 수 있는 언니들을 보면서 TV 보면서 ‘안 좋다’ ‘잘못됐다’ ‘내가 뽑아 놓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은 그런 것을 다같이 뽑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실은 그게 권리나 책임의식이라고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조사원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 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2. 저는 지극히 낮을 것 같고요.

1. 저는 잠깐만, 아까 얘기 하다만 청소년이건 기성 세대가건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 살고 있는 동네나 집단이던 어디든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그게 반영되었는지를 제대로 알 길이 없고, 실제로 그런 공약 같은 것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 더더욱 얘기할 그런 통로가 없고, 그런 것이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똑같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솔직히 청소년들 기성세대 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2.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책임의식 그런 것은 정말 많이 낮은 것 같아요.

1. 기성 세대를 보면 집안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강말 저 국회의원 어쨌든 데 지금은 저 모양이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들을 보면서, 표출하지 못하는 게 처음에 되게 그게 강했을 것 아니에요. 말하거나 하는 욕구가 근데 계속 그런 것을 눌러오는 과정을 몇 십년 거처오니까 나중에는 집에서 그렇게 뒷담화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자기 안에서 그냥 사그라져서 눌러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은데 사실, 제도권 교육 과정 12년 동안이 내내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의견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 계속 눌러 있는 것이 계속되니까 그 과정의 거의 막바지라고 할 수 있는 18세 이 정도쯤 되면은 별로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자기 할말을 했을 때 인정해 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칭찬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어야지 그런 참여 의식이나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2.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내가 찍을 때는 저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나오

않아요. 최소한 그렇게 표면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표면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집에서 혼자 궁시렁 거리고 그런 것은 개개인의 문제 진짜 문제가 있으면 바꿀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있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개개인이 사람들의 책임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근데 그것을 얘기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기를 너무 오래 거쳐 버려서 이미 그런 실패 의식이나, 패배 의식 같은 것이 너무 강해서.
4.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임을 안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데서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저 사람도 나보다 더 큰 잘못을 했는데,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분명히 저 사람 대표로 나오기로 했으면, 잘해야되는데 근데 잘못된 거 그런 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잘못했으면 그만 두거나 무효화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봤자 들리지도 않을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책임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집단 1의 경우 성인들의 책임의식 정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청소년 자신들의 책임의식 또한 매우 낮은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그 원인을 돌리기보다는 사회적인 측면, 예를 들면 제도적인 문제점 등에 더 많은 원인을 전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 성인의 책임의식 : 낮다고 생각
- 청소년의 책임의식 : 낮다고 생각
- 낮은 이유 : 개인적인 문제보다 사회구조적, 제도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봄

(2) 집단 2

집단 2의 면접 내용 중 책임의식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리에 따른 책임의식이 자연스럽게 수반이 되는데 권리에 따른 책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 일련의 선거권은 권리 행사인데. 의무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라는 것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죄를 저질러도 큰 죄가 아닌 이상은 자신이 죄에 대한 평가를 받기보다 부모님들이 그 죄에 대해 책임지고, 사회에 평가를 받잖아요. 하지만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또한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자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전에 그것에 대해 알고, 명확하게 표명하고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해요.

3 · 권리를 받으면 당연히 져야하는 게 책임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 18세로 하여서 선거권을 받으면 우려가 되는 것이 권리에요. 권리에 따른 책임을 못할까봐 걱정을 해요.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춘 후에 각 후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그들의 의견을 안 후에 분명히 책임 있고, 소신 있게 그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성인들을 비난했던 그런 행동이 모델링 되어 나오지 않았음 해요. 그들이 후보를 뽑아놓고 끝까지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우려가 되네요. 이건 질문에 관한 답이 아닌데 이것을 질문하니깐 생각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학생이 소신을 다 하는 것은 공부라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에게 권리라는 말을 할 수 있게 이 사회가 만들어 주지 않았지만 청소년들 역시 그들의 권리에 대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의식은 당연히 언급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는 것은 공부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맡은 바에 모든 책임 있게 소신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나 성인들에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 5 : 지금 어렵게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슈퍼에서 사탕 하나를 사도 그 사탕 봉지를 쓰레기통에 넣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거든요. 이런 작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8 :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들었지만 권리를 생각하고 나서 금방 잃어버려요 권리에 대해 알리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은 짓밟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권리를 행하고 나서 책임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책임지려고 하는데 미루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 7 : 책임의식이요 학급에서 보면 실장이나 이런 것을 뽑잖아요. 선출해 놓고, 실장을 뽑은 우리한테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책임의식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전교생 서명 운동을 했었는데 그게 학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때 선생님들이 학생회장이 비난을 받았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서명을 해서 권리는 주장했지만 그건 솔직히 학생회장 한 명만 비난받아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안전을 낸 우리도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청소년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인들도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 8 : 저도 앞에 친구와 같은 의견이고요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한 사람의 권리를 만들어주었던 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자신도 같이 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권리가 주어진 그 의원도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쉬운 것들을 있고 살기에 권리에 따른 책임의식에 대해 지금 묻는 것 같고, 우리도 반성하는 것 같아요.
- 6 : 반장 혼자서 책임을 다 지는 경우도 있는데 반장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같이 져야 하는데 같이 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선생님한테나 부모님 그리고 다른 성인들에게 말해서 저희의 권리를 찾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데. 책임은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에서 보면, 타인의 인신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거나 자신들의 정당의 정당성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배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아니 가까운 저희 학교 친구들을 봤을 때요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것을

해 주지 않았을 때 선생님 흠을 보던가 아님 학생회장의 능력 부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걸 잘못이거든요. 성인들이 저희에게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책임을 져야 어른들도 저희에게 권리를 줄 수 있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모두 같이 했지만 소수의 아이들만 나중에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 청소년들의 자각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청소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에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저희도 따라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주절주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가장 우리한테 잘 보이는 정치인들부터 자신의 의식개혁과 정말 올바른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5. 책임도 중요하지만 권리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공할 권리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 대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상관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말을 뱉지 그것에 대해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 2 학교 학생회장을 보면, 자기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학생회장하면서 자신의 대학 입시에 가산 점이 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학생회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분들도 계시요. 그리고 다시 학교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가산점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하는 학생들은 역시나 자신을 지지해 주는 이들이 같은 지역 중학교 학생들이 같은 고등학교 와서 내가 아는 아이인데 공약도 안 보고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이 뽑히면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교는 선생님들이 운영하는데 내가 뭘 하겠냐 명예적인 의미로 하시는 분들도 학교에도 역시나 국회처럼 있는 거 같아요. 아까 교육·교육했는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선거권, 피선거권, 청구권 그리고 지금 책임의식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걸 교과서에서 단순히 배운거라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요즘은 정치·경제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배우지 않아 모를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참여하는 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많은

것을 배웠고 일반 학생들보다 사회적 의식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 해야겠다 이야기를 하면 제 일반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 잘 몰라요. 학급에서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회장 못지 않게 반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권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거든요. 저를 내세우는 것도 있지만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사원 · 우리나라의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3 . 다들 느끼실꺼예요. 하는 사람이나 뽑힌 사람이나 책임의식이 낮다고 생각해요. 다 잘못은 있는데 자기 스스로 공약 내세운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선거임기가 끝나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거.. 한 마디로 해 먹으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전 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유권자들은 왜 자신이 뽑은 사람들이 왜 놀게 놔두고 왜 그들이 국회 가서 싸우게 놔둬요 이걸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당에 인식이나 이런 것만 내세우고 사회 참여의식이 낮아요.
- 4 . 저희가 세금을 내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다가 12월만 되면 멀쩡한 도로를 새로 만들어 주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감사했어요. 우리 국민들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예산을 쓰지 않으면 바로 그 다음에 예산이 자신의 부처에 깎아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금도 조금내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피 땀 흘려서 낸 돈에 대해 중요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 책임의식이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 8 지금 다들 크게만 이야기하는데. 왜 작은 약속 지키지 못하면서 큰 약속을 지키길 바라는지 그것도 문제이거든요 작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큰 약속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작은 약속하나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에 근본 바탕이 깔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작은 책임을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책임부터 지면 지킬 수 있는 거 같아요 작은 실천이 큰 책임을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7 작은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책임의식은 정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길가에 보면 모자 쓰고, 껌 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작은 껌하나 종이

- 에 써서 버리지 못해서 길가에서 자신이 산 300원 켌 때문에 그거에 100배가 되는 돈을 쓰면서 인력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큰 책임을 지겠는가에 대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회적 책임의식을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예인 거 같아요.
6. 어린 아이들 보면 쓰레기 줍고, 오히려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었는데요. 지하철에서 20대 사람들이 노약자석에 앉았어요. 어떤 아이가 큰소리로 저기 앉아도 되는 거냐고 자신의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았고 스스로 깨달았나봐요. 하지만 그렇게 지적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책임의식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보다도 생각을 못하는 거 같아요. 꼬마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알지 못하고, 책임의식에 대해 부족하고, 그리고 저 자신부터 생각을 해 봐야 할 거 같아요.

집단 2의 경우 책임의식은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 매우 낮다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권리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의식도 공부 이외에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빈번하게 책임 회피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성인의 경우에도 전혀 다르지 않은데, 오히려 어떤 경우 성인의 책임의식이 더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단적으로 집단 2의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한국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경향성이라고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인의 책임의식 : 낮다고 생각
- 청소년의 책임의식 : 낮다고 생각
- 낮은 이유 : 사회 전체의 경향성

(3) 집단 3

집단 3의 면접 내용 중 책임의식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우리사람을 보면은 주어진 자신의 권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여러분들이 성인들을 봤을 때?

2 · 높진 않은 것 같아요.

1 · 중하위.

5, 6 · 별로.

4 · 높지 않죠.

조사원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지금까지 얘기한 시민권이 주어지면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1 거의 하위 우선 시민권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선거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선거권이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지금 그냥 저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정치 교육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맨날 보는 TV나 신문을 통해서나, 그것도 안보는 애들도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가서 하는 애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거니까. 재미로 가서. 이거 신기하다 하고 그냥 찍는 거.

2 저도 교육이 없으면,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책임의식이 지금은 낮은 것 같아요.

3 · 당장 내린다면, 당장은 뭐 책임의식이 되게 낮을 것 같은데요 그게 2, 3년이 되면서 지나면서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그 우리 지금 세대들이 만약에 선거 활동을 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책임의식이...

4 일단 2, 3년 정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3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처음에는 책임의식이 낮겠죠. 그러다가 인제 어느 정도 높아진다 싶다가 다시 지금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똑같은 세대가 형성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아 뭐 바뀌보려고 뭔가 앞에서 뭐 꿈지럭 꿈지럭거렸는데, 결국엔 또 똑같은 게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어찌면 계속 상향세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 5 · 지금은 책임의식이 낮다고 보고요, 현재 2, 3년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한 관심이 있던 애들은 나름대로 책임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같이 또래 중에서도요 뭐 놀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 되게 많아요 저희 동네에도. 꽤 많은 애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지켜주시니까 막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피해가 생긴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 많아서요 어렸을 때부터 권리,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6 저도 현재로서는 되게 낮은 것 같아요. 교육, 교육이 교육을 받은, 당장은 안 되고요, 몇 년 후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집단 3의 경우 성인의 책임의식은 대부분이 중하위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등 결코 높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청소년들 자신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도 매우 낮다라고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교육에 두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 성인의 책임의식 : 중하위
- 청소년의 책임의식 : 매우 낮음
- 낮은 이유 : 어린 시절부터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 부재

(4) 집단 4

집단 4의 경우 책임의식과 관련된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권리에 따른 책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 1 · 누나 너무 어렵다.
- 6 · 권리가..주어지는 대신...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하죠.
- 5 · 그런데 우리에게 권리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죠!
- 4 · 슬픔을 참는 방법으로 권리
- 1 · 무조건 공부
- 3 · 어떤 부당한 것을 보고 분노 할 수 없는 고등학생들.
- 4 · 들어주는 것도 없는 어른들.
- 2 · 정답
- 조사원 · 권리에 따른 책임의식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 있니?
- 6 · 네... 책임이라는 게 우리에게 존재하는지는 공부 밖에 몰라요~!
- 3 · 맞아~! 우리가 책임 질 수 있는 건 공부 밖에 없다.
- 2 · 옳은 말씀...
- 조사원 ·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 거 같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 1 · 아주 많은 사람과 아주 적은 사람들이 최대와 최저를 가지고 있고.. 중간이 없는 나라.
- 5 : 책임의식.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 지역구를 담당하면서 책임의식은 눈꼽만큼도 없고.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 절대 지키지 않고.. 사람들 절대 믿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강해지는데..
- 조사원 : 너희들에 책임의식이 있다고 생각해?
- 1 · 책임의식이 뭔지 확실 와 닿지가 안 와요~!
- 5 · 난 없다.
- 6 : 학생은 무조건 공부라는 책임의식만 있다.
- 1 · 그렇지..
- 4 · 알바해도 어른들과 일이 구분되지만... 일은 단순히 나를 위한 거고 어른들 시선에서는 착하게 볼 수 없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만 일하는 줄 알아..
- 6 ·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 4 · 뭐 권리아~ 그냥 공부지. 할 거 공부 뿐이예요~!
- 5 ·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공부 공부 하기는
- 4 · 안 하니깐 문제지...
- 1 · 두발을 학교 규칙에 따라 잘 지켜야해요~! 학교에서 공부시켜주고.. 선생님들이 관리 해주니까 그들의 규칙을 잘 지켜야죠 .

- 3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 4 · 가정에서 한 집안의 아들로 손자로서
- 6 가정에서 3시간 놀라면 10시간 공부해라
- 2 부모님 속 썩이지 않고 학생 신분에게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책임의식 아닐까요. 하지만 나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거죠 학교에서 따르는 규칙을 지키는 게 나의 책임의식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건 달리 보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학생으로 지켜야하는 책임의식은 학교규칙 잘 따르는 건데 모순... 말이 될 거 같아요.
- 5 · 학생으로 책임의식 . 자식으로 책임의식... 그건 착한 학생이 되라는 말 같아요~!
- 3 ·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나의 권리는 머리를 기르는 건데.. 학교에서는 머리 자르라고 하고. 4번 한번 머리 때문에 선생님한테 맞았잖아요~! 공부만 잘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 4 : 아픈 나의 추억을 꺼내다니...

집단 4의 경우 한국사회에서의 책임의식 문제에 대해 잘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두 부류만 존재하지 중간이 없는 사회라고 하는 의식이 표현되었으며, 청소년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이 없다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 편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책임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으로 이들은 현재 청소년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모순된 교육 및 학교 제도를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적으로 권리를 지키자니 학교 교칙을 어기게 되어 결국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반대로 책임을 지키자니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제도적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임은 공부라는 것이다.

- 성인의 책임의식 : 중간이 없음
- 청소년의 책임의식 : 낮다고 생각
- 낮은 이유 : 책임과 권리에 대한 제도적인 모순

(5) 집단 5

집단 5의 면접 내용 중 책임의식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권리에 따른 책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1. 헉~~~

2. 너무 어려워요~!

1. 잘 모르겠어요~!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까지 됐을까요. 서로 미루는 사회라서...

2. 우리 정치경제 선생님 말씀이 우리나라 “내가 먼저.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게 서로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교육도 은연중에 시키는 거라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주국가에 맞게 행동하면서 자율적으로 행동해야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리에 따른 책임의식 너무 어렵지요. 하지만 권리가 주어진다면... 책임을 저야겠죠.

3. 개인적으로 저 자신의 책임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미성년 자라는 것 때문에 책임의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책임의식은 없어요~!

5. 자신에게 권리가 주어졌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의식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6. 책임의식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

4. 어떤 행동이 있던지 간에 그 뒤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3. 필요하죠. 그런 게 없다면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2. 맞다~! 학생이니깐 공부를 해야죠.

3. 책임의식은 많은데, 저는 진~짜 쓰레기는 안 버려요

4 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조사원 우리나라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어느 정도 인 것 같아. 너희는 어떻게 보고 있니?

4 · 책임의식이 각자 작은 거 같아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 이런 것도 많고

5 저는 일본은 책임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닌 거 같아요~ 이것도 책임의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변에 어떤 늙은 사람 있길래 자리를 비켜줬는데 저는 다리 힘이 별로 없어서 버스타면 떨리는데도. 그 늙은 사람 자리 비켜 줬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앉았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거 같아서 말은 못했지만 이런 것도 책임의식 아닌가요~ 어른에게 양보하는 거.

3 · 책임의식이 쉬운 말 같으면서도 어렵고 난해하네요~!

2 책임의식은 평범한 사람은 그냥 세상의 법을 크게 어기지 않을 정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은 안 받을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없는 것 같아요~! 공약만 잔뜩 세워놓고 지켜주지도 못하고...

조사원 : 너희들 각자 이 나라의 시민이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

1 . 네

2 · 네

3 네

4 . 시민이라면.

5 네

6 . 네

1 .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3 : 앞에 친구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학급 회의 시간에 나온 의견들을 자신이 냈어도 책임의 회장이 지는데요~ 그런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할 때 못 지고, 지지 말아야할 때 지는 것 같아요~

4 사람들의 책임의식 당연히 져야하죠 저를 예를 들면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않고. 이런 것도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의식이기에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도 잘 지켜야 하는데 책임의식.. 부족한 것 같아요~!

- 6 책임의식. 지켜야 하고.. 국가가 시민권을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부여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5의 경우 평소에 책임의식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질문 자체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인뿐 만 아니라 청소년의 경우에도 책임의식에 있어서는 모두 낮은 상태라는 태도가 일반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은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한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 성인의 책임의식 : 낮다고 생각
- 청소년의 책임의식 : 낮다고 생각
- 낮은 이유 : 언급하지 않음

(6) 집단 6

집단 6의 경우 책임의식과 관계된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청소년들의 책임의식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두들 . (대답이 없음)

조사원 :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민권을 행사하는 성인들을 볼 때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6 . 우선 성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조사원 . 그럼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주어진다면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가 될꺼라고 생각하세요?

6 · 그거, 저희가 공약 같은 거 세운 거를요 얼마큼 지켜졌는지 감찰을 하고, 그런 기관도 좀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민감하게 책임을 지고 그럴 것 같아요. 어른들보다는.

5 · 음, 어 글썄요.

조사원 · 성인들의 책임의식은 어느 정도 인 것 같아요?

5 ·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사원 · 어떤 면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5 · 자기가 투표를 안한 사람이 대통령이나 그런 게 되었을 때, 자기가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한 거를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니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고, 내가 만약에 뽑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뽑았으면 그만이지 그러거나,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고 넘어가거나..

조사원 ·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참정권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세요? 청소년들의 책임의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5 ·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사원 · 그러면 성인에 비해서는?

5 · 낮을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새로 생긴거니까 시도하고 그럴지 몰라도, 몇 년이 지나고 그러면 귀찮아하고, 일단 현실적으로 그렇게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1 : 그게 하는 애들만 할 것 같아요 자기일 하기에 바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맨날 반장 하는 애들만 반장하고 학생회 하는 애들만 학생회하고, 많은 애들이 개네들한테만 맡기고, 그런 거 보면 별로 관심이 없고, 책임의식이 없을 것 같아요.

조사원 : 그러면 학급에서 반장은 여러분이 선거로 뽑는 것이잖아요? 반장에 대한 책임의식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5 · 전혀 없는데요.

1 · 요즘은 반장 같은 거 귀찮아서도 안 하려 그러고, 책임지는 거 싫어서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애들이야 반장에 대한 책임의식은 더 없겠죠

2 · 요즘은 반장 선거할 때도 안 할러다가 한 번 먹을 거 먹을려고 뽑는다거나 그러는 것 보면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4 그냥 뭔가 한턱을 얻어먹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감 같은 거 참여의식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권, 그런 것도 별로 소용없을 것 같아요 같은 나이니까 더, 뭐 하나 준다면 장난으로 하고 그러면, 선거할 때도 그러면 선거해놓고 나서 책임의식 같은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 3 음, 저도 책임의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미루기만 하고. 그냥 보구 자란 게 그거니까 어른들 하는 거 그대로 할 것 같아요.
- 6 그런 얘기 다 하기 전에 먼저 교육이 제대로 되어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애들이 생각이 없는 게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 같아요.

집단 6의 경우 다른 집단에서와 유사하게 성인들과 청소년 모두 권리에 따른 책임의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경우 그러한 이유들로는 우선 성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책임의식과 관계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

- 성인의 책임의식 : 낮다고 생각
- 청소년의 책임의식 : 낮다고 생각
- 낮은 이유 : 기성세대의 문제점이 전이됨.
책임의식 교육 받지 못함

(7) 집단 7

집단 7의 경우 책임의식과 관계된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책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리에 대해 얼마만큼의 책임의식이 필요한가요?

조사원 . 책임의식이라는 말이 어려우신가요?

학생들. 네

조사원 : 여러분들이 임원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뭔가 하실 말씀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7 . 저는 임기가 이제부터거든요? 이제부터 해 나가려고 하구요. 청소년들이 어떤 권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은 사실 얼마 없는 거 같아요

조사원 . 그럼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책임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7 .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 정말 저조하죠. 책임의식이란 게... 한번 이목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1 . 사회 전반적인 책임의식은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동네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일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결국 다른 문제가 생겨서 시위까지 하고 있는데.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조사원 . 네 사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청소년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2 . 저희는 그렇게 책임질만한 일을 한 일도 별로 없고... 또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요.

조사원 . 잠시만요. 그렇다면 청소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 어... 만약에 반장후보로 나가면서 공약이 있잖아요. 반장이 되려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놓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족한 거죠.

6 . 예를 들겠는데, 반장이 되는 입장에서 입시 때문에 반장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안 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반장이 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꺾이는 것 같아요.

6 .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은 없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도요.

3 . 저 같은 경우도 사회 전반적으로나 저 개인에 있어서나 책임의식이 부족한 편인데... 아까 선거권을 주장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선거권을 얻게 되면서 유권자로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후보가 당선되면 그 후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청소년들이 이 부분

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선거권을 얻게 됨으로서 주어지는 책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봤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따르는 사람이나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의 의무는 얼마나 책임지려 하는지.. 특히 병역의 의무는 누구나 선뜻 진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고 .

2 : 아까 정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뛰어들었고 정치적인 힘은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공약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걸치레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치적 힘이 센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올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은 뒤에 숨겨져 있고... 결과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힘을 쓰는 거 같아요. 그런 것 보면 책임의식이 많이 부족한 거 같다고 생각해요

조사원 : 그럼, 청소년들은요?

2 . 청소년의 경우는 제가 아직 고1이라서 선배님들보다 경험도 적고 임원 활동을 한 기간도 적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반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임원을 하면서 책임감보다는 자기 학업과 대입에 유리하기 위해서 인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나 청소년들이나 책임의식이 약한 거 같아요.

집단 7의 경우 우선 책임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의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 생각들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성인의 책임 의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하기는 하지만 책임을 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는 생각을 나타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대학입시를 들고 있다.

- 성인의 책임의식 : 저조
- 청소년의 책임의식 : 의식 없음
- 낮은 이유 : 청소년의 경우 대학입시

(8) 집단 8

집단 8의 면접 내용 중 책임의식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책임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3 저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국민 수준이요 그런 게 있어요. 길거리에서 제가 껌을 씹었어요 어디다 버려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로 길에 껌을 뱉어 버리는 사람이 적어도 70%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책임의식이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1. 대의원회 같은 걸 하면 학생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항상 보면 건의사항이 있는데 학교에서 불편한 점들에 대해 건의를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건의사항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것도 고쳐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 그런데 그런 건의사항들이 나오는 반면 그것들을 고쳐줬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책임의식을 갖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는지... 그 문제는 별개로 보거든요. 사용하다 망가지면 또 고쳐달라고 하고... 그래서 권리를 누리하고자 하는 욕심은 크지만 책임의식은 별로 없고, 이렇게 고등학교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나라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이번 한번만 자기는 빠져야지. 나하나 썸이야... 이런 생각들이요

1. 수치로 따진다면.. 한 8%정도?

6 저는요.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식에 대한 게... 책임의식에 대한 게 강렬한 사람이 있고요, 너무 없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좀 깨우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일본을 보면요.. 쓰레기를 정말로 안 버려요. 그 모습이 너무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러워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저희가 지금 학생인지라 저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2. 아니. 저는요. 그래도 책임의식이 한 40%는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 책

임 중에 학교에서는 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 교칙을 지키는 사람이 40%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장시키면 적어도 한 30~40%는 될 것 같고, 그렇게까지 낮을 것 같지는 않아요. 조사원 : 그래요. 이걸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청소년이 시민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 1 . 저는 20%정도요. 청소년도 어느 정도는 대중매체를 통하거나 주변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 듣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영향이.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그 영향이 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20%정도만. 전혀 책임이 없지는 않고... 20%정도가...
- 5 저희의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저희 책임을 100% 져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습관적으로 어렸을 적부터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나이 따지지 말고요,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 4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쓰레기는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줄로 알았다가 점점 커가면서 그런 규범은 크게 어겨도 나한테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니까 쉽게 되고 또 쉽게 되고.. 중학교 올라오니까 더 심해져요. 그런 책임의식은 분명히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건데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서 나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오히려 책임지려고 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니까 책임의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책임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옳은 거죠.
- 2 . 청소년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문제에서 빠져도 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 같아요. 청소년의 시민권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져야 하는 책임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건 결국에는 그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집단 8의 경우 성인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사람들만 책임을 잘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이 의식 수준이 낮다라는 견해가 많았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재 교칙을 지키는 학생들이 대략 40%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40% 정도는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청소년은 아

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주어진 책임 중 20%만 지키면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다수는 책임의식이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주어진 책임을 모두 100% 다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 성인의 책임의식 : 낮다고 생각. 10% 미만
- 청소년의 책임의식 : 교칙 준수를 보면 40% 정도는 잘 지킴. 그러나 누구나 100% 책임을 지켜야 함
- 낮은 이유 : 언급하지 않음

(9) 집단 9

집단 9의 면접 내용 중 책임의식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책임의식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 어른들의 책임의식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어느 정도 책임의식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4 . 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비판만 할 줄 알고 비판하고 나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물러나면 자신들이 그 비판만 하고 그 사람들 물러나게 한 다음 그 대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의 대책을 강구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5 : 많이 배웠든지 아니든지 아무튼 고질병인 것 같아요 책임의식이 없는 게 .

4 . 전체적으로 책임의식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공항에서 보면 진짜 비싼 양주나 약물 같은 거 들여와서 걸리고.. 분명히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엄연한 불법인데 ..저는 집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못 된 것이 있다면 제가 말하

는 것도 있거든요 잘못된 것은 말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캠페인이라던가 공익광고라던가.. 책임의식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새마을 운동 같은 식으로

- 6 . 예전에 '이경규가 간다' 그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차선 지키는 거 그때는 잘 되었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캠페인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 6 . 네. 연예인들이 나온다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 2 : 작게 보면 뉴스에서 보면 왜 유아 성폭력 같은 경우가 문제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사람이 여자가 되었던 남자가 되었던지 간에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아이는 자기 얘기를 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 거 볼 때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비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한 짓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범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거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 3 :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요. 정치권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거든요. 그랬더니 국회의원 뺏지를 빼더니 막 화를 냈었거든요. 어느 정도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라는 것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입장이잖아요. 자기들이 법안을 만들어놓고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모습을 보면 정치인들도 책임의식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쓰레기 투기하는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동안을 몰래카메라로 지켜본다면 거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많이 투기하는 모습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지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도 쓰레기를 막 버리는 행동을 하니까요 그런 거 보면 정치인이나 일반인이나 그런 책임의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 1 : 저는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책임의식이 없다는 말을 계속 했었는데요. 저는 그에 반해서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책임의식을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가장이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도 분명히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편파적으로만 본다는 생각이거든요. 정치나 구체적인 것만 보고 책임의식이 없다는 부분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일부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요. 좋은 것은 잘 안보여지잖아요

조사원 네. 그럼 이번에는 청소년 얘기를 해볼까요?

- 2 역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1층에 정수기가 있고 컵들이 한 4~5개씩 있는데 그런 것들 먹고 올려놔야 하는데 저만해도 그 컵을 가져와서 개인용 컵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꺼 아닌데 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4개 컵이 다 없어지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저 뿐만이 아니라 애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다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 3 저는 아직까지 책임의식이 많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없지만 그래도 성인들에 비해서는 아직 배우는 입장에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청소년들도 뉴스나 대중매체에서 보면 연예인을 비방하는 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미로 책임 의식 없이 하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어쨌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집단 9의 경우 대부분의 의견은 성인에 있어 책임의식이 없다 라고 하는 측면이었는데, 가장을 볼 때 책임의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책임의식이 없다는 견해였지만 일부는 그래도 성인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더 책임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나타났다.

- 성인의 책임의식 : 없음. 가장의 경우는 높음
- 청소년의 책임의식 : 없음. 성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음
- 낮은 이유 : 언급하지 않음

5) 시민권 증진 방안

(1) 집단 1

집단 1의 면접 내용 중 시민권 증진 방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여러분들 앞으로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 신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 2 : 그러니까 저는요 체벌은 가능해도 무식하게 때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어떻게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되면 그러니까 최소한 맞는 게 무서워서 말 못하는 상황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할 것 같거든요.
- 1 : 일단은 그 권위적인 태도를 버려서 나와 저 아이가 똑같은 인격체고 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같이 수렴하고 공유해서 같이 발전해 나갈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표화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세를 좀더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1 : 청소년들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거권이나 그런 것을 더 얘기를 하자면 청소년들도 똑같은 국민인 것이고 결국에는 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보호의 대상이라고만 묶어서 그 안에서 가두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약간 자기네들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겠다. 나하고 재하고 똑같은 인격체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4 : 기회를 주고 장을 열어주는 것
- 3 :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전 약간 솔직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들 그런데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동호회하고 막 정모같은 것도 하는데 약간 작게는 그렇게 청소년들이 시작해서 국가나 그런 단체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주면서 해결책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 1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어떻게든 1등인 애 뽑아내가지고, 나머지 떨어뜨리고 그 사람들한테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좀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 3 저는, 어찌면 좀 벗어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선 시민권을 주고 그러는 것보다 이게 1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것도 같은데 안 좋은 것 청소년들 이런 사례가 생겼는데 청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다른 나라 안 좋은 것들 따라하면서, 그런데 약간 문화적으로 너무 개방해서 받아들인다거나, 아무래도 물론 나쁜 것을 잘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약간 좀 어떻게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솔직히 그 뭐 썩고 뭐 어쨌고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청구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그런 문화적 측면에서부터 좀 다루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단 1의 경우 시민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대화 공간 제공 및 증진
- 교사의 열린 자세
- 인격적 존중
- 다양한 기회 제공
- 자발적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 학교에서의 경쟁 조장 방지
- 신중한 문화개방

그러나, 이들 항목들 대부분은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시민권과 직접 관계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의 인권증진과 관계되는 부분이다. 시민권과 인권을 혼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 집단 2

집단 2의 면접 내용 중 시민권 증진 방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조사원 청소년들의 시민권 증진방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4 : 어떠한 정당에서 우리를 존중하겠다는 말로 선거연령을 낮추어 줄 것이다. 말하는데 이걸 낮추어 줄 것이라는 것보다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시민권 증진 방안을 논하기보다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과연 이 일에 대해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 할 수 있는지 앞에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고 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 3 : 책임을 다 하고, 책임 속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대담, 청구권이란 것이 보장받기 전에 여러 단체 장,기관을 통해 시민권 증진을 보장받았음 합니다. 헌법으로는 너희들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요. 학교에 자체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뀌어야 서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8 : 저희는 지금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기에 교복을 입었기에 혜택을 받거든요. 하지만 교복을 입지 않고, 학생증이 없는 아이들은 조그마한 혜택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일하는 것을 착취해가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돈도 조금 밖에 받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바꾸었음 하고요 .
- 4 : 저는 청소년들의 의식이 아직 발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의 권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식이 낮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건 교육이 절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란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집단 2의 경우 시민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스스로 권리와 책임 생각해보는 문제
- 학교 및 관련 단체장들로부터 청소년 시민권 보장받기
- 탈학교 청소년 보호정책 시행
- 시민권에 관한 의식교육 시행

(3) 집단 3

집단 3의 면접 내용 중 시민권 증진 방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청소년 여러분들의 시민권을 증진시켜 주는 방안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2. 선거권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6. 청소년들이요 많은 어른들이나요, 그런 많은 간섭과, 억압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어른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많이 저희가 다른 나라를 보면 자유스럽잖아요, 우선은 편견을 갖지 말고, 청소년들을 많이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무시하지 말고
5.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저희처럼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저희가 중요하게 여겨서 모두 여럿이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우리를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좋은 거를 찾아나가는 것처럼 사회도 학교처럼 저희 의견을 많이 모아서 어른들을 잘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3. 지금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세대 분들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세대간의 그 오해라고 해야되나요?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일단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서 좀더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다양하게 많다면 그런 면에서 얘기가 더 많이 되고, 서로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어느 한쪽에서 계속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중간에 뭔가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서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나야 이런 문제들이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까 다른 분이 말하신 것처럼, 우선은 지금은 약간 좀 힘들긴 해도, 학생회 중심으로 나가면은, 학생회 중심으로 우리가 합해서 나가면은 그 학생회가 점점 더 커지면은 이제 그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4. 일단 지금,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처럼요,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계속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 또 청소년 토론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각지에서 모일 수 있는 워크숍을 열려고 해도, 당장 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을 대부분 보면 청소년 관련 시설에 돈이 있어 두 금방 삭감이 되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투자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에 관한 예산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 육성 개발.

집단 3의 경우 시민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연령에게 선거권 부여
-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의식 개선
- 학생회 활성화
- 세대간 대화 활성화
- 청소년 시민권 연구의 지속
- 청소년 지원 예산 증가

(4) 집단 4

집단 4의 면접 내용 중 시민권 증진 방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우리가 청소년들의 시민권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즉, 앞으로 너희 같은 청소년들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 2 · 우리나라의 의식 교육이 필요함
- 3 · 학교 교육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 찾도록 도와줘야 함.
- 5 · 미국의 교육제도는 들어오면서 왜 그들의 자유로운 학생생활은 들어오지 않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함.
- 6 : 관료주의... 획일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민권이 뭐지... 다들 우리처럼 평범한 학생들은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한꺼번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고 수능이 점차적으로 바뀐 것처럼 교육의식도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2 · 아하~ 학교 법을 바꿀 때,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단 4의 경우 시민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권리에 관한 학교 교육 실시
- 교육제도 수정
- 교칙 재개정 시 학생 참여

(5) 집단 5

집단 5의 면접 내용 중 시민권 증진 방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 3 . 선거권연령 낮추기.. 성공
 2 : 청소년 시설을 늘린다던가 이런 것.
 2 아무튼 우리나라는 학생들을 위한 권리는 없는 것 같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어른이 되어서 의식을 점차 우리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3 : 우리 세대부터는 안되겠지만 교육제도가 바뀌어서 우리들의 인식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5 :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우리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집단 5의 경우 시민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선거연령 하향 조정
- 청소년 시설 증가
- 스스로의 의식 변화
- 교육제도 수정
- 시민권 교육 실시
- 성인의 의식 개혁 위해 관련 사회제도 수정

(6) 집단 6

집단 6의 면접 내용 중 시민권 증진 방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해요.

- 1 일단, 어른들부터 잘했으면 좋겠어요
 2 . 청소년이 잘하는 거, 성공한 거, 모범사례를 보여준다거나 많이 좀 참

여하게 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의견을 내놓고, 청소년 의견을 받아들여주고 그랬으면

4. 청소년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6. 우리에게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이리이러한게 있다 그리고 단체같은 것 있으면 그런 것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창의적 제안' 그런 시간이 1시간씩 있는데 그런 시간에 쓸데없이 비디오나 보고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그런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걸 가르쳐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알려주고 참여를 하게 해야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단 6의 경우 시민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성인의 태도 변화
- 다양한 청소년 의견 수렴 기회 제공 및 정보 제공
- 관련 전문기관 설립
- 참여 및 시민권 교육 실시

(7) 집단 7

집단 7의 면접 내용 중 시민권 증진 방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시민권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해요.

2 : 네 대화로서 문제를 풀 수 있죠.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대화해나가는 것도.... 학교도 작은 사회의 부분이니까.

7 : 저는 학생들이 시민권을 주장할 겨를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불편한지를 겪어봐야 하는데요, 지금은 입시에 매달려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거대한 입시라는 벽에 부딪혀서 . 자기가 겪어봐야지 뭘 주장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마디로 입시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자기의 권리를 주장 할 만한 상황들을 겪을 수 있죠

3. 정부도 공정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시민권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저희가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같은데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인식들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언젠가 시민권이 신장이 될텐데 의식수준이 그에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개인의 의식들이 좀 더 갖춰진 연후에 시민권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집단 7의 경우 시민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교사-학생간 대화 활성화
- 대입제도 개선
- 공정하고 합리적인 청소년 의견 수렴 방안 구성
- 청소년 의식 신장

(8) 집단 8

집단 8의 면접 내용 중 시민권 증진 방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청소년 시민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께요.

- 1 : 저희의 의견을 말해서 들어줄 기관 자체가 없으니까요.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건의를 하고 싶은데 건의를 해야 될 방법 같은 것들을 모르니까요. 정부든 학교에서든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 6 · 112나 119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번호가 있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번호처럼 대통령 산하기관이면 더 좋겠지만 바로 그렇게 정부기관에 바로 연락하고 청소년 문제를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

통 그런 경우는 시민단체 밖에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를 솔직히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 말고 저희들의 의견이나 저희의 피해, 고민같은 것들을 제대로 받아주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전 국민적으로 알 수 있는 번호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봐요.

2. 솔직히 저희 청소년들도 이성문제 뿐만이 아니라 나라 일에도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뭔가 청소년의 의식이 있다는 것을 TV같은 매체를 통해 바로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1 : 저는요. 학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사실 지금은 너무 수업에만 얽매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 듣는 것을 흥미로워 하거든요. 그 강의가요. 학생들이 충분히 흥미를 가질만한 강사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면 솔직히 너무 진부하고 흥미 없는 얘기들 많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교육들이 확대되면 청소년 문제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집단 8의 경우 시민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직속의 청소년 의견 수렴 전담기구 구성
- 청소년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매스컴 홍보
- 청소년에 대한 전문 의식 교육 실시

(9) 집단 9

집단 9의 면접 내용 중 시민권 증진 방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 학교나 가정에서 혹은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나요?

4 저는 정부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가장 해야 할 것은 너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시민권 뭐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일단 해결이 빨리 나는 방향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3. 책임의 문제도 크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권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시민권이 증진될 수 있다고 봐요.
6.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의견을 남들에게 주장하는 방법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tv같은 데서도,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시민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하는 교육을 많이 해서 청소년들의 의식이 많이 깨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집단 9의 경우 시민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의 장기적 관점 필요
- 청소년의 책임의식 증가 필요
- 시민권 교육 실시

3. 청소년의 시민권에 관한 교사의 의식

청소년의 시민권에 관한 교사의 의식은 5개 지역 총 2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총 8개 문항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응답지와 기타 문제가 발생한 응답지를 제외한 총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교사별 응답 내용의 주요 부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질문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분석 본문에서는 문제의 번호만 제시하기로 한다.

1.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 또는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부분과 가장 잘 보장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 각의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주십시오.
3. 청소년들의 선거권 연령은 몇 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권 연령을 법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면 언제(몇 년도) 수정해야 할지 적정한 시기도 적어주십시오.
 4. 청소년들의 피선거권 연령은 몇 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며, 또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선거권 연령을 법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면 언제(몇 년도) 수정해야 할지 적정한 시기도 적어주십시오.
 5. 청소년들이 국가의 교육 및 청소년정책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집단적으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학생들이 학교 교칙의 제정과 시행에 직접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청소년들의 사회적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비교해볼 때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권리와 책임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응답 주요 내용>

교사 1

- 문1)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시민적 권리의 범위도 성인들의 권리 확대와 더불어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문2)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의 사회적 보장은 책임의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는 듯 하나, 선진국 등 외국에 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회 선거로 학교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민주적 방식으로 실시되어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하고 있는 편이다. 가장 잘 보장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체벌문제와 같은 인권 침해소지가 많은 부분으로 아직도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교사의 의식적 측면과 학생들의 수용여부, 제도적 장치의 보완 등의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 문3) 각계의 선거권 연령인하 의견을 고려해 선거연령을 낮추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치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19세로 현행 만 20세에서 1살 낮추기로 했다는 데 대해 환영한다. 최소한 1살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선거연령의 법적인 수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총선(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바로 적용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 문4) 우리 청소년들이 피선거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현재의 만 25세 이전에는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남자의 경우는 병역문제, 취업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피선거권 행사에 여력이 없다는 점이 현실이고, 여성의 경우도 대학 졸업 후 안정적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25세는 넘어야 한다는 점이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거나 향후 피선거권의 연령도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문5) 청소년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적 참여문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비록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많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경험을 했다고 하나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아 자칫 자신의 의견에만 빠지는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다고 여겨져 그릇된 판단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시민사회 단체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봄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가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문6) 현재의 제도로는 미흡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의 직접적 참여는 사회적 성숙도와 교육현실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다만 학교에서 일방적인 결정은 자제되어야 하며, 향후 여러 여건이 성숙된다면 학교 교칙 제정에 학생 대표위원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방향도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문7) 학교 교육도 정치적 민주화에 힘입어 권리가 신장되면서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청소년들도 책임의식도 상당히 느끼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구도는 지나치게 자신의 권리 주장에만 급급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시

사점을 주는지 기성 세대들은 심사숙고 해야함을 뼈저리게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문8) -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 인권, 평화, 환경문제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적극 참여
- 선거권 연령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용
- 입시위주의 교육 수정

교사 2

문1) 청소년은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가치 판단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거나 성인이거나 간에 천부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완전한 시민의 권리인 자유권과 참여권을 모두 보장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는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성인기의 준비라는 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인간적으로 존중받을 권리, 생명을 유지할 권리, 학습할 권리, 또래집단과 어울려 소외 받지 않을 권리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정치 참여권이라든가, 공무 부담권 같은 권리는 상당한 책임을 수반하므로 유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기가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권이 매우 중요한 청소년의 권리라고 본다.

문2) 한국의 청소년들은 인간적으로 존중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 이유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와 물질적 풍요로움의 혜택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정치 참여권이라는 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낙후된 나라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한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학생들 스스로 경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실수 즉 자원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인 교육기간이 길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권은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

- 문3) 한국의 교육과정으로 볼 때, 취직을 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문4) 청소년의 피선거권 연령은 역할이 무엇이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든다면 대통령은 40세, 국회의원과 시도단체장은 30세, 기초단체장 및 시도의원은 25세, 기초의원은 19세가 좋다고 본다.
- 문5)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와 집단적 정책수정요구는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구성원들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국가 교육에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은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학습 기대권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부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교과가 대단히 많아 학생들 스스로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교육의 기본 철학과 교육 평가의 분야에서 학생들의 참여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청소년 정책면에서는 더욱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변인'으로 맴도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문6)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교칙의 제정과 시행에 책임과 의무감을 갖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사의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문7) 한국의 청소년들은 인권적 측면에서 상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하여 한 두 명의 자식을 가진 가정에서 과잉 권리 보호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책임 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저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에 빠져 타인의 권리를 인정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 참여라는 면에서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 되었다고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인들의 경우는 권리는 상당히 누리나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유예기간의 연장현상을 보입니다.
- 문8) 청소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기존의 정책 내지 제도에 반영시키고 참여시킨다면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는 상당히 향상될 것입니다.

교사 3

- 문1)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란 사회의 위해적 요소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신들의 잠재력을 사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자 제공받을 권리라고 생각한다.
- 문2) 사회의 위해적 요소들로부터 보호받는 권리측면에서 볼 때, 왜곡된 정보사회구조는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이 너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적 접근을 통해서 청소년을 위해하는 요소들이 근절되도록 법망이 정비되어야 하겠으며, 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의 개인적 노력이 따르도록 지속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문3) 현행 선거권 연령인 만20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으로써 기성세대의 그릇된 정치판에 휩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아직은 정치적 참여자로서의 판단력이나 비판력 형성이 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문4) 현행 피선거권의 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에 대한 이론은 배울 수 있을지 모르나, 아직 사회에 대한 눈을 뜨는 시간이 필요하고 책임과 도덕성을 겸비한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경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문5) 민주사회의 밑거름인 참여형 정치문화의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지향되어야 하겠지만, 아직은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하고 정신적으로도 덜 성숙된 단계이므로 제한된 범주 내에서의 사회적 참여기회는 주되, 사회적 거름장치가 필요하다.
- 문6) 오늘날의 의사소통구조는 하향식 전달구조에서 상향식 전달구조 또는 쌍방향식 전달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하향식 전달구조에서 일방적으로 지시·강요되던 의사소통구조보다는 학생들의 의사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용해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 문7) 권리에 대한 주장은 강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려는 경향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입시제도를 내에서는 얼마간의 지식은 전수되었는지 몰라도 전인적 교육은 미흡했고, 이러한 사회적 풍토는 배운 것을 개인의 축재와 영달만을 위해 그리고 이기적인 곳에만 활용하도록 조장했기 때문이다

- 문8) -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쇄신
- 각종 정보매체의 위해적 요소들이 차단될 수 있는 제도적 접근 필요
 - 가정, 사회, 국가가 하나가 되어 도덕성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모범을 보여야 함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

교사 4

- 문1)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굳이 청소년을 분리시켜서 다를 필요가 있을까? 다만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인의 입장에서 미숙한 존재로 바라볼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 즉 교육의 자유, 문화적 자유,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등의 모든 면에서의 자유를 누릴 권리라고 생각한다.
- 문2)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설령 그들이 일정 나이(만 18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지만,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인정은 아니라고 본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보호 하에서 제약을 받고 보호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부분은 교육권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부모들이 필사적으로 누리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것도 권리라기 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기 때문에 과잉 보장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잘 보장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정치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정치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 문3) 만 18세
- 문4) 피선거권은 현행대로가 좋다고 생각한다.
- 문5) 당연히 그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므로 청소년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고, 위협의 우려가 없는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라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6) 학교에서는 학생회의에서 결정된 의사를 상당히 존중해주고 있는 경향이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주체도 역시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도 변화한다. 시대에 맞게, 학생들의 변화하는 사고와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태도를 육성시키는 것은 우리 학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문7) 현재는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보며, 권리에 따른 책임은 권리만큼 따라 가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자가 그 책임을 떠맡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 문8) -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증진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그들을 완전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사 5

- 문1)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가 미흡하다고 하여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가 청소년에게는 예외일 수 없다. 자라나는 청소년도 민주 시민으로서 마땅히 인간의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 수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인격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 의무를 다 할 때 청소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의 합리적 이해가 요구된다고 본다.
- 문2)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는 법적으로는 충분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청소년에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위정자들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인격체로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성숙도 없다고 질타하며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행사하기가 너무 이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같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문3) 현대사회의 질적, 양적 발달속도를 고려할 때 만 18세가 적당하다고 본다.

- 문4) 우리와 정서가 비슷한 아시아권의 피선거권의 나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문5) 국가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행정방향을 정할 때는 가능하다면 그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있어 집단적으로 정책의 수정을 요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어찌하랴 성인들이 보여주는 작금의 사태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감수성이 애민한 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할지.
- 문6) 현실적으로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교육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교사, 학생, 학부모 위원회를 조직하여 합의에 의하여 교칙을 제정 및 수정하여야 한다.
- 문7) 한국의 청소년들의 사회적 권리와 사회적 책임은 많이 성숙되어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가일층 노력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야 한다.
- 문8)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기성세대들이 물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우리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가 증진되며 청소년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된다고 본다

교사 6

- 문1) 청소년도 한 명의 학생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이기 때문에 제한 받고 있는 시민적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기표현의 자유입니다 두번째 의사결정의 권리입니다. 국가적인 참정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 문2)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가 거의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위에서 말했듯이 자기표현의 자유나 의사결정 권리에 있어서 그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시민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학교 교육과정이 거의 모두 입시관련으로 짜여져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권리를 교육하는 과정은 전무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문3) 현재 만 20세로 되어 있는데 만 19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신선하고 개혁적 시각을 가진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이전에 법적인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4) 청소년의 피선거권에 대해선 확실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선거권이 보장되는 연령과 같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5) 어떤 정책이든지 해당 당사자를 소외시키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청소년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의견을 가진 다른 청소년과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문6) 당연히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참여하게 이루어진 교칙에 대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잘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7) 20대 80정도로 권리보다는 사회적 책임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숙하지 못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대상으로만 인식되었으며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민적 권리를 통제하며 많은 책임을 요구해 온 것이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문8) - 학생회를 활성화
 - 학생들의 모든 시민적 권리를 희석시키고 대학을 위한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보충수업으로 변질된 특기적성교육과 자율학습 폐지
 - 교육과정에서도 입시관련 교과 일변도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권리를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과정 신설

교사 7

- 문1)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란 준 시민으로서 성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다 폭넓게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에게 규정되어 있는 권리(예를 들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의 권리, 행복추구권 등등)를 여러 상황을 통해 누릴 수 있는(연습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이러한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사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문2)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우리나라 상황은 청소년이 지적인 지식만을 충족시켜나가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정, 학교,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오직 학업이라는 중심 과제만을 가지고 강요되고,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그러나 이것도 다양한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가 아닌 왜곡된 보호라고 생각된다.)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무의식적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단계로 여기고 그들의 의견이나 사회 활동을 간과하고 있다. 청소년은 공부나 해야할 존재로 이외의 다른 활동은 청소년으로서의 역할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대부분 청소년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소수 인정해주는 경우도 사회의 억압인 강요, 감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문3) 만 19세 / 2005년 쯤

문4)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에게 인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문5)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교육이나, 정책들에 대한 이의 제기나 집단적 행동 또한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행동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의 주장의 수용여부는 내용의 타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수용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6) 당연히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가르친다. 민주국가는 바로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의 동의, 합의에 의해 국가는 움직이는 것이다. 학교도 작은 사회로서 그러한 가르침의 민주 원리를 앞장서서 실천해가야 할 조직인 것이다. 독단적인 교칙의 제정, 시행은 학생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교칙 자체에 대한 붕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학교 생활을 하는 운영하는 학교, 그 속에 학생, 학부모가 모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문7) 2.8.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청소년에게 권리라는 개념은 거의 인정되지 않다고 생각되어진다(인정된다고 한다면 공부할 권리정

도???) 청소년들에게 인정되어야 할 다양한 분야에서의 권리는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배제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권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괜히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청소년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탈선한 것으로 권리는 곱지 않게 보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목표만을 가지고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문8) -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 자녀를 단순히 미성년자로 대하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성년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그만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권리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그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인 규정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 8

- 문1) 비록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 속의 한 개체로서 인정받아야 마땅하고 따라서 청소년들에게도 그에 따른 권리가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란 피보호자 입장에서 보호자나 그 밖의 보호자 범주에 있는 기성세대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 문2) 과거에 비해 현재는 조금은 개선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란 한국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소년의 권리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할 부분이 존재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삶의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문3)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성인 기준 나이가 19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선거권 연령도 그 기준에 맞춰 19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의 기준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린 것이라 한다면 당연히 선거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시기 면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여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힌 후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 준비 과정을 거쳐 한 3년 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4) 자신에 대한 책임은 물론 타인의 입장도 고려하고 주변 사회의 여러 문제도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도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피선거권은 적어도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나이인 만 24세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디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문5) 국가의 교육 및 청소년정책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대상이 바로 청소년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 및 정책을 세우고 입안하는데 적용 대상인 이들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의 탁상론적인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집단적으로도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허용 되서는 안되겠지요

문6)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7)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만큼 청소년들의 책임감도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핵가족화에 따른 부모들의 과보호 및 자기 자식만을 위하여 이기주의와 대학진학만을 지상과제로 삼는 교육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8) - 첫째로 성인들의 의식이 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여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로 학교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인성 및 시민의식교육에 매진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권리 및 책임·의무 등을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사 9

- 문1) 공식적으로 우리의 아이들도 헌법과 하위법이 보장하는 시민적 권리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존중받을 권리,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아이들이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정치적 권리, 그리고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휴식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자유 등 유엔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명문화된 법률적 조항의 문제이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문2) 한국의 성인들 혹은 학교 안의 교사들은 청소년들과 관련하여 인권이라는 개념을 쓰기를 두려워합니다. 아직 성인들의 인권도 다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고 보지요. 그들이 인권을 가진 존재라고 특히나 시민적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통제와 관리가 힘들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의무(교육 기본법 제 12조)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문화와 권위주의의 결합체로서의 학교, 질서에 대한 편집증으로 인한 통제기관으로서의 학교, 비인격적인 언어폭력과 체벌, 아이들에 의해 재생산되는 폭력의 장소 학교, 일상화된 검열의 장치로 억압적 요소가 판치는 학교, 배제된 참여로 억눌린 학생 자치의 현장 학교, 학생 징계 절차의 비민주성, 학생 복지와 시설 환경의 낙후성, 학습 부진아의 학습권과 부적응아의 생활권에 대한 무관심 등등 이것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학교의 실태를 놓고 시민적 권리를 논할 수 있을지요? 인권의 사각지대라함은 시민적 권리의 사각지대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지요.
- 문3)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청소년이 성인들이 보기에 미숙하다는 평가를 하지만 의외로 그들은 성인들 이상의 깨끗하고 바람직한 정치 참여에의 열망을 갖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정보와 지식, 판단력에 대한 학습력을 가지고 있다. 성인들

이 갖고 있는 정치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정화력을 일부 지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재직 기간.

- 문4) 선거권의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면 피선거권의 연령이 조정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 23세 정도, 시기적으로 좀 시차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7-8년 이후정도가 어떨까요?
- 문5) 주체로서 참여하게 하고 책임질 기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잘못된 빛나간 교육 정책과 청소년 정책에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문6) 주체의 자리, 주인의 자리, 책임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신중한 선택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얻어지는 것인지를 통해 그들은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의 제 규정은 그들의 것이어야 하고 그들이 가장 큰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문7) 사실 아이들이 권리 행사 능력이 이미 충분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일대로 수동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사회가 부정하고 학교가 억압하며 아이들 스스로도 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권리 행사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권리행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8) - 일단은 의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리라 봅니다 청소년에게서 통제의 개념인 학생이라는 입시생이라는 명예를 벗겨내야 할 것입니다.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당당한 주체자라는 인식, 학생이 아닌 인간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고 맡겨주어서 일상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결정에 그들이 참여하여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구조와 제도적 측면을 보완하여 자치의 힘을 기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교사 10

- 문1)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란 청소년 또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회 세력으로 간주하면서 그들 또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참정권, 사회권, 청원권, 자유권 등을 말한다.
- 문2)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는 이제 싹을 틔우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었고,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교육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학생이다. 입시에 매달려야 하는 교육현실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교육현장에서 자유롭게 청소년들이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고 해결하기는 힘들었다.
- 문3) 아직은 종전대로 만 20세가 되어야만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단 학교가 입시에서 더욱 자유로워지고 학생자치회가 활성화되면서 권리에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은 학교에서 충분히 경험한 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것은 고려해 볼직하다. 아직은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다음 총선이 있는 2009년 정도에 수정을 고려해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 문4)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에 출마 가능한 연령을 25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는 공동체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것 외에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 만큼, 당면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직시하는 시각도 필요하지만 이해가 상충하는 집단과 더불어 조절하며, 화합하는 넉넉한 심성도 필요하다. 20대는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 따라서 피선거권은 어느 정도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난 개인적으로 30세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정한다면 시기도 2009년 정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 문5)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사고와 행동에 즉흥적이고, 또래 의식이 강하여 선동적인 군중심리에 약한 면이 있다. 얼마전 청소년들이 두발 자유화를 외치면서 인터넷 서명운동을 전개한 적도 있었다.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건강하게 과격해지지 않고 기성세대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한다.

- 문6)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긍정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규정은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므로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학생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상식의 범위에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학생들이 교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교칙의 제정과 시행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문7)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회적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은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학비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자기가 벌어서 충당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부모의 감시에 가까운 극진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면서 주장은 강하고 책임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 문8) - 먼저 도덕교과와 사회교과의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면 좋겠다.
- 둘째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서 노력하는 일이다. 학생들을 규율하고 강제하는 교육에서 자율성과 책임성, 도덕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변해야겠다.
- 셋째,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학생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신들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훈련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신장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교사들의 응답 내용을 종합해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시민권 개념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 및 이해 정도에 대한 것인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시민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만이 시민권 개념을 정치 참정권의 의미로 이해하였으며 대부분은 일반적인 인권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시민권 보장 정도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교사가 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이 안되어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청소년들의 시민권이 제약 당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지금까지의 한국적 상황을 볼 때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불어 청소년기는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숙의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를 지닌 시민적 존재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만 18세나 19세로 조정하는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사회 및 가치관의 변화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현재의 선거연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며,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는 만 24, 25세가 다수였는데, 소수이지만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3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청소년의 집단적 청구권 발동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단, 과격한 행위의 발동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청소년들의 교칙제정 참여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청소년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 때 교사, 학부모 등의 동시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 계층의 권리와 책임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책임이 권리보다 더 많이 강요되었다고 하는 측면에 다수가 동의하였는데, 소수는 청소년들에게 지금까지 권리가 부

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또한 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시민권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된 사항들 중 관계되는 사항만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시민권 교육 실시, 강화
- 학생회활동 활성화
-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인식 전환
- 청소년의 학교 참여 제도 구성
- 입시 위주 교육 제도 수정
- 청소년의 의견 적극 수렴
- 청소년의 다양한 단체 활동 지원

4. 소결

지금까지의 면접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시민권에 대한 청소년 자신들과 교사들의 이해 정도에 대한 사항이다.

청소년 및 교사 모두 시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소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을 주로 나타냈다. 이 부분은 연구 초기부터 가정되었던 사실인데, 그만큼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법적 권리의 측면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시민권에 대해 정치적 권리인 선거권, 피선거권, 청구권 등의 의미가 아닌 일반적 인권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에도 질문지 작성이 한 편의 논문을 쓰는 것 같이 어려웠다고 하는 응답을 현지 면접을 통해 표현하는 등 본 개념에 대해 이전에 생

각해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선거권 연령 문제에 대한 사항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선거연령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적었으며,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성숙, 경험 부족, 지식 부족 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 대학교 3-4학년 연령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재 청소년 정책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가 다소 상이한 의견으로 구분되었는데,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만18세 정도로 낮추는데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타 청소년 집단에서는 연령 하향 조정 못지 않게 현 상태 유지 및 상향 조정도 다수 나타났다. 상향 조정의 경우는 고등학생 및 대학교 저학년들은 아직도 객관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실제로 피면접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청소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며, 심지어 유행에 따라 투표할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교사의 경우에도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와 현행 유지 및 상향 조정의 경우가 적절히 조합되어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의 경우보다는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시민권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뒷받침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청소년들의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사항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대다수가 그들의 미성숙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현재 연령으로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선거권 연령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경우는 소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연령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본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선거권을 사용하여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희망사항과 현실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교사들의 경우에는 다수가 현재의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선거권 연령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은 소수의 견해였다.

넷째, 청소년들의 청구권에 대한 사항이다.

청구권에 대해 청소년들은 대부분 높지 않은 이해도를 보였다. 그러나, 점차 이해도가 증가되면서 청구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해 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청구권의 사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이나 여타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사항에 대해 요구한 경우에도 결국은 성인에 의한 강압에 의하여 요구사항을 철회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들의 청구권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교사의 경우에도 원론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교칙제정이나 여타 국가의 청소년 정책에 있어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청소년들만이 주도가 되어 규칙을 구성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다수 나타내고 있었다. 결국 교사들도 이 부분에 있어 입시를 중심으로 한 공부를 주로 해야만 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책임의식에 관한 사항이다.

청소년들이 보는 한국 성인의 책임의식은 매우 낮은 상태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자신의 책임의식 또한 매우 낮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유는 대입위주의 교육제도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지만, 일견에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청소년들의 책임은 논할 수도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교사들에게서도 공유되고 있었는데, 교사들은 많은 경우 한국 청소년들에게 권리보다는 책임이 더 많이 주어져 있다고 보았으며, 그 원인으로서는 대입위주의 교육정책을 들었다. 공히 두 집단 모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더불어 시민권에 대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사항이다.

청소년이 주장하는 대안과 교사가 주장하는 대안은 대부분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민권과 관련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방안

- 정부의 장기적 관점 필요
- 대통령 직속의 청소년 의견 수렴 전담기구 구성
- 청소년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메스컴 홍보
- 교사-학생간 대화 활성화
- 세대간 대화 활성화
- 대입제도 개선
- 참여 및 시민권 교육 실시
- 선거연령 하향 조정
- 청소년 시설 증가
- 교칙 재개정 시 학생 참여
-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의식 개선
- 학생회 활성화
- 청소년 시민권 연구의 지속

- 청소년 지원 예산 증가
- 탈학교 청소년 보호정책 시행
- 자발적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교사의 방안

- 시민권 교육 실시, 강화
- 학생회활동 활성화
-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인식 전환
- 청소년의 학교 참여 제도 구성
- 입시 위주 교육 제도 수정
- 청소년의 의견 적극 수렴
- 청소년의 다양한 단체 활동 지원

공 백

VI. 청소년의 시민적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공 백

VI.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출생과 더불어 소속 공동체와 맺게 되는 일종의 계약관계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국가는 개인에게, 개인은 국가에게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 계약관계의 기본인데, 개인이 국가의 유지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 대신 국가는 개인에게 공동체 내의 삶에서 유효한 일종의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권리의 현대적 개념이 바로 시민권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이미 시민권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다만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에 대한 위해성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같은 공동체는 청소년들이 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평가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잠시 그 효력의 작용을 보류하게 되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민권 구성요소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에 대해 청소년 계층에 있어서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선거권은 만 20세,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의 경우 만 2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거권 연령을 대학교 1학년 연령인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입장을 대변하는 청소년 및 성인 단체들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선거권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보다 하향 조정하여도 된다고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각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이 연령을 상이하게 결정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사회에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당

사자인 청소년들에 대해 직접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봄으로써 선거 및 피선거연령의 적절한 기준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직업군인 교사들의 생각도 확인해봄으로써 이 논의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결론을 얻고자 하였다. 물론 이를 위해 서구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알아본 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해당 국가의 순수한 내적 상황 특성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바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외국 사례 연구는 이러한 의미를 재차 확인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였다.

이상의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사회에서의 향후 가능할 수 있는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들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들이 구성되어졌다. 다음에 제시할 모든 정책적 대안들의 전제 조건은 청소년들과 교사 집단 모두에서 주장되었던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막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입시 위주의 공리주의적 교육 가치관 및 교육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의 수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떠한 청소년 시민권 증진 정책이 구성되고 실현된다고 하여도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시민권 상황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첫째, 청소년의 시민권 전반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한 것으로서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민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의미는 무엇인지,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이 홍보정책의 목적은 청소년 의식의 변화뿐 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성인의 의식 변화에도 주어질 것이다.

둘째, 학교 영역을 통해서도 시민권 교육을 교과과정에 보다 명확하고 비중 있는 차원으로 위치시키고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과목을 통한 교육을 바탕으로 그나마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현재의 선거권 연령을 입법 예고된 만 19세가 아닌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및 교사들 모두 청소년의 미약한 책임의식, 관심 부재, 경험 부족 등과 같은 미성숙의 생물학적 위치를 인정하였다. 더욱이, 대입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고3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유행성에 의해 선거가 이루어지는 포퓰리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청소년 및 사회의 성숙도 변화를 지켜보고 난 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권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넷째, 피선거권 연령 또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당분간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조기 시민권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의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약 10여 년의 경과를 두고 이후 당시의 사회적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청소년들조차 오히려 연령 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발적 참여와 관계된 선진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교칙의 재개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조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청소년 의견이 관련 국가 정책의 구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등과 같은 대표기구를 활용한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 토론회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청소년이 개별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인터넷, 건의함 등의 매체를 통한 청구권 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절한 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대학입학과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한시적이거나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청소년 의견수렴 및 권리 증진을 위한 국무총리 직속 전담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생회 활동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열 번째, 국가에서 담당하는 시민권 교육 이수과정을 개설하여 과정을 마친 청소년의 경우 국가 공인 성인증을 발급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 기준이 관례를 거치는 시점이었다. 이는 특정 연령이 되면 권리나 책임의식의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성인이 되는 현대적 성인식과는 달리 과정을 결과와 더불어 중요시하며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근본적 의미에서의 통과의례였다. 내면적 성숙과 관계없이 외형적 발달만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내면적인 책임의식을 함양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정책들 이외에도 앞서 청소년 및 교사들이 언급한 다양한 정책들과 외국의 사례 등이 폭넓게 청

소년의 시민권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무슨 정책을 구성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으며, 이들 정책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주어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교육전략21(2003). 청소년관계 법제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 교육전략 21.
- 길은배·정희욱·김정래(2000).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조사 연구. 연구보고 00-R 03. 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이용교·김영지(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 01-R 42.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민(2002).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평가와 반성. 오늘의 청소년. 5월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김영은(2002). 청소년과 관련된 일들은 함께 논의했으면. 한겨레신문 9월21일자.
- 김영지(1998). 외국의 청소년 참여 동향과 우리의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재선(2002). 만 18세에도 선거권 보장해야. 연합뉴스.
-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논의. 아동권리연구 제4권 제1호.
- 김정주·임지연·구도완(2002).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02-R 04. 한국청소년개발원.
-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준비위원회(2003). 청소년의 참여증진·권리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구성 왜, 어떻게?」.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준비위원회.
- 문화관광부(1998). 새로운 청소년헌장 이야기.
- 배경내(1998).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동인(1992) 시민사회의 개념: 사상사적 접근, 한국사회학회·한국

- 정치학회 공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울
- 서용석·박철현 역(1997). 시민권과 자본주의. 서울:일신사.
- 아동단체협의회(2000). 한국아동현황 보고서.
- 안천(2003). 민족전통의 사회과 가리사니 평가철학의 탐색. *사회
과교육* 제42권 2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1995).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에 따른 민간 단체보고서.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유네스코와 세
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서울 : 오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1997).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오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1997). 인권이란 무엇인가. 서울 : 오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역(2000). 아시아의 인권교육. 서울 : 사람
생각.
- 윤용태(2002). 일부 대학생들 선거권 없어 논란. 오마이뉴스. 6월
2일자.
- 이기범(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2차 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2호.
- 이동연(2002). 청소년에게도 정치참여 기회를. 한국일보 6월11일자.
- 이배근 외(1997).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
특별위원회.
-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권,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7호.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용교(1999).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용교·이희길 역(1997). 인권교육의 기법. 서울 : 인간과 복지.
- 이용교·이희길(1997). 한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의 모색.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이원경(2001) 청소년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정책 방향.
- 이재연(1997). 각 나라의 아동권리 협약 실천 상황.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길잡이. 서울 · 사람생각.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2000). 깨어나 일어나-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이야기. 서울 : 사람생각.
- 전명기(1993). 청소년 보호육성, 구체적 집행력과 주체적 시민참여. 손봉호 외. 청소년 보호육성 시민운동 사례집.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명기(1994). 청소년정책 입안을 위한 고려요소. *한국청소년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명기(1997).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참여 확대와 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태수(1991). 아동의 권리협약-청소년의 권리. 서울 : 예지각.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1997).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서울 : 참여연대.
- 천정웅·김영지·임지연(1997). 지방 청소년정책 사업강화를 위한 청소년참여 증대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7-02. 한국청소년개발원.
- 천정웅·김영지·임지연(1997).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 연구보고서 97-03.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대책. 서울 · 청소년보호위원회.

- 최윤진 편저(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 양서원.
 한국인권재단(2000). 21세기의 인권. 서울 : 한길사.
 한상범(1991). 인권. 서울 · 교육과학사.
 한상진(1998).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 나남출판.
 한상철(2002). 한국의 청소년 육성정책의 문제진단과 분석. 오늘의
 청소년. 6월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황성기(1994).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KBS 1 길종섭의 쟁점토론. 선거연령 하향화 찬반논쟁.

KBS 1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개최 및 운영 계획서.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사업계획서.

Ellefsen, B., Hamel, J., Wilkins, M.(1999). La citoyenneté et le
 droit de cité des jeunes. Sociologie et sociétés,
 vol XXXI, no 2.

<http://100.empas.com>

<http://archive.aclu.org/students/sybil.html>

<http://chartist18.sp.or.kr>

[http://lessites.service-public.fr/cgi-bin/annusite/annusite.fcgi/nat
 6?lang=fr&orga=342](http://lessites.service-public.fr/cgi-bin/annusite/annusite.fcgi/nat6?lang=fr&orga=342)

<http://www.apcej.com/>

<http://www.asfar.org/papers/voting.php>

[http://www.city.hiratsuka.kanagawa.jp/press/2002pres/0210200a.
 htm](http://www.city.hiratsuka.kanagawa.jp/press/2002pres/0210200a.htm)

<http://www.downage.net>

<http://www.drdjs-centre.jeunesse-sports.gouv.fr/texte.php?ID2=125>

http://www.freechild.org/youth_rights_main_page.htm

<http://www.glaj-vd.ch/GLAJ/presentation.html>

<http://www.idoo.net>

<http://www.nydic.org/nydic/>

<http://www.oblivion.net/youthspeak/>

http://www.pref.okayama.jp/kyoiku/sido/hs_gikai/proposal_kuras_hiki.html

<http://www.seikatubunka.metro.tokyo.jp/index9.files/inv7/inv7.htm>

<http://www.snj.lu/intro2.asp>

<http://www.unesco.or.kr/hrtreaty/>

<http://www.wcyunited.org/english.htm>

<http://www.wojuin.org>

<http://www.youthplanet.org/fr/org/>

<http://www.youthrights.org/>

<http://www.zelector-mjc.org/index.html>

◆ 연구자문진 ◆

길은배(한국청소년개발원)
문성호(중앙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형신(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전성민(미지센터 소장)
조혜영(한국청소년개발원)

◆ 의견조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공주사대부속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면목고등학교
문화관광부 청소년 위원회
백암고등학교
북평고등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전북과학고등학교
정명고등학교
청소년 의회
포항고등학교
하자센터
혜원여자고등학교

◆ 연구집필 ◆

최원기 1장, 2장, 5장, 6장
전명기 2장
이주연 3장, 4장

공 백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구정화)
-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김선아)
-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조아미·
백지숙·유혜림)
-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유승호)
-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김용대·성기원)
-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권태희)
-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전명기·이주연)
-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노재봉)
-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임영식·이진숙)
-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문성호)
-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김은경·김형주)
-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이용교·김형주)

- 03-R14 청소년 정보소외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남경희)
- 03-R17 가족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중·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매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박효정·현주)
- 03-R40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김상호·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이금순·이우영·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김진호·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한만길·최영표·강영혜·오해섭·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조혜영·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김진호·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이경상·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읽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현)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윤철경·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종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연구보고 03-R 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

인 쇄 2003년 12월 15일

발 행 2003년 12월 15일

발 행 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 권 이 중

등 록 :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 (주)계문사 TEL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2)2188-8877(자료실)

ISBN 89-7816-460-9(93330)

공 백

연구보고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최 원기(연구위원)

객원연구원 : 전 명기(나사렛대)

위촉연구원 : 이 주연(숙명여대)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 연구 요약 】

시민권이라 함은 본질적으로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개념이지만, 그 의미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려해볼 때 18세기 후반 이후 근대적 개념의 의미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에 대한 청구권과 참정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범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민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http://100.empas.com>).

시민권의 이와 같은 개념적 의미 변화에 따라 귀족계급과 남성에게 대비되는 사회적 계급 또는 계층으로서 일반 시민 및 여성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국가에 대한 청구권 등이 점차 신장되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형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들의 시민권이 모든 시민적 권리의 영역에 있어 중심적 위치로 이동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보면 시민적 권리가 선진화된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사회적 소수 계층의 사회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시민적 권리의 확충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적 권리 증진을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정책의 구성과 실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계층의 경우에는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그로 인한 무한 경쟁의 결과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들의 시민적 권리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의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등 이점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도에 조사된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연구' 보고서(길은배, 정회욱, 김정래. 2000)에 의하면 이 부분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데,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청소년들 스스로에 의해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조사결과는 그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상기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반적 권리만을 물어보았을 뿐 시민권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의 영역에서의 선거권(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었음), 피선거권, 국가에 대한 청구권 등은 미미하거나 제외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 부분을 강화·포함시켜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에 대해 심층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실질적으로 그 부정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보여주었던 청소년 계층의 새로운 역동적 역량의 모습은 1999년도보다는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의 시민적 권리를 증진시켜줄 수 있는 토대의 국가·사회적 제공은 아직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 증진 방안에 대해 이론적 논의, 사례연구, 면접조사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현실적 정책 제안들로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공동체에 소속되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집단과 개별 구성원들간의 상호 보조적인 계약적 관계로서 의무와 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동체간에도 각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들간의 시민권에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시민권과 미국인들의 시민권간에 내용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현대적 의미-기본적으로는 의무와 권리로 대변되는 국가와의 계약관계-에서의 시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국가를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들 또는 정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유엔 인권선언이나 기타 관련 제도들에서 볼 수 있는 각종 기본 자유의 보장에 대한 내용들도 결국 이러한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틀 내에서의 본질적 자유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인권선언에서 거론하고 있는 인간 자유의 본질은 국가나 여타 인위적 경계에 국한됨 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받아야만 하는 천부적 인권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시민권의 기본 토대로서의 자유는 소속 공동체 또는 국가의 유지와 존속, 발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 해야만 하는 의무 부분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질적 의미로서의 시민권이란 공동체라고 하는 제한성 내에서 보장

받게 되는 선거권, 피선거권, 청구권 등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그들에게 적용되는 시민권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국가라고 하는 현대적 거대 공동체의 기본 원리가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 어느 것이든 간에 국가의 구성원으로 출생한 이상 출생과 더불어 그들의 시민권 또한 부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단, 공동체의 법적 체계가 허용하는 시기까지 그들의 시민권 중 일부는 잠정적으로 유보되어지는 것 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연령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청구권의 경우에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구체화되어 있다고 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상황에 따라 집단적 청구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전통적 가치관의 작용에 의해 청소년들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거나 아예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연령부터는 청구권의 집단적 구체화가 인정되고 있는 등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시민권을 잠재적으로 유보하는 경향은 비단 현대사회의 출범과 더불어 발생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과거 전통사회에서도 그들의 시민권은 이와 유사하게 일정 기간 동안 유보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단, 유보의 상태로부터 실현의 상태로 전화되는 시점의 결정이 현대사회와는 달리 다양한 방식의 성인식이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결국, 청소년에게 있어 시민권의 문제는 그것이 청소년의 인지발달과정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거와 현재 모두 동일하게 일정부분 제약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논리로 인지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내재한다고 하기보다는 보류의 이유까지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수혜의 자연스러운 당사자임을 공동체 전체 성원들이 인정하는 정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볼 때 선거권 연령의 국가별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가 추론되어질 수 있는데, 연령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비록 완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은 아니지만 그들에 대한 정책, 사회적 인식, 태도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성인들과 다르지 않은 고려의 정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정책연구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시민권은 잠시 유보상태에 있을 뿐 성인의 시민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한국사회에서의 그들의 시민권 상태는 어떠한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보고서의 궁극적 목적이다 근자에 논의되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따라서 부가적인 것일 수 있다. 지극히 한국적 토대 내에서 살펴볼 때 청소년들의 시민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한 해석적 논의가 본 연구가 지향하는 커다란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시민권 현황 및 문제점, 외국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사례, 청소년의 시민권에 관한 청소년 및 교사의 의식조사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청소년 시민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들이 구성되었다.

첫째, 청소년의 시민권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민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의미는 무엇인지,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이 홍보정책의 목적은 청소년 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성인의 의식 변화에도 주어져 있다.

둘째, 학교 영역을 통해서는 시민권 교육을 교과과정에 보다 명확하고 비중 있는 차원으로 위치시키고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과목을 통한 교육을 바탕으로 그나마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현재의 선거권 연령을 입법 예고된 만 19세가 아닌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및 교사들 모두 청소년의 미약한 책임의식, 관심 부재, 경험 부족 등과 같은 미성숙의 생물학적 위치를 인정하였다. 더욱이, 대입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고3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유행성에 의해 선거가 이루어지는 포퓰리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청소년 및 사회의 성숙도 변화를 지켜보고 난 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권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넷째, 피선거권 연령 또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당분간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조기 시민권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의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약 10여 년의 경과를 두고 이후 당시의 사회적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청소년들조차 오히려 연령 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발적 참여와 관계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교칙의 재개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조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청소년 의견이 관련 국가 정책의 구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등과 같은 대표기구를 활용한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 토론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청소년이 개별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인터넷, 건의함 등의 매체를 통한 청구권 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절한 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대학입학과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한시적이거나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청소년 의견수렴 및 권리 증진을 위한 국무총리 직속 전담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생회 활동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열 번째, 국가에서 담당하는 시민권 교육 이수과정을 개설하여 과정을 마친 청소년의 경우 국가 공인 성인증을 발급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 기준이 관례를 거치는

시점이었다. 이는 특정 연령이 되면 권리나 책임의식의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성인이 되는 현대적 성인식과는 달리 과정을 결과와 더불어 중요시하며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근본적 의미에서의 통과 의례였다. 내면적 성숙과 관계없이 외형적 발달만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내면적인 책임의식을 함양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정책들 이외에도 앞서 청소년 및 교사들이 언급한 다양한 정책들과 외국의 사례 등이 폭넓게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무슨 정책을 구성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으며, 이들 정책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주어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목 차

I. 서론	3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7
1. 시민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2. 청소년과 시민권	10
1) 청소년의 '권리'	10
2)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	11
3) 청소년의 시민권	13
4) 청소년의 참여, 시민권적 논의	18
3. 연구의 방향성	30
III. 한국 청소년의 시민권 현황 및 문제점	35
1. 현황	35
1) 만 18세 선거권 운동모임(낮추자)	39
2)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40
2. 문제점	43
3. 소결	45
IV. 외국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사례	49
1. 미국	52
1) NYRA 청소년 권리 포럼	52
2) 북아메리카 청소년 권리 조사(SNAYR)	52
3) 토랜스 청소년위원회(Torrance Youth Council)	53

2. 유럽	55
1) 영국	55
2) 프랑스	56
3) 독일	57
3. 어린이 공화국-벤틀포스타	57
4. 일본	59
V. 청소년의 시민권에 관한 의식조사 ..	63
1. 조사개요	63
2. 시민권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	64
1) 선거권	65
2) 피선거권	127
3) 청구권 ..	156
4) 책임의식	185
5) 시민권 증진방안	209
3. 청소년의 시민권에 관한 교사의 의식	219
4. 소결	237
VI.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245
참고문헌	250

표 목 차

<표 Ⅲ-1> 법률상 청소년의 연령 범위 규정	36
<표 Ⅳ-1> 세계 각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	49
<표 Ⅳ-2> 아시아·태평양 각 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	50
<표 Ⅳ-3> 피선거권 부여 연령(하원의원선거 기준)	51

그림목차

[그림 Ⅲ-1] 청소년 의회 조직구성도	42
-----------------------------	----